


2011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11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2011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내면서...

국가의 수준이 곧 통계의 수준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통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졌지만 경제·사회 현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기업과 개인의 정보의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막상 조사에 응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귀찮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질 좋은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정확하고 진솔한 응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사환경은 날로 어려워져 조사직원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응답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직원과 응답자의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를 모은 「행복한 세상 만들기」는 깊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뛰는 통계 조사직원들의 어려움과 응답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지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통계청 조사직원은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시린 손을 비비며 굳게 닫힌 조사대상처의 문을 간절한 소망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높기만 한 조사대상처의 문턱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나눠줄 거라고 믿으며 한 발짝 한 발짝 응답자 속으로 다가가는 직원분들께 감사와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끝으로 진실하게 응답해 주고 좋은 글로 우리 직원을 기억해주신 응답자 여러분과 가슴 찡하고 감동스러운 조사현장 이야기를 전해 주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통계청장 우 기 중



2011년 통계조사 체험사례

조사직원문

CONTENTS

- 008 | 최우수·노은숙 | 농업통계? 은근히 중독성 있어요~
- 015 | 우수·최희영 | 삼겹살과 오미자
- 022 | 우수·강훈일 | 희노애락(喜怒哀樂)
- 027 | 우수·심효신 | 긍정의 힘
- 032 | 우수·정란주 | 가을은 무슨 색깔까?
- 037 | 우수·이정란 | HI~ IVAN
- 043 | 장려·유숙희 | 행복과 사랑의 전령사 통계청
- 048 | 장려·윤용복 | 나는 죄인이다?!
- 057 | 장려·홍석순 | 설득! 포기합니다
- 062 | 장려·김진선 | 아침 해가 뜨고 질 때까지
- 066 | 장려·김형준 | 석모도 새우젓을 아시나요?
- 071 | 장려·김우선 | 아줌마도 울리는 그대는 '통계'
- 075 | 장려·장은실 | 3년... 36개월... 1095일...
- 080 | 장려·김목식 | 떠나가신 통계가족
- 085 | 장려·장순희 | 당신이 깡패여!!! 살림이나 잘하지?
- 091 | 장려·김애정 | 저는 우도(牛島)면의 가교(架橋)입니다
- 096 | 장려·장선일 | 눈웃음
- 101 | 장려·지연숙 | 생명기반 농촌지킴이, 농업통계팀 지화자!
- 107 | 장려·이연주 | "나 이런 사람이야"
- 112 | 장려·김소은 | 뜨거운 대지의 햇살 아래
- 116 | 장려·신정선 | 나의 좌충우돌 통계조사기
- 121 | 장려·박진순 | 집세조사 설득 실패 사례
- 125 | 장려·정윤희 |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 130 | 장려·고문석 |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겸손한 마음까지
- 136 | 장려·최유라 | 농작물 조사 갔다 도둑까지 잡은 날





- 141 | **장려·라영희** | 그 사람 바보, 그러나 그건 사랑이었네
- 144 | **장려·조미순** | 친절한 통계청 아가씨
- 148 | **장려·박상욱** | 도시총각의 작물재배면적조사
- 151 | **장려·김소영** | 나의 서비스 점수는 몇 점?



2011년 통계조사 체험사례

**이
답
자
문**

- 158 | **최우수·이정미** | 고마운 가계부
- 164 | **우수·류택희** | 나라경제 지키는 나는야, 가계부 쓰는 남자
- 170 | **우수·진명희** | 내 삶의 플러스 전자가계부
- 173 | **우수·홍태남** | 파이팅, 통계순!
- 177 | **장려·최성실** | 가계부의 힘!
- 181 | **장려·조금순** | 낮 설은 한국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가계부
- 184 | **장려·김철호** | 통계조사 이왕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 187 | **장려·이미환** | 통계응답자의 편지
- 192 | **장려·도미영** | 나의 삶과 추억의 가계부
- 194 | **장려·김영순** | 휴식이란 단어 앞에 만난 통계청
- 196 | **장려·김관식** | 행복을 배달하는 조사원



2011년 통계조사 체험사례

조 사 직 원 부 문



농업통계? 은근히 중독성있어요~



노은숙 | 동남지방통계청 거창사무소

통계에 입문한 지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되돌아보면, 내 인생의 황금기 40대를 한치의 오차도 허락치 않는 통계의 바다에서, 힘들 때에는 오히려 즐기면서 무난하게 향해해 왔다고 나 스스로 위안하며 생각하니, 지나온 시간들이 금쪽같이 소중한 행복했던 기억들로만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통계조사원으로 입사해서 다들 업무보다 사람 사귀기가 더 힘들다는 농가경제조사를 인복이 있었던지, 별 어려움 없이 2년 정도 소신껏 열심히 수행했다.

그러다가 나 자신의 나태함을 없애기 위해 다른 업무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여자라면 다소 일하기 버겁다는 농어업생산팀으로 자원반, 사무소 인력운영방안 반으로 2010년 2월 전격 옮기게 되었다.

업무량이 여자라고 봐주기는커녕 남지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농업면적, 축산물생산비, 농작물생산량, 가축동향 등의 현장조사업무를 맡았다.

이거 대화가 통해야 나이랑 암·수를 알지~ 가축동향조사!

2010년 3월 2일.

내가 농어업생산팀에 와서 처음 조사한 것은 산청군 지역의 가축동향 조사였다. 3월이었지만 추운 날씨와 먼거리,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이 나의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것 같다. 현장실무실습교육이라고 직원들과 잠깐 다녀온 것 외에는 본 조사에 무지한 나는, 팀장으로부터 업무인수 겸 조사요령을 배우러 갔다.

표본조사는 조사구역도, 명부, 조사표를 일일이 대조해 가며 조사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 그런대로 수월했다.



하지만, 문제는 전수조사였다.

한·육우, 젓소, 돼지, 닭 5개 축종.

축사에 가서 경영주와 면접조사해야 하는데, 바쁜 사람들을 만나기가 무척 어려웠다. 왕복 80km 이상을 달려가서 빈손으로 되돌아오기가 아쉬워 한우의 경우 축사에 들어가 암수 마리수를 세어 보기로 했다.

팀장은 100여 마리나 되는 그 많은 소를 금방 세었다. 참 신통하게도 연령, 암·수 구분까지 척척이다.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소들 때문에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인데 말이다!

어찌 이리 신의 경지(?)에 올랐는지 물어보니, 팀장 왈, “소의 배 아래 부분과 젓꼭지, 엉덩이를 보면, 수놈인지 암놈인지, 초임인지 경산우인지를 다 알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가축과 대화가 필요하단다.

그리고, 조사대상처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시키고 면담하는 법과 뭘 물어봐야 하는지 콕콕 짚어주었다. 난 그저 옆에서 조사방법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만 열심히 하였다.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일부 전수대상 농가들은 ‘통계청’ 말만 들어도 거부반응을 보여 축사에 오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시는데, 경영주를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답변을 잘 안해주시면 어찌나?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농가경제조사 할 때는 겨울엔 따뜻한 방에서, 여름엔 시원한 그늘에서 경영주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조사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는데...’라며, 나의 괜한 도전정신을 자책하기도 했다.

2010년 6월부터는 사무소에서 가깝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 농가와의 유대강화 및 통계청 홍보도 같이 되는 나만의 조사방법이 뭔가 찾아보았다.

당장, 9월 조사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경영주들에게 조사 전, 미리 내 이름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출장가기 전날쯤 내 이름으로 ‘조사기간이 오니 마리수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와 조사완료 후에는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꼭 챙겨서 보냈다. 내 이름 석자를 꼭 밝혀서...

그 후, 2011년 3월 3일.

CATI조사를 하는데, “통계청 거창사무소 〇〇〇입니다”라고 인사드렸더니, 경영주께서 핸드폰에 뜨는 서울 전화번호를 보시고, “여기는 거창사무소 〇〇〇씨가 조사해 가는데, 서울에서 왜 조사하느냐?”고 따졌다.

그래서, “제가 〇〇〇 맞습니다. 전자조사라 서울번호가 뜹니다”라며 친절히 이해시키니, 그때서야 알아들으시고는 반가워 하시면서 조사에 응해 주셨다. 눈물나도록 고맙고 보람을 느꼈다.

아! 이제 되었구나! 드디어, 가축조사 농가에서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시는구나! 처음에는 조사원 아줌마였는데, 이제는 통계청 거창사무소 〇〇

○이라고 각인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 경영주는 직장에 다니시는 관계로 직장으로 찾아가 조사하는데, 축사를 지나다가 “한번 세어가서 면담해 보면 응답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마리수를 세어 갔다.

그랬더니, “연령별 암수 마리수를 너무 정확하게 잘 셧네요”라며 놀라시고, 더구나, “수컷 중소 한마리가 큰암소 속에 섞여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라며 감탄을 하시기도 했다.

1년 넘게 소만 보러 다니니 어느 정도 눈이 뜨이고 자신감도 생겨, 그 무섭던 소도 친구처럼 친근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좀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너무나 생소했던 가축들에 대한 용어, 생애주기, 사양여건 등 통계 조사관으로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기본지식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년 이름이 뭐니? 자연과의 교감~ 작물재배면적조사!



2010년 3월 25일.

처음 찾아간 조사구를 지금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

팀장님과 함께 찾아간 곳은 함양군 백전면 운산(雲山)마을. 말 그대로 구름과 산의 마을답게 안개장막을 뚫고 경운기가 겨우 지나갈 좁은 급경사의 임도를 따라 산위로 몇 굽이 지나, 낙엽송이 가득한 산 사이 들깨 베어낸 흔적이 있는 비탈진 밭앞에 차를 멈춘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음산한 기운이 압도하는 가운데 차에서 내려 산 아래를 한참 바라보던 팀장님께서 ‘내려갈 걸 생각하면 다리가 후덜덜 거린다~’ 고 엄살을 부리던 때가 엇그제 같다.

여자가 운전도 서툰데다 지적도도 잘 볼줄 모르고, 인적하나 찾기 어려운 깊은 산속을 혼자서 헤쳐 나가며(그나마 시골출신이라 작물구분은 자신 있었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정말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아줌마정신이 아니면 도저히 엄두도 못낼 첫출장의 애송이적 기억이었다.

지금은 내 조사구 하나하나 모르는 곳 없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최선의 노력으로 조사해 나간다. 혼자서 하는 외로운 조사이다 보니, 때론 감성에 젖어 처음보는 이름 모를 작물을 보면, “넌 이름이 뭐니?”라며 물어볼 적도 있지만 자연을 벗삼은 업무라 생각하면 웰빙 업무라고나 할까!

그리고, 간혹 면적측정을 하다보면, 그날 기분에 따라 면적이 들쭉날쭉거리려 나만의 측정방법이 필요하여, 5·10·20m거리를 지속적으로 목·보측 연습하며, 자를 가지고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나만의 자를 활용하고 있다. 면적조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충 대충’이란 단어는 내 머리속에서 지워버려야한다.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가짐이 노력의 결실을 가져와, 2011년 9월 동남지방청 작물식별 및 면적측정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쟁쟁한 실력을 소유한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에서 상도 받았다.

안해 봤으면 말을 마요~ 논벼생산량조사!



9.15 미곡 예상량조사!

이 일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겨볼 것이다. 팀원 전체가 각 조로 나뉘어 일사불란 뚝뚝 뭉쳐, 1~2일 만에 출장완료하여 단기간 내 예상수량을 결정하여야 하는 미곡예상

량조사는 ‘농업통계의 꽃’이라고 나를 정의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최대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이렇듯 중차대한 업무로 인식되니, 내 생각에는 육체나 정신적으로 제일 힘든 조사업무라고 생각한다.

2010년 9월 15일.

전날 현장실무실습을 마치고, 우리 조 3명(남자 1, 여자 2)은 준비물(조사표, 물신, 100·5m 줄자, 칼, 노끈, 깃발)을 챙겨 오전 6시 30분 현장으로 향했다.

처음 도착한 논 앞에서 물신을 신고 눈에 들어가는 순간! 이른 아침 이슬에 바지는 금방 축축히 젖어들고 눈물이 무릎까지 차 온다. 습한 구름지대 물논이다. 진흙에 빠진 발을 겨우겨우 빼내어 앞으로 나아가려니 깊숙이 빠진 발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파김치 되겠다. 현장조사도 조사지침서처럼 딱 맞아떨어지면 좋으련만, 역시나 그냥 순순히 양보하지 않고 예측불허의 상황은 늘 연출된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신경쓰다보니 A포구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조사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분명 사전교육 때는 제법 칭찬도 들으며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자신 있었는데, 이거 낭패다!

조장님이 같이 들어와, “다 까뭇지요? 잘 보고 듣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십시오”라며 다정하게 설명해 준다. 겨우 허리를 구부려 이슬 축축한 벼들 사이로 얼굴을 숙여 가로, 세로 10포기간 길이를 재고 또 재어 확인하고, 10포기 이삭수를 세어 나갔다. 10분쯤 흘렀을까? 두 여자는 허리를 펴며 서로를 쳐다보니, 이거 물에 빠진 생쥐가 따로 없었다. 누가 우리를 공무수행 중인 여자들로 봐줄까? 그래! 오늘은 여자는 던져버리고 당당한 프로가 되어보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올해 예상량조사는 작년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엄청난 경험을 해서인지, 한층 여유로움으로 조사에 임했던 것 같다.



실수확량 조사도 실기방지를 위해 경작자들에게 신신 당부, 수확날짜를 묻고 또 묻고, 유대강화 덕분으로 무사히 실기는 하나도 없고, 표본필지 6㎡내 논벼를 직접 여자의 손으로 베어 와 탈곡에서 제현작업까지 전 조사과정을 우리 여자들의 힘을 모았다. 논벼생산량조사가 끝나니 내가 여장부로서 일년 농사를 다 지은 듯하고 마음이 든든하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현장조사 시 우리 농어업생산팀 여자조사관들(5명)은 여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니 하루하루가 즐겁다. 한편으론,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은근히 중독성 있는 업무로 주위 여직원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맘 가득하다.

끝으로, 예전엔 세상이 마냥 아름답고 그냥 무관심해도 잘 돌아가겠거니 생각했는데, 통계청에 들어와 못된 습관 두 가지가 생겼다.

하나는, 조사지침서에서 업무에 대해 완전한 숙지가 되지 않으면 웬지 억울하고 파헤쳐 보고픈 욕심으로 직원들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한다. 또 하나는, 면접 시 답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명 '확인사살(?)병' 이 들었다. 이것도 직업병일까?

병원에 가면 진단이 나올까나? 잘하는 병원 하나 추천해 주세요~~~



삼겹살과 오미자

최 희 영 |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



사무실에서 회식을 하거나 가족과의 즐거운 외식시간에 자주 찾게 되는 메뉴가 삼겹살이다. 불판에 노릇노릇 구워 쌈장을 넣고 상추에 싸먹는 맛은 고소하면서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메뉴... ‘삼겹살’

난 이런 삼겹살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으며 살고 있다.

오늘도 나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소리에 흥얼거리며 운전을 한다. 출장가는 길은 사계절마다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드라이브 코스~.

봄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만발하고, 여름엔 푸르름이 하늘을 찌르고, 가을엔 노랑, 빨강 낙엽이 거리에서 춤추며, 겨울엔 하얀 설경이 끝내주는 곳~.

이런 곳을 지나쳐 가는 곳이 내 조사구^^

지금은 흥얼거리며 출장을 다니는 곳이지만 처음엔... 우~훗...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사무실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농가경제조사와 축산물 생산비 조사.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서 맡게 된 축종은 비육돈이다. 비육돈은 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살이 찌도록 기르는 돼지를 말하며 내가 조사하는 축산농가는 새끼돼지를 구입하여 비육돈으로 출하하는 곳이다.

수원사무소 관할 비육돈 사육농가는 에버랜드를 지나 포곡읍에 있다. 에버랜드에 연간회원으로 가입하여 4년간 아이들과 자주 놀러 다녔는데, 이런 곳이 이런 축산농가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주차장을 지나 작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신원리라는 동네가 나온다.

인수인계를 받았다. 낯선 동네에 낯선 업무가 부담이 된다. 현장을 가 보니 동네가 시끄럽다. 돼지 키우는 축사가 많다. 쾌쾌한 냄새가 난다. 기분 별로다. 파리는 왜 이리 많은지... 서 있을 수가 없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축산농가 사장님과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수원사무소 최희영입니다. 앞으로 사장님과 사모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응은 시큰둥...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축산농가 사장님들은 대부분 불친절하고 냉대하신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처음 축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앞으로 깡깡하다. ‘나 혼자 어떻게 다니나?’ 심란하다...

그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인사하는 이쁜 아이들.

긴장과 짜증이 확 풀리고 얼굴에 미소가 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오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하며 아이를 안아주려 하는 순간, 근데 딸이 이상하다고 코를 실룩거리며

“엄마, 엄마 어디서 똥냄새 나...?”

“뭐야?”

“엄마 뭐하고 왔어?” “엄마 더러워 죽겠네.”

얼굴이 붉게 물들고 부끄럽고 왕짜증에 휴….

그래도 그럴 것이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축산농가에서의 쾌쾌한 냄새가 나에게 뻔 거 같다. 거긴 잔반을 먹이는 축사가 많아 썩은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나서 좀 역겨운 약취가 난다.

샤워부터 하고, 부랴부랴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더러워진 운동화를 보며 앞으로 출장다닐 일을 생각하니 우울해진다. 가계조사나 광공업조사를 할 때는 이런 환경은 아닌데….

신랑과 밤에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이런 환경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엄두가 안 나.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야” 라고….

신랑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야. 돼지를 키우며 애쓰시는 축산농가는 자식을 키워내듯 돼지가 커가는 걸 보면서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사실 거야.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분들 덕분에 우리가 외식으로 삼겹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야” 라며.

“생각을 바꾸면 달리 보여, 우리가 사는 환경에 감사하며 그분들을 통해 좋은 자료를 얻어내는 게 당신의 할일이야. 넌 할 수 있어!!!”

다음 출장 때 준비를 철저히 했다. 신발은 장화를 신었고, 옷은 편한 옷을 입었으며 차에는 페브리즈를 준비해 두었다.

환한 웃음으로 “사모님, 안녕하세요? 또 찾아뵈었어요” 인사를 드리니 사모님도 가볍게 웃어주시고,

“지금 축사 들어가서 일하려는 찰나인데 어떡하나?”라고 하셔서 긴 이야기는 못 나눴지만, 날 거부하지는 않은 눈치^^ 나름 성공^^

돌아오는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다.

‘냄새도 까짓 꺼~ 맡을만 하네... 내 비위가 많이 좋아졌네...’

하지만 파리는 물리칠 수 없다. 언제 내 차에 올라탔는지 앵앵거리고 한 마리 내 쫓으려고 창문을 열면 두 마리 들어와 버려 내쫓는 거 포기했다.

그리고 아주 힘든 날이 있었다. 원부 정리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기계기 구모양과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방문했다. 사모님의 설명으로 잔반교반기를 확인하는 순간 ~

음...

속은 메스껍고 머리는 멍하고 눈은 어디에 뒹야 할지 모르겠고, 파리는 내 몸을 감싸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사진만 찍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 하면 좋으련만 이야기도 계속 그 앞에서...ㅠ.ㅠ

몸은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지만 설명해 주시는 것에 감사했으며, 온 국민이 좋아하는 돼지를 사육하는데 애쓰시는 축산농가 사장님을 생각하며 그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도 축산농가를 다녀 온 날은 삼겹살 생각은 안난다.^^

구제역이 한창 유행하였을 때 그 동네는 비상이었다.

외부인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마을주민도 되도록 외출을 삼갔다. 전화로만 상황을 전달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관리하는 축사 주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기도도 하고 걱정도 했다. 다행이 포곡읍 주변은 괜찮았고, 삼겹살 값이 뛰면서 무사히 잘 키운 우리 축사의 돼지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입가격도 많이 올라 돼지 구입을 늦추는 축사도 많았다.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큰 딸이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다음번 방문 때 축하드린다는 글과 함께 축의금을 전달했다.

사모님께서 “어머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통계청 직원이 신경써주고 고

맙네.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이 되면 저도 가서 축하드리고 싶은데 가족행사가 있어서요. 사모님, 예쁘게 하고 가세요. 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모님의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에 나도 기분이 좋았다.

다음 방문 때

“어머, 왔네. 이쪽으로 와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응, 내가 오미자를 좀 키우는데, 신경써준 덕분에 결혼식도 잘 치렀고, 이거 한 병 줄 테니 집에 가서 오미자청 1에 물 4의 비율로 섞어 마시면, 갈증도 안 나고 너무 맛있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마셔” 하시며 오미자청 한 병을 주셨다.

“어머, 감사해요. 저 한 번도 안 마셔 봤는데, 집에 가서 마셔봐야겠네요. 잘먹을게요.”

포곡은 오미자 작목반이 있어 축산농가에서 오미자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택이 그 경우이다. 집에 가져와서 설명대로 시원한 얼음물에 타 먹으니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잘 먹는다.

‘몸에 안 좋은 음료수 안 사 먹어도 되고 너무 좋네. 고마운데 다음번 방문 때 뭘 사다드릴까?’ 하다 아~ 하고 생각난 게, ‘오미자청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고 통계청 게시판에 띄어 팔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모님께서는 안 팔릴 수도 있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실지 모르니 여쭙본다며, 재고량 확인과 판매금액, 택배비 등을 확인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아침마다 주문편지가 왔나 확인하는 게 내 일이 되어 버렸다.

감사하게도 주문하시는 분이 대전, 강릉, 창원, 서울에서 여러분 계셨다. 사모님께 신나서 “사모님, 저 오미자 팔았어요. 저 잘했죠?”라고 전화

드리니, “아이고, 고맙네.”

“사모님, 문자로 배송지 알려드릴테니 부탁드립니다.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릴테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렇게 판매한 돈이 50만원 정도 된다.

‘앗 싸~’

나도 너무 뿌듯하고, 평소에도 잘해주셨지만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응답도 잘해주신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고 서로에게 작은 베품이 더욱 정확한 통계조사와 좋은 인간 관계형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사모님, 인증 샷으로 사진 한 장 찍어요. 오미자청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사진하나 간직하러구요”라고 말씀드리니 사모님께서,

“나,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도 내가 찍자고 하니 “찍어야겠네. 아주 친한 척 하고 찍어야겠네” 하시며 날 감싸주셨다.

현장조사를 하면서 편도 30Km가 넘는 먼 거리를 출장다녀야 되는 점이 피곤하지만 외진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면서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게 참 행복하다.

봄인가 싶더니 나뭇잎이 푸릇푸릇한 여름이고, 바람에 은행잎이 떨어져 분위기 좋은 가을이고 머지않아 흰 눈이 쌓인 설경을 구경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또 나를 기다려주는 응답가구의 사장님, 사모님이 계시기에 나의 발걸음은 가볍다. 내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분들도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조사자와 응답자와의 관계만이 아닌 끈끈한 관계가 된다.

2011년은 통계와의 인연이 6년째로 넘어들면서, 자기계발을 위해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생활의 새로운 자극이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일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뭔가 도전하면서 활력을 찾았으며, 10월엔 제주도로 포상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도 생겨

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는 한해가 된 거 같다.

이르지만 2012년의 바람을 생각해본다면 현장조사 응답자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더 나은 통계조사 방법으로 응답자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는 자료생산에 기여하는 내가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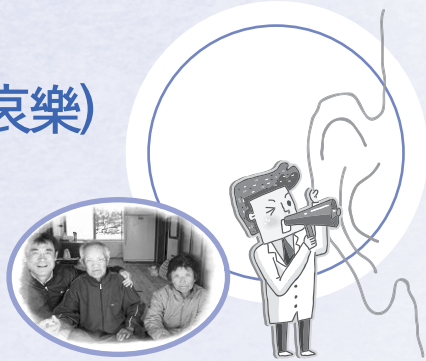
+++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 살리라
 완벽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으리라
 매사에 여유를 갖고 긴장을 푼 채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항상 몸을 부드럽게 가꾸며 살리라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우둔하게 살리라
 가능한 매사에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리라
 자연의 운명에 나를 떠 맡긴 채 주어지는 일상에 감사하고,
 또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다니고 더 자주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의 삶에 감사하리라



희노애락(喜怒哀樂)

강훈일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비가 오는 날이나 농번기에 없는 시간을 짜내 병원 일을 보는 날, 심사
사람들은 새벽부터 준비하여 그 날 첫 번째 도항선을 이용해 물으로 나온
다.

삼촌과 약속을 한 날도 어김없이 병원 진료시간이 되기 전에 먼저 전
화가 걸려왔다.

“나 여기 병원에 와있네. 얼른 오게나”하고 용건만 얘기하고 뚝 끊기
는 전화기...

2009년 2월, 처음 삼촌네 가구를 방문했을 때 나는 일단 목소리부터
하이톤으로 바꾸었다.

삼촌이 귀가 어두워서 말을 하는 사람도, 그걸 듣는 사람도 모두 큰 소
리로 얘기해야만 그나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삼
촌은 선천적인 구순구개열 수술로 인해 코밑에 세로로 흉터가 나있고
저기에서 귀까지 어두워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방문을 할 때마다 나의 귀는 삼촌의 목소리에, 눈동자는 입을 따라 움

직이며 어렵게 가계부를 써 내려갔다. 청각장애 4급이라는데 그 정도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을까하고 내 귀를 의심할 정도였고 보청기를 사용하시는데도 전화상으로는 통화가 힘들었다. 청각장애 4급인 지인은 보청기를 끼고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가계부 쓰기가 싫어서서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건가? 아님 귀 찼아서 말을 섞기 싫으신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면이 생기자 삼춘은 조금씩 속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다. 당신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나는 용기를 내어 넌지시 물어본다.

“삼춘, 혹시 귀가 더 나빠지신 것 아닙니까?”

“아이구, 그렇잖아도 자네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한테 이런 부탁을 하면 형어나 피해가 갈까봐 내색을 못했네. 사실, 청각장애 4급을 받긴 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주위에서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한다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자식들이 검사비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등급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상심한다고 그냥 있으라고 해서…”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적시신다.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 없어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제는 자네가 자식 같아 보여 내가 괜한 소리를 하나보네. 신경쓰지 말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무슨 좋은 소리 듣고 싶겠나. 노인네 욕심이지…”

속으로 나는 울컥한다.

‘그러니 옛말에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던가. 그까짓 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시간 내서 검사 받고 확실하게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리면 될 것을….’

삼춘의 재검사를 도와드리기로 하고 드디어 1차 검사날.

섬에서 물으로 나오면 시간이 촉박하기에 며칠 전부터 병원 예약을 하

고, 삼촌께서는 아침 첫 배를 이용해서 나오시라 당부하고 나는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미리 연차를 받았다.

검사를 받는 동안 초조하게 기다리던 나는 이런저런 검사를 마치고 초췌한 얼굴로 나오시는 삼촌을 다 잘 될 거라는 말로 안심시키고 점심 대접을 한 후 아들들이 살고 있다는 신춘으로 모셔다 드렸다.

웬지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은 착잡하였다. 내가 나서서 검사를 받게는 해드렸지만 행여나 그냥 제자리에 멈추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과 함께 괜히 자식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거리만 쌓여갔다.

세 차례에 걸친 검사기간 동안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삼촌께서는 더 미안해 하셨다. 다행히 1차 검사에서 2급까지는 가능성 있다는 말을 미리 전해들은 나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으로 삼촌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2차 검사 전 날.

조사구 기장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삼촌 집을 방문하였더니 배우자분이 안절부절하고 계셨다. 오늘 삼촌을 모시고 제주시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삼촌이 어디를 가셨는지 모른다.

‘아! 이런 낭패가 있나!’

도항선 시간에 맞춰 나가야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낚시를 좋아하시니 호시나 바닷가에 계시지 않을까하고 해안도로를 한 바퀴 돌다보니 저만치 삼촌 비슷한 분이 낚시대를 드리우고 여유있게 먼 치를 바라보고 계신다.

“삼촌!” 대답이 없다.

또 부른다. “삼촌!” 묵묵무답이다.

나는 차에서 내려 바닷가쪽으로 내려가면서 부른다.

“대근이 삼춘!”

석양을 등뒤로 돌아서는 모자 속 얼굴을 보니 삼춘이 맞다.

“삼춘 여기 이려고 계시면 어떡해요? 오늘 저랑 제주시 나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러기로 했지? 근데 지금 몇 시야? 어?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빨리 가세.”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하고 돌아서는 나에게 배우자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 사람이 귀가 머니까 낚시를 하면서 시간감각까지도 잊어버린다우. 미안해서 어쩌나... 이런 일이 지금까지 몇 번째인지 몰라.”

마지막 3차 검진일.

조사구 기장을 마친 후 삼춘과 함께 제주시로 나갈 채비를 하고 도항선에 올라탔다. 그 날은 해상의 폭풍주의보가 새벽에 해제되었지만 성난 파도는 여전히 큰 도항선을 마음대로 흔들어댔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도 내린다. 삼춘과 나는 도항선 여객실에 앉아 출발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를 들으며 몇 분쯤 지나 어디쯤 왔나 밖을 내다 보니 무슨 일인지 도항선 프로펠러 소리만 요란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 바닥을 휩쓸고 있는 자리에는 뿌연 거품과 함께 바닥에 있는 잔여물들이 회오리와 함께 요동을 치고 있었다.

삼춘도 생전 침 겪는 일이라 여객실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가 쳐다보며 궁금해 하신다. 타고 있던 관광객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여객실 안에서 잠을 자든지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평생을 섬에서 배를 타고 물으로 나오는 일을 다반사처럼 하는 마을 분들이 오히려 나와서 걱정을 하신다.

선장이 선미를 돌려 출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불어 닥친 바람 때문에

뱃머리를 돌리지 못하고 한참을 선착장에서 거센 바람과 씨름한다. 선장님의 스피커소리에 맞춰 이리로 저리로 들락날락거리며 1시간쯤 지날 무렵 누군가가 예인선을 부른 모양이다.

도항선보다 훨씬 작은 예인선에 의해 우도 바다를 벗어날 즈음 나와 삼춘, 타고 있던 손님들도 안도의 박수를 친다. 오늘 삼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하는 송구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외출을 받아 삼춘과 3차 검사를 받고 병원예약을 다시 한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주변의 아는 사람 건너 건너 아는 병원 관계자분께 부탁을 드리고 검진을 마치고 나니 삼춘도 환한 웃음을 나에게 보이신다.

한 달이 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심사결과 장애 1급이라는 연락을 받은 삼춘은 얼마쯤 지나 장애인복지카드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장애수당과 이·미용수당, 전기세, 전화요금, 병원비, 항공료와 보청기구입 등의 할인과 보조금을 받고 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팔순을 바라보시는 삼춘은 산수연에 꼭 참석해달라고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신다.

내가 통계업무를 담당한지 어느덧 30여 년.

이런저런 기쁜 일, 화나는 일, 슬픈 일, 즐거운 일들을 겪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 또한 만들 수 있었기에 언제나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삼춘(삼촌) : 제주도 방언으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어른에 대한 존칭



긍정의 힘

심효신 |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아산으로 발령을 받은 후 가계조사구로 당진을 담당하게 된 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먼 거리로 가계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 되었지만 어쨌든 출장은 가야 하기에 출발한 첫 출장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망망대해.

서해안을 끼고 당진 조사구로 향하는 마음이 왜 이리도 우울한가? 때마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도 나의 마음을 알아 주 듯センチ하게 흐르고, 이대로 훌쩍 여행이나 떠났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어디 한두 번 드는 생각이었던가? 마음을 다잡고 40여 분을 달려 새로 맡게 된 조사구에 도착하였다.

전임 담당자의 말로는 너무도 열악한 조건!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 바닷가의 역센 이미지를 무시 못 한다며 한 집 한 집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름대로의 사연은 왜 그리 많은지...

1, 2구역에 불응이 많아 가계부를 4구역까지 확대하여 대체를 해놓긴 했는데, 연동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사구여서 그 집이 아직도 살고

있는지도 미지수였다. 담당자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눈물겨운 대체와 찾아가는 가계부 타계기입이었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조사구를 맡게 되면 전담당자의 인수인계는 참고 사항일 뿐 나 나름대로의 조사구를 새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먼 거리를 달려와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시작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주문을 외다.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파이팅!!”

자~ 이제 달려볼까!! 101호 빈집이라고 했는데 전입은 왔나 하는 심정으로 벨을 눌렀다. 그런데 집안에서 소리가 났다. 어! 이사 왔네 “앗 싸”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욕설 비슷한 외침이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누구냐니까 xx”하며 문을 열었는데, 손에는 칼을 들고 마침 회를 떠서 소주를 한잔 하던 차라며 한잔 할 거면 들어오고 아니면 그냥 가라 신다.

아~ 호랑이굴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데 어찌지? 하는 생각도 잠시, 지금 인구조사 못하면 언제 또 아저씨를 만나서 하겠는가?

“사장님! 점심 식사가 늦으셨네요~ 가족은 다 외출하셨나요??”하고 물으니

“나 혼자 살아”하며 생년월일을 순순히 말해주신다.

“어떻게 오늘은 근무 안 하시나 봐요, 이 시간에 집에 계시는 걸 보면요?”하니까.

“나 백수야, 백수... 당진에 땅 보러왔어.”

“한잔 안 할 거면 그냥 돌아가”라고 소리 치신다.

너무 무서웠지만 또다시 웃으며

“제가 근무 중에 술을 할 순 없구요 답에 제가 또 오게 될텐데, 반갑게

문 열어주세요”하며 나왔다.

“아~ 살았구나”하며 무서웠던 그 순간을 넘겼다는 안도감과 앞으로도 이집을 계속 방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큰 부담이 나를 휘감았다.

착잡한 마음으로 201호로 올라갔다.

가구주의 직업은 도시가스 밸브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시는데 101호가 이사를 와서 가스 밸브를 연결해주고 정해진 공임을 달라고 하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라고 하며 겁을 줘 너무 무서워 그냥 왔다고 하며 나에게 인구조사는 했냐고 물어보는데 왜 이리 심장이 쿵쿵쿵쿵 뛰던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조사를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다시 B동 101호의 벨을 누르니 전직 조폭(?) 아저씨라는 분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가게부를 대체해 놓고 1개월을 써서 제출한 가구였다.

전 담당자는 아저씨가 퇴근할 때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읍내에서 만나 가게부 타계 기입을 했다며 나에게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조사할 거라면 하고 아니면 그만 하라고 정중히 말씀 하신다.

할 수 없이 다음 주 퇴근 시간에 읍내에서 뵙기로 하고 집을 나서는데 두 배로 다가오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었다

동료 직원과 함께 만나 다시 한 번 설명하기 위해 약속장소로 가니 허름한 만두집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저씨의 모습에서는 빛이 났다. 나이 50이 훌쩍 넘은 아저씨의 머리는 완전 스포츠에 전형적인 조폭 스타일 (백색 양복에 백색 구두를 신고 옷에는 각이 살아 있었다)로 가게부 내용을 알려 주신다.

사우나 매일 가고 집에서는 절대 안 씻으니 물 값 안나오고, 담배는 꼭 하루에 두 갑 태우니 그거 알아서 쓰고, 내가 옷담을 한 달에 두 번 삶아

먹으니 그거 적고, 밥도 집에서 해 먹지 않으니 외식비 2끼씩 넣고, 참! 의류 세탁비로 일주일에 7,000원 정도 드니까 그거 쓰면 될 거야. 자 이제 됐지 만두 좀 먹어~ 하신다.

이혼인지 독신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을 뻔했다. 그래도 이렇게 조사하는 건 아니다 싶어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가계부 드릴테니 적어서 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멀리 천안에서 오다보니 약속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면 정말 감사 할 텐데요...”

아저씨 간단하게 대답 하신다. “그건 안 되고... 받아 쓸 수 있으면 쓰고 힘들면 그만 뒤~.” 별 소득이 없었다

전화로 내용보완을 하며 가계부를 이어 가던 어느 날부터 아저씨 연락도 안되고 수십 번의 문자도 모두 메아리가 되더니, 어느 순간 답이 왔다.

“연락이 안되는 사이 자동차를 샀고, 아저씨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일을 하는데 몇몇 사람이 차위에서 앉아 놀길래 너무 괄씸해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쪽에서 시비를 걸어 1대 4로 크게 싸우고 별로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입원해 있다”고 하신다.

그런 무용담을 들으면서도 난 “그럼 병원은 어디예요?”하며 가계부 내용이 궁금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저씨는 “이달은 내용이 없으니 끊고 다음에 보자”며..., 간결하게 마무리 지으셨다.

그동안 퍼즐 맞추듯 이어가던 가계부도 이달은 제출 못하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던 가계부를 제출 못하면 시원해야 하는데, 왜 이리 답답한지...

마지막으로 5층에 살던 아들들.

엄마, 아빠, 아들 셋이 살고 있었는데 아빠는 도박으로 돈을 한 푼도

집에 내놓지 않고 가사를 다 탕진하고 있었으며, 엄마의 모습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막노동과 날뎀팔이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아들 두 명은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였다.

막내 초등학생에게 형은 어디있니? 하고 물으니 “형은 감옥 갔어요” 하고 태연하게 말하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것도 성폭행으로 소년원에 있다니 그 집이 두렵기도 하였다. 그렇게 몇 달을 조사하는데 어느 날 한 명의 아들이 출소를 하여 집에 있었다. 내 아들과 동갑인 그 아이가 왜 이리 겁이 나던지..., 눈빛이며 귀에 찬 귀걸이며 모든 게 나를 섬찟하게 하였다.

“학교에 안 갔니?”하니까 아무런 눈빛도 주지 않고 무응답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들....

무서움으로 다가섰던 이 가구는 내게 삶의 고마움과 희망을 알게 해준 가구였다. 사무실에서 나온 쌀을 갖다 주고, 간식을 사다가 주며 아이들과 친숙해지고 엄마의 하소연을 들으며 내가 가진 처음의 두려움이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가계조사를 하며 내 신변의 위험까지 느끼며 하루하루 곡예사가 줄을 타는 듯 한 심정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었다.

긍정의 힘은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라면 가능하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자신은 물론 세상까지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내면에서 준비된다고 한다.

여러 유형의 응답자를 만날 때마다 생기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긍정의 힘으로 바꾸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힘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힘찬 하루하루를 만들어야겠다.



가을은 무슨 색깔까?



정란주 | 동남지방통계청 거창사무소

가을이 무르익어 간다. 들판에 넘실대는 황금물결 사이로 메뚜기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푸른 가을 하늘위로 잠자리 떼가 춤을 추는 가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이 내 생에 또 있을까...

2010년 7월에 입사하여 농어업생산팀의 업무를 맡아서, 10월에 논벼 실수확량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를 하기에 앞서 담당자로부터 실무교육을 받고 바로 논으로 향했다.

우린 3개조로 나누어 팀을 구성하였는데, 나에겐 천운이 찾아온 것이다. 남자주무관 2명과 같이 배정되었다. 처음이라 잘 모른다면서 몸이 빠른 주무관님이 눈에 들어가 해당 면적만큼 벼를 베어서 나오는 것이었다.

나도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눈에 들어가 낫으로 벼를 베는 건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행운이 내게 찾아온 것이었다. '죽음의 조'로 불리는 팀장님의 조에는 여직원 2명이 배정되었는데, 출장나갔다 들어오는 날은 모두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

는 것이었다.

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2010년의 논벼 생산량조사는 끝이 났다.

바쁜 날들이 지나고 어김없이 2011년 가을이 찾아왔다.

올해는 어떤 분들과 같은 조가 될지 나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작물재배면적조사는 그나마 목측이나 실측을 반복해서 자신감이 붙었는데, 논벼 생산량조사는 불안하기 시작했다. 그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내가 ‘죽음의 조’ 라고 불리는 팀장님과 같은 조가 된 것이다.

“으~악!” 나의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 온몸을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만도 없었다. 그게 벌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조는 노련하신 노조사관 언니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팀장님, 그리고 어리버리한 나, 이렇게 3명이 거창군을 담당하게 되었다.

논벼 예상량조사부터 정신이 없었다.

팀장님이 “뛰어~”라고 하시면, 난 정신없이 논두렁을 달렸다. 내 몸이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물장화를 신고 노조사관님과 눈에 들어가, 깃발을 쫓고 자로 재고 포기의 이삭수를 세며 손을 맞추어서 일을 했다.

처음에는 허둥지둥 했는데 자꾸 연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척척 잘하게 되었다. 그때 조사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란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네. 작년에 편하게 지내서 일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시는데!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을건데 그래도 잘한다는 말

을 해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팀은 한 곳이라도 빨리 끝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거창읍에서 제일 먼 신원면은 가는 길이 꼬불꼬불 해서 멀미가 날 정도였다. 그리고, 워낙 오지라서 그런지, 차도 다닐 수 없는 길을 걸어서 갔다. 헉헉거리며 따라가다가 뱀이 나오면 “엄마야~” 소리도 질러가며 엄마땀을 쫓아가는 병아리 마냥 따라다녔다. 여자가 뱀을 무서워 한다는 건 이 상황에서 사치였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니 점심시간도 놓치게 되었다. 전날 조사관님이 눈에 들어가면 엉망이라서 식당에도 못들어 간다며 도시락을 준비해 오겠다고 하셨다.

우린 몇 시간만에 물장화 끈을 풀었다. 퉁퉁 부은 발과 흙탕물이 튀긴 옷을 볼 때, 왜 이렇게 내 신세가 불쌍해 보이던지. 그 생각도 잠시였다. 우린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꿀맛 같은 점심을 먹었다.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에 밥을 먹으니 그 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구부러진 허리도 제대로 못 펴보고 우린 얼른 밥을 먹고 일어서야만 했다. 여직원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팀장님은 “아이고, 정말 미안해요. 그렇지만 우짜겠소? 또 남은 필지 하러 갑시다” 그러시는 거다. 팀장님 마음을 알기에 우린 힘든 몸을 일으키며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

작년의 나와 비교하며 ‘정말 너무 편했구나!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했을텐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작년에 못했던 일을 올해 배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나머지 하나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빨리 끝내자고 대충하실 팀장님이 아니시라는 걸 진작 알았기에, 내 몸이 힘들어도 같이 손을 맞추어서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예상량 조사는 끝이 났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실수확량조사였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했던가?

난 낮으로 어떻게 벼를 베는지도 몰랐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팀장님은 나에게 눈에 들어가서 벼를 베어오라고 했다. 벼 한 포기를 잡고 낮으로 당기니, 이걸 베는 게 아니라 벼 한 포기가 뽑혀 나오는 것이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보고 팀장님은 웃으면서, 낮을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해서 당기며 베어보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정말 벼 한 포기가 싹 베어지는 것이었다. 요령을 알면 이렇게 쉬운데, 처음부터 못할꺼라고 걱정만 했던 내가 너무 한심스러웠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통계청에 들어와 보니 ‘여자도 못할 게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벼 한 단을 만들기 위해, 매듭을 묶고 벼를 베어서 소복히 쌓아지면, 다시 묶어서 이삭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대에 담아서 나오기를 얼마나 했던가? 나도 모르게 벼 한포기를 잡았던 손은 어느새 두 포기, 세 포기까지 잡고 쓱쓱 베는 거였다. 그게 참 재미가 있었다. 남들이 보면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하게 되었다.

그렇게 벼를 베어 와서 사무실 뒷마당에서 탈곡을 시작했다. 탈곡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일이다.

한 사람이 한웅큼의 벼를 챙겨주면 한 사람은 탈곡을 하고, 또 한 사람은 탈곡한 벼단을 받아서 묶어 벼짚무게를 달고, 한쪽 옆에서는 선풍기 바람으로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듯이 해야 한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일찍 끝낼 수가 있다. 작년엔 그나마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척척 자기가 맡은 일을 알



아서 해냈다.

우리 팀은 그렇다. 여직원 남자직원 따로 없다. 일할 때는 그냥 남자처럼 일을 한다. 그렇게 해야만 농어업생산팀의 일원이라 할 수 있다.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 하듯이 농산물 생산량조사가 이제 서서히 끝난다. 산꼭대기에서 물들어 내려오는 단풍나무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거리에 늘어선 은행나무에서 가을의 향기를 맡는다.

이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지나간 시간에 대한 만족감 아닐까? 사람들은 누구나 힘든 것보다 쉽고 편한 걸 원한다. 그렇지만 그게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택할 것이고, 그게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가을이 서서히 저물어 간다.

이렇게 가을은 떠나가지만 내가 경험한 통계청의 가을은 영원히 내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혼자만의 삶이 아닌 우리라는 삶을 위하여 또 한번 힘찬 파이팅을 외쳐본다.



HI ~ IVAN

이정란 |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타지를 떠도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지역의 구분 없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그 유형을 더러는 ‘신 유목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먹을거리를 찾아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면 현재는 일과 교육이라는 목적 때문에 능동적이라는 것이 다를 뿐.

떠나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는 똑같이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 들어와 적응하려는 슬로바키아 유목민을 경제활동 인구조사로 접하게 되면서 겪은 일을 여기에 풀어보고자 합니다.

글재주라고는 도통 없는 제가 이 글을 써야겠다는 용기를 낸 건 우연히 ‘문순득 표류기’를 접하게 되면서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듣고, 처음 본 낯선 것들 어느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까만 두 눈을 반짝이고 귀를 쫑긋했을 선조 문순득! 그에게서 그 무엇이라

도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이해라도 하듯 외국인 면접 시 느낀 당황스러운 마음과 부끄러움을 털어내 드러내는데 든든한 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표해시말(문순득 표류기)

흑산도 홍어장수 문순득이 제주도 장사길에 나섰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일본, 중국 등을 떠돌면서(그때는 외교적 문제로 표류민 송환은 조선으로 바로 돌아올 수 없고 반드시 중국을 거쳐야만 됨) 물 설고 낯설은 타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3년 동안 그곳들의 문화나 언어를 체험하고 돌아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정약전이라는 학자에게 세세한 정보를 구술하여 책으로 남긴 것.

Ivan은 연동으로 2개월 후면 끝나는 제철 사택조사구에 새로 전입 온 ‘신 유목민’ 단독가구였다.

1층 빈집 베란다에 빨래가 널린 것을 보고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어 옆집 할머니에게 “어머니, 옆집에 누가 들어왔네요. 만나보셨어요?”하고 물어보았더니

“그러지 않아도 이사 온 기척이 나 아는 체라도 헐라고 벨 눌렀드만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하고 등치가 이만한 외국남자가 뭐라 뭐라 하면서 손을 휘젓길래 깜짝 놀라 나와부렀어” 하신다.

아차 싶었다. 이런!! 쟈장….

어떻게든 면접을 피하고 싶어 관리실 여직원을 비롯해 아파트 반장님 등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해 봤지만 전입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모두들 이사 들어 온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큰 심호흡 한번 후, 한 참을 생각하다 통계조사 방문 안내장 뒷면에

“Hi !!

I want interview becaus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Please call !!

Mobile : 011- 000- 0000’

핸드폰 단어 검색창의 도움을 받아 학창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볼펜통이 손에 묻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메모지에 한자 한자 꺾꺾 눌러 썼다. 그렇게 떨리는 심정으로 메모를 적어 현관문에 붙여놓고 돌아왔다.

‘진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지?’

지금 생각해도 배짱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메모를 붙여두고 온지 하루도 되지 않아 낫선 번호가 내 핸드폰으로 울렸다.

“여보세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핸드폰 너머에서,

“불라 불라 불라 불라~”

실 틈 없이 쏟아지는 영어단어들로 나는 순간 폭탄테러를 당한 느낌이 었다. 그 전화가 내가 오늘 붙여둔 메모의 답이란 걸 알았지만 그 순간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극도로 소심하게 “yes! yes!” 만을 나는 반복했다.

그러다 용기를 내 던진 한마디,

“Just moment, slow. I’m today visit, you know?”

이것이 문법에 맞는지 주어 목적어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리고 주고 받은 대화는 생각나는 단어만 얼렁뚱땅 조합해 ‘무조건이라는 노래’ 처럼 저질러 놓고 나니 도대체 뭘 소린지...

“ ”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OK, OK.”

단단히 준비를 하고 단숨에 40분 거리의 조사구로 다시 달렸다.

아파트 앞에서 잠시 망설여졌지만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리는 법이라는 옛말을 되새기며 나는 벨을 눌렀다.

기다렸다는 듯 벌컥 문이 열리고 내 앞에서 서 있는 덩치는 만화에서 자주 보던 산적? 아니 달마대사? 같은 인상의 외국인이었다.

“Excuse me.”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앞에 서니 달리는 차안에서 내내 중얼 거렸던 인사말들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짧은 순간 지금까지 살면서 보아왔던 수많은 영어단어들이 두서없이 공중에서 분해되어 나의 머릿속에서 나를 조롱하듯 웅웅 소리 내며 날아다니고, 나는 쓴 웃음 지으며 말없이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에 대답하듯 Ivan은 내가 문 앞에 붙여둔 쪽지를 가져와 가볍게 흔들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 멀찍이 재껴 두고 “Come in”이란 말과 함께 나를 초대했다.

나는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하고 ‘이 사람 보기와는 다르게 신사구나’라는 믿음이 생겨 현관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Can you speak Korean ?”

그나마 운전 중에 연습했던 한마디가 튀어 나와 주었다.

“No, No.”

그는 손사래를 치며 “몰라요, 아저씨, 맥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집어 가며 세 단어 밖에 모른다고 강조한다. 순간 웃음이 났다. 내가 받은 첫 인상인 산적에서 바로 친근한 맥도날드 아저씨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어찌 되었든 방문 목적을 달성해야했으므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니

생각을 다잡았다.

나를 지목하며 “I question?”

상대를 지목하며 “You answer. OK?”

상대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OK. OK.” 한다.

탁자위에 빈 종이를 내밀며 “Write” 라고 부탁한 후 제일 처음 던지 질
문이

Your name? IVAN SYKORCIN

From? Slovakia

Age? 43

Job? Supervisor – programmer. posco

Computer programmer? OK.

University? Technical university kosice

Birthday ? 8.11. 1967

그 상황에서도 ‘43살 이구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긴장감은
처음보단 많이 풀려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Here. how many? maybe 1.5year

여기까지가 Ivan과 내가 나누는 종이 필답의 전부였다.

그가 돌려준 안내장 쪽지와 필답 종이를 챙겨들고 “Thank you” 한마
디와 함께 답례품으로 나온 상품권을 내밀었다.

“No! No!” 안 받겠다는 걸 “Present! Present!” 하면서 탁자위에 올려
놓고 꾸벅 인사만 하고 그 곳을 뛰다시피 나왔다.

한 달에 한 번 방문조사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차마
하지 못했다. Ivan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필답 중간 중간 소리 없는 한
숨과 쓴웃음을 나 홀로 얼마나 많이 번갈아 가며 흘렸는지 기억하고 싶
지도 않다.

돌아 나와 정리하면서 연락처와 배우자 유무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다시 들어가 확인할 용기가 없어 다음으로 미루고 돌아왔다. 연락처는 다행히 그가 내게 걸었던 핸드폰 번호가 남아 있었기에 알 수 있었고, 다음 달엔 준비된 외국인 조사표를 이용해 “Check!” 만 부탁해서 매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외국인과의 면접 조사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영어회화반에 등록해야 하나? 할 정도로 후회는 했지만 내가 그들과 만날 때마다 소설을 쓸 것도 아니고 거창한 형용사, 조사 섞어가며 대화를 할 것도 아니고 몇가지 단어만으로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땅에서 자리잡고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유목민을 만나더라도 미리 피해 돌아가는 방법을 찾진 않겠다는 다짐으로 나 자신을 위로 했다.

미상불 스스로 했던 위로 속에는 내게 닥친 어려운 상황에도 유쾌, 상쾌, 통쾌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앞서 살다 갔던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외국인 조사표나 영어회화 책자 등이 널려 있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눈으로 훑고 지나치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을 ‘소귀에 경 읽은 소리’라는 옛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만 펜을 내려놓을까 합니다.



행복과 사랑의 전령사 통계청...

유 숙 희 | 동남지방 통계청 거참사무소



통계청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어언 4년6개월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나갔다. 군청에서 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막 끝나가던 때에 통계청에서 도급조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다.

“그래, 자치단체에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여러 차례 조사를 해봤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자신만만하게 원서를 접수한 후 하루가 여삼추 같다는 말을 절감하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합격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자신만만 하던 내 모습은 간 곳 없고 첫날부터 어리둥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월초에 입사하여, 사직하시는 분의 조사구를 받아서 대충 일계부만 받고 다음날 직원분하고 같이 대상처를 방문했다.

부재농가가 많아서 인사도 채 못하고 돌아와서 전월분 일계부를 참고 삼아 사무실 선배님들께 물어 물어 간신히 일계부를 마감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간신히 적응을 해 가던 중 통계조사의 진수를 맛보는 표본개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취지를 말씀드리고 설득을 했다. 처음부터 잘 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무래도 농가의 부채까지 다 들춰내야 하는 원부 내용을 여쭙 볼 때는 그런 개인 사생활까지 왜 물어보냐며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농가의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 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시간을 갖고 설득해 나갔다.

연세 드신 아버님, 어머님들이 일하러 가셔서 오후 1시가 넘어도 오시지 않아서 밭에 갔더니 점심도 안 드시고 일을 하고 계셨다. 배 고프실 것 같아서 국수를 삶아 놓고 모시러 갔다.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보다 더 낫다”라고 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통계청이란 곳은 좋은 곳이구나. 나에게 돈도 벌고 칭찬도 받을 수 있게 해주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농가는 경운기도 없이 고추농사를 지으시는 노부부가 계시는데 그 분들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고추를 따신다.

도랑을 건너 산 속에 밭이 있어서 한참을 걸어서 갔더니 고추를 큰 자루에 한 자루 따 놓고 또 따고 계셨다. 그래서 고추를 차에다 싣고 집에 갔다 드렸다.

양파 캐 때는 양파도 같이 캐고 복분자도 같이 따고 농산물도 팔아드리고 정말 통계청에 오지 않았으면 평생 맛보지 못 할 행복이었다.

한 농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남매가 농가인 삼촌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 여자아이가 “아줌마, 우리 엄마 하면 안돼요. 가지 마세요! 같이 살아요” 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생일날 장갑을 사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오히려 미안해졌다.

그리고 농가의 어르신들께서 손수 가꾸신 농산물들을 친정집에 온 딸

챙겨주듯이 챙겨 주시는 정에 나도 뭐 하나라도 도와 드릴려고 노력한다.

TV며 전화기 등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아이고, 이기 우찌된기고 당최 안된다. 니 기다리다 눈빠지겠다” 하시면서 보잘것 없는 나를 반기신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집에서는 신랑이 다 하는데 기계치인 내가 몇 번 만지면 정상으로 작동이 잘 된다.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기를 3년, 정든 농가경제 조사구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가계조사를 하게 되었다.

3월 말에 가계조사를 시작하면서 연동 중인 조사구를 받았다. 가계부를 기장하는 가구는 주로 맞벌이 가구가 많고 더군다나 늦게 귀가하는 가구가 많아 야간에 방문을 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가구가 많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사구가 시내에 위치해 있어서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고 늦게라도 자주 방문하여 설명도 해드리고 또 편지로도 설득을 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도 전에 또 연동조사를 해야 한단다.

7월 한여름에 가구명부와 요도를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어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어머니 한 분이 “아이고 아직 집에 안 가꾸마. 이리 늦은 시간에 밥도 못 묵었제, 배고플진데 우리 집에 와서 밥 묵고 해라.”

그렇지 않아도 밥 먹을 곳도 없고, 밥 먹을 마음도 여유도 없이 한 집이라도 더 만나려고 정신없이 다니느라 배가 고프던 차에 너무 고마워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하면서 엄치 불구하고 밥 한 그릇을 푹딱 비웠다.

마지막 한 가구를 방문했다.

“통계청에서 왔습니다. 가계동향조사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하고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서는 순간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고 버럭 화를 내시며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신다. 그것도 젊은 남자분

이.

앉아서 취지를 알아듣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앉지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신다.

쫓기다 시피 집을 나와서 이웃에 물어봐도 이사오신 분이어서 잘 모르신단다. 이장님도 잘 모르시고.

전입가구여서 가구주 이름이며, 식구가 몇 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간신히 가구주 이름만 알 수 있었다.

오기가 생겼다. 그래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지. 각오를 다시하고 궁리를 했다.

아이들이 집에 올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해서 엄마 핸드폰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부인은 내 설명을 듣더니 자기 근무지로 한 번 찾아오라고 하신다. 너무 좋아서 약속시간에 알려준 장소에 찾아갔다.

그렇게 설득하여 지금 전자가계부를 잘 하고 계신다. 가끔 마감일에 늦어 내 속을 태우기는 하지만.

또 한 어머니는 처음부터 답례품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못하신단다.

이웃 분들 말씀이 그분은 동네 분들하고도 어울리지 않으시고 동네에 잔치가 있어서 음식을 갖다 드려도 싫다고 하시는 이상한 분이라고 하신다. 그 할머니 댁에는 가지 말라고.

하지만 몇 차례 더 발걸음을 하고 할머니를 설득하여 지금은 잘 협조를 해주신다. 답례품도 상품권 대신 할머니가 사용하시기 좋게 현금으로 바꿔드리고 내가 답례품을 사용한다.

돈이 많이 든다고 병원에도 안 가시고 안티푸라민을 다리에 바르시고 추운 날에도 방에 연탄도 안 피우시고 사시는 할머니가 안타까워 복지

기관에 알아봐 드리려고 해도 막무가내시다.

깔끔하신 성격에 남의 신세지는 걸 싫어하시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뭐든지 해 드리고 싶어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 세금도 내 드리고 글을 못 읽는 할머니를 위해 우편물도 처리해 드리고, 마트에서 심부름도 해드립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거 없으세요? 제가 도와 드릴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나 벌어다 미긴다고. 옥보요. 정구지도 베고 핏고추도 따고 깻잎도 따고. 약 한분도 안친기데이.”

마당에 조금 심어놓은 푸성귀를 매번 나누어 주신다.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도 사다 드리고, 슈퍼에서 상품도 사다드리고 농약방에서 종자도 사다드리고, 금융기관에 세금 납부도 해드리고, 관공서에 가서 민원처리도 해드리고, 이래저래 바쁘지만 그래도 나는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좀더 배려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응답해주는 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맙고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란 생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저런 분들을 만나 그 분들의 삶에서 인생도 배우고 사랑도 나누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는 통계청이란 곳이 나에게서 행복과 사랑의 전령사다.

행복과 사랑의 전령사 통계청이여 영원하라!!!!

오늘도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 본다.

유숙희 아자 아자 파이팅!!!



나는 죄인이다?!



윤용복 |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나는 전생에 누구였을까?

적국의 왕자를 사랑하여 적군이 침입할 때마다 저절로 소리를 내 나라를 지켜주던 그 거룩한 복을 바르르 떨리는 여린 손에 칼을 들어 북~ 찢어버린 비극적인 공주였을까?

--

커다란 검은 단에는 위엄에 찬 심판관이 앉아 있다. 찌렁찌렁 굵고 울림 있는 음성으로 그가 부하에게 묻는다.

“여봐라, 이자의 죄목은 무엇이나?” 단 아래 있는 나를 가리키며 심판관이 묻는다.

“네, 이자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가중처벌로도 모자란 용서 못할 희대의 중죄인입니다.”

“그래? 그럼 이자의 죄목과 증거를 제출하라.”

“네, 지금부터 영상으로 이자의 죄를 낱알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의 커다란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영상이 움직인다. 바로 내 그동안의 삶의 일부분이다.

#장면 1

어둠이 내리는 저녁, 옥탑으로 향하는 가파른 철계단을 오르고 있는 나, 옥탑방에 불이 켜이자 문을 두드린다.

“똑, 똑”, “계세요…”

“누구세요?” 통명스런 남자 목소리…

“네, 저 통계청에서 왔는데요…, 잠깐 뵈 수 있을까요?”

“뭘요? 통계청에서 여긴 왜 와요?”

“네, 뵈고 말씀드릴게요. 잠깐이면 돼요.”

“아,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왜 귀찮게 하고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여러 번 뵈러 왔었는데…. 못 만나고 가세요.”

“아 피곤하다는데 왜 자꾸 그래? 답에 와요, 답에.”

며칠 후, 또 다시 철 계단을 오르는 나,

“똑똑”, “계세요?”

“누구세요?”

“네…, 저 지난번에 왔던 통계청 직원인데요…”

“아, 증말… 아니 왜 그 통계청인지 뭘지는 왜 자꾸 사람 귀찮게 하고 그래요?”

“나 지금 몸이 아프니까 답에 오쇼. 여기 파스붙인 거 안보여요?”

창문 너머로 등이며 어깨에 파스붙인 벗은 윗몸을 보이며 짜증을 낸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답례품 드릴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담에 꼭 문 좀 열어주세요…”

“…….”

며칠 후, 이젠 철 계단에 앉아 옥탑주인을 기다리는 나.

남자 혼자 사는 가구라서 며칠을 기다려도 도무지 만나기 어렵다.

드디어 퇴근하는 남자와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 운용복이예요.”

“아 또 왜요?”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선생님 이사 오신 집이 통계조사 표본 구역이라서요…, 조금만 시간 좀 내주세요.”

“아 됐어요! 통젠지 뭔지 다른 집 해요.”

“그게 표본구역은 제 맘대로….”

“아 나 막노동하는 사람인데 여기 파스 붙인 거 안보여? 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고 그래? 피곤해 죽겠네, 증말. 저리 가쇼.”

몇 주 후,

“똑똑….”

“계세요?”

“누구세요?”

“저 통계청 직원인데요….”

“아 담에 와요 담에, 나 지금 다 벗고 샤워하는 중이니까.”

“더워 죽겠는데 남 씻지도 못하게 자꾸 오고 그래?”

그 후로도 여러 번의 거절 끝에 다시 만났다.

“선생님… 그래도 제가 선생님 뵈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나 참… 그래, 뭘 물어보려고 그래요?”

“선생님 일 하시는지 혹시, 구직하시는지 그런 거예요. 우선 어떤 일하세요?”

“나 양은그릇 만드는 일하는데 왜요?”

“선생님 생일은 언제세요?”

“아니 이 아줌마 순 사기꾼 아냐? 왜 남에 주민번호는 물어보고 그래? 남에 주민번호가지고 무슨 짓 하려고 그래? 이거 순 사기꾼 아냐?”

“주민번호가 아니고요, 실제 쇠는 생일을 여쭙보는 건데요.”

“생일이고 나발이고 당신이 내 주민번호 가지고 대출을 받을지 보증을 설지 누가 알아?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냐고. 나 당신 같은 사기꾼 여러 명 봤어. 다시는 당신 안 볼 테니까 우리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아줌마 한 번만 다시 왔다간 그냥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알았어?”

“짹!” 문 닫고 들어가는 남자.

“이 증거자료에 의해 피고는 타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편안하게 쉴 권리를 빼앗았으며 집 앞을 가로막고 기다려 통행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도로 보아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흠..., 한두 가지 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는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장면 2

빌라 현관 앞에서 있는 나
며칠을 방문해도 문 안 열어주는 가구의 가구원을 기다리는 중이다.
드디어 누군가 현관 안으로 걸어온다.

“저… 안녕하세요? 저 통계청 직원인데요…. 혹시 00호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나는 표본조사구역으로 선정된 거머 경제활동인구조사란 무엇이며 등을 열심히 설명하고 지나하게 취해 있던 부인은 가구원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 그리고 부인은 취기 때문인지 간간히 하소연도 한다. 예전에는 집이 몇 채였고 자신은 미대에서 미술을 전공했는데 사업이 망해 이제는 이 집 한 채 남았는데 이것도 빛이 많아 독촉장이 날아온다며 아들속 썩이는 얘기며 대학원까지 나온 남편은 증권회사 다니다 명퇴하고 자격증 공부하러 다니는 얘기 등…

그날은 조사 잘하고 다음 달이 되었다. 보조조사표도 안 써주고 집엔 불이 켜 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밤늦게 퇴근하는 부인을 기다린다.

“안녕하세요?”

“예…, 왜요?”

“저 이번 달 경제활동 어떻게 하시나해서요.”

“됐어요. 우리 집은 이제 그만하세요.”

“피곤하시면 제가 다음에 전화로 할게요.”

“아니요, 내 생활 자랑도 아니고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안 할테니까 우리 집은 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말고.”

며칠 후 계단에서 우연히 문 열고 나오는 가구주와 마주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자 가구주는 알았다며 자기가 해주고 배우자도 잘 얘기 할 테니까 다음 달부터 조사표를 우편함에 넣으라고 한다. 그렇게 몇 달 후 보조조사표가 안 나와 기다리다 아들을 만났다.

아버지는 뭐하시는지 도서관에 다니는지 일하러 다니는지 엄마는 백화점 잘 다니는지 아들은 뭐하는지 조사하고 난 다음날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통계청 직원이죠? 나 00빌라 00호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어제 아드님 만났어요.”

“이봐요. 내가 우리 집 안 한다고 했죠? 왜 자꾸 싫다는데 끈적대고 그래? 당신 그리고 우리 남편 좋아해? 왜 남에 남편 도서관 갔는지 일하러 갔는지 묻고 다녀? 왜 도서관 갔으면 찾아 가려고? 가서 만나려고 그래? 당신 땀에 우리 부부 매일 싸우고 난리 났어. 왜 싫다는데 자꾸 귀찮게 해서 잘 사는 남에 가정 싸움판 만들고 그래? 당신 우리 남편 몇 번 만났어? 어쨌길래 통계조사 해주라고 우리 남편이 난리냐고, 밖에서도 만나고 그랬어? 왜 멀쩡한 가정 있는 남자한테 꼬리치고 그래. 당신 혼자 살아? 혼자 사는 여자야?”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욕이라도 막 퍼붓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참기위해 어금니를 꽉 깨무는 나.

“네... 그게 우리 일이 가구원이 일하는지, 구직하는지 아니면 공부하는지 그런게 중요 해서요... 오해하시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당신, 내가 당신 회사 찾아가서 개망신 줄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 번은 봐주겠어. 근데 다시 한 번만 우리 남편한테 뭐 물어보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인터넷에다 도배할 줄 알아 알았어? 그리고 지금 당신 얘기한 거 다 녹음 뒀으니까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면 앞으로 똑바로 해 알았어?”

변명할 여지도 없이 “뚝” 전화 끊어버리는 여자.

“보십시오. 이로써 피고인은 잘 살고 있는 가정 부부싸움 시켜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가정을 위기에 처하게 한 가정파괴범에, 유부남에게 접근한 불륜녀 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음... 이 또한 죄질이 아주 악독하구나.”

“형량을 내리기 전 피고는 최후변론을 하시오.”

“판관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만 하는 표본조사라는 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처럼 대대적인 마스크 홍보나 소문을 통해 조사에 대해 들었다면 이렇게 대상가구에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옆 집도 하지 않는, 회사에서 몇 십 명에게 물어봐도 전혀 아무도 모르는 오직 나만 해야 한다는 그 희한한 조사를 어느 누가 받기며 해주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측에 오해에 수모에 우리 조사관들은 피눈물에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물론 통계법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통계응답자는 통계작성을 위한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조항이 있지만 조사구에서 그 문구를 살짝 언급이라도 할라치면 여기가 공산당이나, 왜 왜정시대도 안하던 강제조사를 하냐, 여기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그럼 조사 안 해주면 벌금내고 경찰이 잡아간다는 말이나, 등등 난리가 나서 아예 그런 의무 조항은 입에 병꽃도 못합니다. 게다가 이 조사는 이주민 대책이나 급여 책정, 청년실업 등 실업자 구제에 잣대로 쓰이고 요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도 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시작됩니다”라고 말해도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나. 그럼 우리 아들 당장 취직시켜 줄거냐. 쥐 꼬리만한 월급인데 알려주면 얼마 올려 줄거냐 면서 조사엔 응해주지 않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통계가 무엇입니까? 선배 조사관님의 말

쏟처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등대와도 같은 존재, 미래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길잡이가 아니겠습니까? 통계의 활용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되며 미래의 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조사관들은 입에 담지 못할 범죄자의 누명을 쓰면서까지 최고의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대상가구의 희생을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통계조사 해주랴, 가계부 쓰랴, 게다가 나날이 없어지는 부가조사 해주랴, 그분들도 짜증나고 숨 찰 거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진심을 다해 인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관님, 열심히 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죄를 물으신다면 이 세상에 죄 안지고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선처 부탁드립니다.”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조사구 가구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또한 조사관이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도 칭찬할 만하니 이로써 이 사건은 기각하며 조사구에는 심심한 감사를, 조사관에게는 격려를 보내도록 한다.”

“땅! 땅! 땅!”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들으며 나는 유유히 법정을 걸어 나오고 있다.

“띠리리리 리리리리리~ 리리리리~ 리리리리~~”

“여보! 빨리 일어나, 출근 안 해?”

헉!, 얼른 알람을 끄고 출근준비를 서두른다.

난 다시 공주로 태어난다면 조국의 북을 찢는 일도 없을 것이며 제 아무리 꽃미남 일지라도 왕자와 사랑에 빠지지도 않을 작정이다.

+++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과소 평가하지 말라
우리들 각자는 모두 다르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두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두어라
당신의 삶이 하루에 한번인 것처럼
삶으로써 인생의 모든 날들을 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아무 것도 진정으로 끝난 것은 없다



설득! 포기합시다

홍석순 | 동북지방통계청 삼척사무소장



‘사무 및 집 나르기’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정환경조사서 엄마의 직업란에 몰래 적어 넣었다가 식구들에게 들통난 말이다. 자가용이 없어 주말에 아들과 함께 가족차를 이용해 답례품을 배부하곤 했는데 그 때 어린 눈에 비쳤던 나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남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지 않을까?’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해진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나를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뒤돌아보면 어언 30년! 어찌 우여곡절과 보람된 일 또한 없었으랴, 이 글이 새내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야기 하나 (그 땐 그랬지)

누구나 첫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단발머리 소녀로 발령을 받았을 때 다들 세모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12월 30일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한 시간 정도 교육 후 조사구 요도 2장과 가계부 25권이 내 손에 주어졌다. 지금처럼 멘토 제도도 없었고 표본이 교체된 시기라 전임자도 없이 조사구를 혼자 개척해야만 했다. 한 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도착한 조사구는 주변이 깨끗한 연립주택이었다.

날짜가 촉박하여 가구명부 작성은 뒷날로 미루고 가계부부터 설득하기로 했다. 지금 생각하니 참 용감했다. 나 자신도 통계를 잘 모르면서 무작정 지침서에 있는 목적을 설명해 가면서 기입을 부탁했다.

추운 날씨에 다니는 것이 애처로운지 아니면 인심이 좋은 것인지 일단 두고 가라고 하는 집이 대부분이었다. 출발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어스름이 깔리고 피곤한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보다. 며칠 있다가 방문한 집에서 복병을 만난 것이다.

지금도 생생한 그 가구….

조사방법도 익숙지 않고 대화기법도 터득하지 못한 터라 그만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가계부 기입지도와 가구표 작성을 위해 방문한 그 가구는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집안 일을 보고 계셨다.

“할머니 인구조사 나왔습니다” 하면서 설명하려 하자 “추운데 고생 많다. 그래 뭐 알아야 되는데.”

“예 가구주 성함과 생일하고 띠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 “내 이름은 김옥분이고 나이는 일흔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할머니, 가구주는 돈을 벌고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면서 지침서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험악해지면서 “마, 치아뿌라 우리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요새는 젊은 인간들이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아네” 하시면서 방문을 팡 닫고 들어가셨다.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옆방으로 가서 물어보니 “아까씨가 말을 잘못 했어. 한 달 전에 아들이 실직하고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엄청 구박하거든”하고 말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부채질을 했으니...

다음날 빵과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백배사죄하여 오해는 풀렸지만 신중하지 못한 나의 태도를 많이 반성했다. 그 후 조사구에 갈 때면 할머니 댁에 먼저 들러 인사를 했고 덕분에 협조도 가장 잘 되었다.

그후로 노인들이 계시는 가구를 만나면 먼저 어르신부터 찾아뵈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 부모님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

노인분들 중에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이 많아 위축감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말벗해주기를 하는 등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하는 마음이 통계조사 만큼 중요할 것 같다.

♣. 이야기 둘 (설득~ 중단 합시다!)

아름다운 산과 맑은 공기의 도시 태백시!

언뜻 생각하면 인심 좋고 협조도 잘 될 것 같지만 생활고로 탄광촌으로 이사 온 외부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가계회수율이 낮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으로(?) 설득을 해 보기로 했다.

아파트 조사구, 불응 첫 가구는 젊은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가계부 작성하기에는 누가보아도 적격인 가구였다. 현재 전자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불응 아닌 불응을 하는 가구였다. 이유인즉 담당자가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다. 원하는 자료를 제때 작성해 주지 못할 때도

화 한번 내지 않고 입력을 도와주니 부담스러워 차라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 이유였다.

조사원의 할 일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역설을 하여 겨우 설득 아닌 마지못한 응답을 뒤로 하고 다음 가구로 발길을 옮겼다.

다음 가구로 향 할때 담당자의 난처한 표정과 내키지 않는 모습을 살짝 보았다.

그 가구는 부부가 살지만 주부는 거의 본적이 없고 가구주에게 물어보면 운동 아니면 딸집에 갔다는 것이 대답의 전부란다. 부재 중이라 몇 차례 전화끝에 약속을 하고 복도에서 기다렸다. 한참 후 흰칠한 키에 멧있는 몸짱 아저씨가 조사관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났다. 마치 딸을 만난 듯 반가워 하였다.

‘저렇게 친절하면서 왜 가계부는 안 적어주지?’ 의아했다.

잠시 후 집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니 통계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가계부는 먼 나라 얘기처럼 취급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식사를 하면서 설득을 해 보기로 했다.

“선생님 점심식사 하러 같이 가실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방에 들어가서 외출복으로 멋지게 갈아입고 나섰다.

‘아하! 이 분은 플레이보이 기질이 다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한마디 했다 “선생님! 사모님이 마음 고생 좀 하셨겠어요”라고.

이 가구는 설득 중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통계보다는 예쁜 조사관에게 관심을 가지는 응답자. 자기가 점심을 사겠다고 태백에서도 유명한 한우식당으로 안내했다. 식사하는 내내 본인의 과거와 조사관이 딸하고 동갑이라 딸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담당자는 계속 불편함을 보였고 응답자는 서둘러 음식값까지 계산하

는 것이었다. 언어먹은 점심이 몹시 불편했다. 사무실로 오는 중에 조사관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만나면 반갑다고 어깨에 손을 얹기도 하는 등 불편한 행동을 한다고 했다.

여러번 식사 제의를 받았고 그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을 했다는 것이다. 조사관은 느끼한 눈길에 부담스럽고 차라리 불친절한 응답자가 더 좋라며 안 만나고 싶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다.

나는 “설득~ 중단 합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설득보다는 불응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근 들어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통계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들은 조사 현장에서 많은 일들과 부딪치고 있다.

때로는 지나친 의욕과 지침서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게 된다. ‘조사원이 너무 친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응답자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응답자, 때로는 통계조사보다는 조사원 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응답자까지.

하지만 우리 조사관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요한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무장하며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다. 통계조사는 물론 어린 아들 눈에 비친 ‘사무 및 짐나르기’도 하고 ‘벼베기’도 하고 ‘골뱅이 선별작업’도 하고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우리 조사원들이 하는 일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다. 힘들지만 성실하게 묵묵히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후배 조사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아침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김진선 | 동남지방통계청 거창사무소



아침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나름 열심히 생활했다고, 이번만은 나에게 칭찬을 하며 무척이나 바빴던 내 지나간 가을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가을을 준비하는 농부들의 풍요로운 마음을 몰라주지는 않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었다.

오늘은 논벼 예상량조사를 하기로 계획된 날이다.

팀장님과 선배언니, 그리고 나름 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

전날 저녁부터 몸과 마음이 바빴다. 조사를 하면서 이동시간에 간식으로 먹을 과일과 음료를 준비해야 하는 일부터 어떻게 오늘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다.

예상량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겼다. 물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물신, 조사표, 계산기, 깃발 등등 평소 출근시간보다 10분도 아닌 2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우리 팀은 출발을 했다.

사전교육을 받았지만 처음으로 도착한 조사구의 눈에 들어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일단 부딪쳐 보자라는 생각뿐이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는가?’ 하며 내 자신을 위로했다.

눈에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아니었다. 물신을 신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지만 뒤통거리는 내 모습에 씨익~ 웃음이 나왔다. 처음 신어보는 물신도 아닌데 말이다. 하지만 허리를 구부려 벼 포기와 이삭수를 세면서부터는 웃음이라는 것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의 실수로 재작업을 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지~’ 스스로 위로하며, 죄송한 마음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위로했다.

다음 조사구를 향하는 차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며 에너지를 보충하는 일에는 당연히 소홀함이 없어야 했다. 이동하는 차안의 휴식시간은 왜 그리도 짧은지... 계획된 시간대로 움직여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확하면서 빠른 손과 발이 필요했다.

논벼에 겨우 적응할 때 짬, 발벼를 심은 표본필지에 도착을 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발벼가 완전히 도복된 상태였다. 어려운 조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앞서,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니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줄자와 깃발을 들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포구선정 등 조사를 끝내니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 버렸다.

그랬다! 점심이 문제가 아니고, 한 필지 한 필지 조사를 끝내는 것이 먼저였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그때는 팀장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던 것 같다.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식당으로 들어 갈려는 찰나, 땀과 흙으로 엉망이 돼버린 나의 모습….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집에서 농사일을 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웃음이 나왔다. 몇 년전 같으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조금은 사라져 일이 우선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많으니 내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킨 시간이기도 했다.

아침부터 그렇게도 서둘러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해는 왜 그렇게 빨리 넘어가려 하는지…. 시간보다는 해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해는 산을 넘어가려 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조사구를 마치면 한 조사구가 남는다. 그것도 거창읍인데, 내일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늦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팀장님이 선배와 나의 의견을 물으셨다. 나는 눈에 불을 켜고 하더라도 오늘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솔직히 내일까지 이 일을 연장하기는 정말 싫었다.

그리하여 우리 팀의 차는 KTX와 견주어도 이길 수 있는 빛의 속력으로 마지막 남은 조사구의 논에 도착하였다.

아뽀사! 정말로 눈에 불을 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다.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직원 덕분에 선배와 나는 몸과 마음이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된 것 같았고, 조사도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따뜻한 정도 느낄 수가 있었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사무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한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팀이 조사하는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굳이 벼 예상량조사를 주제로 체험수기를 쓰게 된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통계조사 자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농부의 딸과 며느리로 40년을 살아오면서 벼농사를 통해 울고 웃었던 일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것 또한 나에게 감사할 일임은 분명한 것 같다.

내가 겪으면서 익히고 배운 통계조사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또 다른 시선으로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내년 9월 벼 예상량조사 시에도 참여할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낫설지 않고 덜 서툴고 좀더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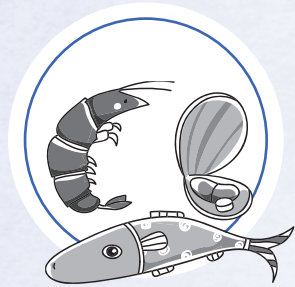
내일은 하루종일 벼 낱알을 세며 보내야겠지.

하나, 둘, 셋, 넷...



석모도 새우젓을 아시나요?

김형준 |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



석모도 어스름한 새벽하늘에는 별빛과 달빛만 고요하다.

새벽 3시에 배 엔진소리와 함께 어둠을 가르며 새우잡이 배가 출발한다.

김장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새우젓이다. 가을에 부지런히 새우를 잡아 한해 별이를 하는 이들에게는 지금이 금쪽같이 바쁜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중국선원들이 모두 그만두어 아주머니까지도 배를 타며 새우를 잡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급한 대로 베트남 초보들을 고용했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뱃일도 처음인 그들을 데리고 바닷일을 해야 한다니 선장 또한 많이 힘들어 할만도 했다.

내가 담당하는 조사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라는 섬인데 주어종이 새우와 반지(현지명칭: 뱀뎡이)라는 어종이다. 새우 잡는 계절이 되면 어가가 바쁘기 때문에 어가경제조사 및 비계통표본조사 등 조사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사일정에 맞게 재촉하기가 일수였다. 그러던 차에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바쁜지 또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어 한 어가 선장님에게 “선장님 저도 새우배 타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 일손도 모자란 시기에 잘 되었다 생각하신 것 같았다.

늘 수산 업무를 하면서도 새우를 잡을 때 어떤 그물을 사용하고 얼마나 생산하며 새우젓을 담그는 방법에서 판매까지의 일련을 과정을 알지 못해 늘 갑갑해 왔고 직원 간에도 조사내용에 대해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확실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았다.

2박3일을 기약하고 새벽 배 타기 전날 저녁에 섬에 도착하여 배에서 입을 작업복과 장화 등을 받아들고 숙소에서 일찍 잠을 청했다. 태어나서 처음 어선을 타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이윽고 맞추어 놓은 핸드폰 알람이 새벽 2시를 알리자 서둘러서 준비해 뱃터로 나갔는데 이미 선장님과 선원들은 배에 올라 있었다.

참 부지런도 하셔라.

어둠이 아직 걷히지도 않은 새벽바다 하얀 파도를 일으키며 캄캄한 바다로 향해 갔다. 배에는 선장님과 동네 친구이신 조 선생님, 베트남 30세 랑쉬라는 총각이 있었다. 서로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바로 어망을 투여하기에 이르렀다.

물때에 맞추어 저녁에 그물을 묶어놓은 것을 풀어 새우가 들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 군데 100m가 넘는 그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면서 작업을 하니 그때서야 새벽밥을 먹게 되었다.

난생처음 배에서 밥을 먹으니 김치찌개 한 가지로만으로도 정말 맛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바로 그물 손질작업을 해야 했고 그 일이 끝나 잠깐 쉬려는데 이젠 아침그물을 봐야한다고 하기에 새벽에 풀어놓은

그물들을 모두 걷어 올리며 정신없이 새우를 잡아 올렸다.

처음에는 잡는 일련의 과정을 사진도 찍고 하려했는데 그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엄청 바빴다. 기계 움직이는 데로 바로 바로 작업들을 해야 하며 그물작업은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새우를 상자(가고)에 담아 상태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해 배 뒤쪽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30kg나 되는 물먹은 상자가 엄청 무거웠다.

오전 그물에 새우 34상자 분량이 되었는데 여느 때보다는 못 잡았다고 한다.

신선한 상태에 도매상에게 넘기기 위해 부랴부랴 뱃머리를 선착장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기진맥진한 몸을 쉬기도 잠시, 뱃터에 도착하자마자 상자 하역작업을 하고 식당에 가서 비로소 아침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먹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배에 또 올랐다.

선장님이 놓은 그물자리는 모래뺨 이다보니 물살에 닿이 쓸려 이리저리 이동한다고 한다.

그래서 닿을 배에 올려 긴 그물들을 끌고 일렬로 맞추는 작업을 하고 나니 어느덧 꿀맛같이 주어진 30분의 휴식, 뱃멀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배고픔이 밀려왔다. 빵과 음료수를 정신없이 먹었다. 이로서 이분들이 하루에 밥을 5끼 먹는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오후 그물도 작업하여 오전만큼 잡은 새우를 싣고 선착장으로 향할 때는 이미 내 몸골은 말이 아니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바닷물에 탕 탕 부은 손은 쓰리고 무릎은 그물에 쓸려 쓰라려 아팠다.

가지고 온 새우를 내려놓고 저녁밥을 거의 2분 만에 먹고 새우젓 담그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였다. 그토록 새우젓 만드는 것이 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았다. 새우만 봐도 지겨울려고 했다. 일을 마

치고 숙소로 돌아와 씻기가 무섭게 쓰러져 잠들었다.

다음날 새벽 일어나니 온몸이 쭈시고 손도 쓰라려 손이 구부리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내색 없이 새벽 배를 타고 바다로 또 향했다. 오늘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어제보다는 내 일이 많아졌다. 선장님이 보시기에 눈썰미와 힘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이것저것 시키시기에 일이 많아져 정신없었다.

나보다 며칠 전에 배를 처음 탄 베트남 랑쉬는 일이 서투르고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 선장님에게 많이 혼났다. 베테랑 선장님과 손 빠르기가 틀린데도 늦는다고 욕을 하고 몇 번씩 주먹질 하려고 할 정도로 과격하게 혼을 내었다. 보다 못한 선장님 친구 분이 말리고 했지만 선장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다.

랑쉬는 울면서 지시에 따르는데 그래도 그물손질 작업이 잘 안되니 또 혼날까봐 겁먹고 울면서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불쌍했다. 나중에 물때가 바뀌는 시간이 조금 남아 쉬고 있을 때 선장님에게 조용히 물어봤더니 “그래야만 저놈이 안 다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선장님 손을 보았더니 양손에 손가락이 3개씩 밖에 없었다. 순간에 실수와 방심이 목숨까지도 잃는다는 말씀에 그래서 그토록 모질게 야단을 치셨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다.

참으로 힘든 바닷일이지만 잠시 짬을 내어 그물 길이, 새우종류, 기름 사용량, 작업시간, 새우젓 원재료 및 가공량 등 알아내어 직원들에게 알려줄 본연의 임무를 빼먹지 않고 충실히 확인하였고 그물작업을 직접 하면서 보니 이제야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과 책에서 본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저녁일까지 모두 끝나 선착장으로 오는 길에 선장님이 “통계청! 며칠 더 일 해주면 안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민폐만 끼치고 일도 잘 못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라고 하자 “잘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역시 내가 일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내 자신이 뿌듯했다.

새우젓 작업까지도 모두 끝내고 어판장에 내 짐을 찾으러 가니 동네에 벌써 소문이 짝 퍼졌다. 다른 어가에서 “창성호에서 뱃일 했다며?”, “힘 들었을 텐데 수고했어!”라고 말씀들을 해주셨다. 선장 아주머니는 고생했다며 다음에 꼭 신세 갚는다며 답례로 생새우를 많이 주셨다.

집에서는 김장할 때 생새우를 넣지 않지만 강화도 마니산 근처 농가경제조사구 할아버지네가 생각이나 감사하게 받은 생새우를 그 집에 건네주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초췌한 내 모습을 본 아내는 안쓰러웠는지 “왜 통계청 조사만하지 뱃일을 해서 사서 고생해?”라고 이야기 했지만 강화도 새우잡이의 방법을 알게 된 사실에 내 가슴은 뿌듯했다. 이렇게 힘들게 잡은 새우로 새우젓을 담그니 김치가 안 맛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2박3일 새우배를 타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 내가 경제팀에 있을 때 본인들이 맡은 제조업체 중 1년에 1개씩 정해 생산현장 체험(일명 삶의 체험현장)을 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우리 팀 농어업2팀에서는 시험 삼아 해보라고 팀장님이 적극 밀어주시어 하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좀 더 확산하여 팀원들 하고도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강화에는 새우잡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다.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잡는 배를 타려고 한다.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인천 수산통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희생하리라 감히 생각해본다.



아줌마도 올리는 그대는 '통계'

김우선 | 동북지방통계청 상주사무소



‘어머님, 안녕하세요. 국화꽃이 활짝 피었어요.’

초기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위해 좋아하시는 작은 백설기 떡을 하나 준비해 갑니다. 그럼 할머니는 환한 미소와 함께 고구마를 먹으라며 챙겨줍니다.

제가 방문하는 농가경제조사 지구에는 초기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베트남에서 시집온 처녀, 지체장애인 며느리 등 다양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을 접하면서 스스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음을 느낍니다.

2007년 1월 25일, 세 아이를 키우며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저는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통계 업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편하게’ 라는 제 안이한 생각은 출근 하루 만에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제가 하게 된 업무는 농업경영체조사로 농가를

방문하는 현장조사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하는 현장조사 업무를 계기로 장릉면허와 함께 온실의 화초 같던 제 마음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농사일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저였지만, 농민들의 마음만큼은 부모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였기에 몸은 고됐지만 일은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2008년 3월 통계청으로 오게 되면서 제 인생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농업경영체조사 업무만 담당하다 시범 실시하는 지역담당관제로 농업통계조사의 대부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3월부터 농가경제, 농축산물생산비, 산지쌀값,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작물재배면적, 가축동향조사 등 다양한 농업통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멀티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통계 일을 하면서부터 밤낮으로 오직 통계 업무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날까지 무언가에 이리도 열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흔적이 훈장처럼 들판에 가득한 이 계절에 지난 날을 뒤돌아봅니다. 제가 농업통계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뱀을 만났을 때입니다.

지난 9월 작물재배면적조사 기간, 그 날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많은 뱀들을 만났습니다.

작렬하는 태양아래 주위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뱀만이 나를 반겨주며 발밑을 지나가는 순간! 온 몸의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중턱에서 하루에 뱀 네 마리를 보던 날, 신기하게도 사랑하는 신랑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나처럼 어디선가 홀로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하고 있을 동료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

다.

얼어붙은 두 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로 뱀의 모양새를 들은 동료 직원이 살모사는 아니라는 말에 안심
이 되는 순간 어찌나 눈물이 하염없이 나던지 펑펑 울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9월, 작물재배면적조사는 지금 돌아봐도 정
말 힘들었습니다.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하는 여직원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은 포기해야합
니다.

아무리 철저히 가려도 뚫고 들어오는 피부 노화의 주범인 강한 자외선
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피부미인이라는데 뜨거운 목을 축이려고 마시는 물
은 곧 방광을 압박해오고... 왜 작물재배조사 조사구는 인가도 없는 허
허벌판이나 산 밑에 위치해 있는지...

남자들처럼 앞만 가리면 때와 장소가 필요 없는 신체구조라면 참으로
좋을 텐데 말입니다. 여자라서 지켜야하는 우아한 교양이 있기에, 급한
생리현상을 막아야 할 때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조사구 이동 중에 면소재지를 지나칠 때면 반드시 농협이나 우체국을
방문해서 볼일을 봐야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작물재배면적조
사가 여자로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생리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목이
마를 때도 가끔 참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작물재배면적조사를 하면서부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 못
하는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무척 반갑고 좋다는 것입
니다.

더위와 뱀, 나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고 농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
날 때면 그분들이 참 좋습니다. 말 벗 하나 없는 시골 할머니들이 사람

이 오는 것을 반기는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통계 조사를 하며 느낀 최고의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 다양한 동물을 접하다보니 이제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단, 발밑을 지나가는 뱀은 빼구요.

여름의 햇살이 뜨거울수록 가을의 벼이삭이 옹골차게 영글어 가듯 어느새 제 자신도 알차게 영글었나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고 누군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늘 웃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36개월...
1095일...

장은실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3년... 36개월... 1095일... 3년이란 숫자는 통계조사를 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숫자이다.

조사구 신 표본설계를 하고 조사가구와 나의 인연은 3년이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미운 정 고운 정이 들고 때론 아픈 추억거리도 만
들어 주지만 3년 동안의 추억을 가슴속에 남겨두고 아쉬운 이별과 함께
다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한다.

2011년 8월, 내게도 3년간의 시간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내가 이 조사구를 조사한 기간은 2년 정도뿐이지만 3년을 함께한 시간
만큼 오랫동안 친하게 보낸 정든 조사구였다.

제주시 인근에 위치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만 하는 조사구로 큰 부담
없이 매달 동네 삼촌댁을 방문하듯 그렇게 3년 동안 다녔던 가구와 아
쉬운 이별을 할 시간이 되었다.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의 시간. 막상 조사가구와의 이별을 하게
되니 좀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과 서운함 때문에 다시 한 번 나를 돌아

보는 기회와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내가 처음 조사구를 인계받고 혼자서 첫 조사를 시작하던 그때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난다.

조사기구 대부분이 고령층이었지만 그중 유난히 초라한 집이 있었다. 잘 열리지도 않는 낡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금방 머리와 닿을 듯한 낮은 천장과 찢어진 창호문과 쾌쾌하고 눅눅한 공기, 그 집의 모든 것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현관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작은 집안은 술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고, “계세요~”라는 나의 한마디에 안방에서 나온 가구주의 모습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거의 스님에 가까울 만큼 짧은 머리와 팔에 알록달록 그린 알 수 없는 그림(?)들은 나를 더 긴장하게 하였고, 몇마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는 한걸음씩 뒷걸음질쳐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 힘든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당장 통계청에 쳐들어와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는 분노의 한마디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았다.

대화를 계속 나눌 수도 그렇다고 출행량을 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맴 돌뿐이었다.

무려 1시간 동안 가구주의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집 대문을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 후 난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하였고, 또 다시 배우자로부터 힘든 가정사를 듣고 슬피하며 가슴아파하기 시작했다.

차상위계층 조사가구로 가구주는 피아노학원차량을 운전하며 50만원의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늑막염 진단을 받고 운전하는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만두고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치료비가 없어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었다.

배우자는 수놓음 자활복지센터 간병인으로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 간호를 하며 7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월급으로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배우자 또한 치아의 반 이상이 빠져 있었고 김치나 딱딱한 음식은 전혀 씹을 수 없는 상태로 매일 매일 힘겹게 간병 일을 하고 있었다.

첫 조사를 할 때 중학교 2학년이던 아들은 요즘 대세인 꽃미남보다 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초라한 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모 때문에 더 안타깝고 측은해 보였던 게 사실이다.

자녀 또한 어릴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음식물을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치아의 반 이상이 빠진 상태라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아 학교 친구들의 놀림과 치아가 너무 아파 학업에 열중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입학한 달 만에 자퇴를 하게 되었다.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해 가구를 방문할 때마다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을 나름 모색하던 중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해본 결과 차상위계층 이상의 지원은 없다며 냉랭하게 전화를 끊어 버렸다.

또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제주대학병원 사회복지팀장과 의논하여 치료비를 후원해줄 방법을 함께 찾게 되었고 웬지 모를 아줌마의 좋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치아 치료비가 1000만 원 정도의 고액

이라며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했으나 치료를 받고 완치할 수만 있다면 기다리겠다고 하여 몇 개월을 기다리다가다가 6월 17일 KBS방송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조사가구로 직접 방문하여 촬영하고 자녀와 직접 인터뷰를 했으며, 열악한 환경을 직접 본 제작팀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힘쓰겠다고 하였다.

정말 꿈만 같은 현실이 내 눈 앞에 일어난다는 게 믿기 어려웠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후원절차가 까다로워 치아 치료를 제대로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학업에 열중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할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매일 집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가구원 모두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모습 또한 너무 안타까웠다.

겨울엔 보일러 시설도 전혀 되지 않아 너무 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지붕에서 비가 새지만 이사갈 형편이 되지 않아 몇 년째 그냥 초라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겨울엔 너무 추워 주위분이 전기히터를 빌려줘 집안공기라도 훈훈하게 하려고 히터를 켜고 생활한 한 달 후 한국 전력에서 날아온 전기요금 명세서에는 납부액이 8만 원도 아닌 8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전기요금명세서를 들고 한전으로 한걸음에 달려간 배우자는 사정사정하여 3개월 분납하기로 하였다.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다.

우여곡절 끝에 깨끗하게 치아치료를 마치고 이제 정상인이 된 아들을 보면서 당신의 아픈 치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 모습이 우리 엄마의 모습이란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얼마 전 꽃미남 아들도 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2011년 8월에 종결된 가구이지만 검정고시에 합격해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또 새로운 만남을 위해 또 다시 한번 파이팅하고 외치면서 새로운 조사구로 let's go!!

+++

당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들을 구속하는 것이 바로 이 덧없는 두려움이다
위험에 부딪히기를 두려워 말고 용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로
찾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의 문을 닫지 말라
사랑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을 너무 짝 쥐고 놓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은 그 사랑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떠나가신 통계가족



김 목 식 | 충청지방통계청 충주시무소

아버씨! 하늘나라에서 잘 계신가요?

아버씨께서 이승을 떠나가시던 날 저는 서해 바다에서 신나게 놀다 돌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군요.

지금부터 10월 초 하늘나라로 가신 통계가족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농가경제조사 4년차 대상가구 두 어르신을 뵈올 때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출장을 가서 대문을 들어서면 “어서 와요 애기엄마”라는 정겨운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자리를 마주하고 나면

“점심은?”

어김없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점심은 먹고 왔어요.”

오후에 방문하는 가구라 거의 점심은 해결하고 방문하게 되거든요.

때때로 점심을 거르고 갈라치면 어떻게 아셨는지 “라면이라도 먹고 가” 하시며 냄비에 물부터 올리십니다.

제 얼굴에 ‘나 밥 못 먹었어요’ 라는 표시가 나나 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방문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나 봅니다.

농가경제조사 2년차 어느 날…,

그런 어르신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충격에 휩싸이시며 서울 병원을 오가며 병마와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힘든 수술도 잘 견뎌 내시고 항암치료까지 잘 받으시면서 완치되시는 듯해서 다행이라 여겨졌습니다.

표본대체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제발 편찮으셔도 좋으니 살아만 계셔주세요”하고 항상 빌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조사구를 맡게 되었을 때는 시험조사 끝나고 본조사가 조금 진행되던 시점에 조사 담당자도 교체되어 첫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꼬치꼬치 여쭙볼라치면

“왜 쥐새끼가 몇 마리인가는 안 물어봐?”, 또는 “남의 집 살림을 너무 자세히 물어 보는 거 아냐?”,

심지어 부채를 물어보면…

“왜 내 대신 빚 갚아 줄라고 그러?” 라고 하시며 핀잔을 주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어느덧 어르신들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여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농가경제조사 3년차 봄…

어르신의 병세는 안정을 되찾으시면서 농사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전처럼 많은 농사일은 못하실 것 같으며 임차지는 모두 반환하시고 자작지도 일부는 임대를 주셨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 상황에 전 좋아라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단순히 농가경제조사만 생각하면 돌려 봐야할 농지가 줄어들고 응답을 얻어내야 할 내용도 줄어들니 좋을 수밖에 없었지요.

처음 조사 시작할 때 논벼, 고추, 콩, 참깨 생산비 4개로 시작하여 참깨 생산비 제외 작물로 되면서 1개가 줄고 다시 병환으로 경지를 줄이면서 고추, 콩 생산비 작물 2개가 빠지면서 이젠 논벼 1개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두고 “다행히도 병은 치료가 되어가고 있고 농사는 줄어서 너무 좋아”라며 생산비 얼마 줄어들었다고 좋아했던 제가 참 한심스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해맑은 웃음과 함께 날 맞이해주고 뭐라도 있으면 챙겨 먹이려고 애쓰시던 어르신 이셨는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농가경제조사 4년차를 맞이하면서 어르신 상태가 폐가 아닌 머리로 암이 전이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립병원에 입원을 하셨다하기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늙고 병들면 힘이 없어진다고 오로지 자수성가로 집안을 일으키고 자식교육에 평생을 바치셨다는 어르신, 암세포가 시신경을 눌러 시력을 잃어가고 계셔서 제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시더군요.

“어르신 저예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귀를 기울여 제 목소리를 들어 보시더니

“아~~!!! 통계청이지, 애기엄마가 어떻게 왔어?” 하시기에 내미는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애기엄마 고마워, 통계청 애기엄마가 매주 들러서 궁금한 것도 잘 가르쳐 주고, 가끔 차도 태워 주고, 고장이 난 물건들도 고칠 수 있도록 여

기저기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힘이 드신지 한참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어 가십니다.

“내가 얼른 병원에서 나가야하는데 우리 애들이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아직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몸 상태가 어떤지를….

그저 눈물만이 핑 돕니다. 뭐라 드릴 말씀도 없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머님 말씀이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손에 돈을 쥐어 드리고 손을 꼭 잡아 드렸습니다.

제가 다녀간 후 어머니가 병실에 들렀더니 통계청 애기엄마가 다녀갔다고 얼마나 꼭 쥐고 계셨는지 땀에 젖은 돈을 내밀더라고 하시더군요.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시던 우리 어르신!

1과 2사무소 워크숍 참석 후 방문하였을 때…,

조용히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저 세상으로 가셨다는 어르신 소식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마주 앉아 울어버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와 팀장님께 농가 대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대체 농가 리스트를 들고 첫 번째 농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어쩐 일이여? 우리 집에 놀러 온 거?” 하신다.

웬만한 마을 분들은 겨울 내내 마을회관에서 얼굴을 매주 뵈었기 때문에 안면이 있었고 특히 이번 대체 농가는 시험조사 때도 흔쾌히 협조해주셨던 농가이기도 하거니와 먼저 농가와 사촌지간이기에 설득은 쉽사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연결된다면 농가 대체가 정말 쉬울 텐데….

그리고 이틀 후 다시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정말 죄송한 마음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대체농가도 설득을 마친 후 선정되어 있었기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난감했습니다.

먼저 가신 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실 어르신께 이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이제 오늘이 우리 집은 마지막 방문이지?”

“네 그렇긴 해도 지나면서 자주 들르도록 할게요.”

“우리 사촌 시동생 집이 다음 조사 농가로 선택되었다는 소식 들었어.”

휴 다행이다. 먼저 알고 계셔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잘 됐네, 잘 해 줄 거야.”

“네! 다행스럽게도 지난 시험 조사 때 응답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무슨 조사인지도 아시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안 형님이 하시던 조사라고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어머님은 마지막이라 서운한 마음에 점심을 먹고 가라 하시며 돌아가신 어르신처럼 냄비에 물을 올리시고 라면을 넣으십니다.

라면 냄비를 사이에 두고 어르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청 애기엄마를 딸 삼고 싶어 하셨다고….’

‘우리한테 잘 해주어서 고맙다고….’

불어가는 라면을 뒤로한 채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그렇해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별로 잘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조사를 해야 했기에 자주 찾아 뵈는 것 밖에는….

그동안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셨던 두 어르신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르신, 그리고 홀로 남아 농사일을 꾸려나가실 어머니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깡패여!!! 살림이나 잘하지?



장 순 희 | 충청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봄의 문턱에 접어든 3월 겨울의 끝자락인 바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낫설기에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표본 조사구는 ‘연기군 조치원 침산리’라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대전을 벗어나 금강다리를 건너니 세종시 건설로 인해 대형차들이 흙먼지를 날리며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 복잡한 도로가 나의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동네입구, 산길에 눈두렁 발두렁 길, 회색 스테이트 지붕을 얹은 시멘트집, 간간이 쌓여 있는 거름더미, 개똥에 닭똥, 흙집 사이사이 공터에 차를 세웠다.

어느 집부터 향해야 할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한 집씩 찾아뵙고 통계조사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계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밖으로 성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가~” 라는 말만 들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

다.

“사모님! 잠깐이면 되니까 문 좀 열어 주세요?”

앞집도 뒷집도 또 옆집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준비 작업을 할 땐 “시골지역이니 조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다.

표본지역은 세종시 건설을 하느냐 마느냐로 인한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민들이 정부에 대해 적잖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외지인들의 땅 투기로 인해 농촌주민들의 인심이 사납게 변해 있었으며,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에 대한 불신도 매우 컸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가구에서 쫓겨 나는데 뼈속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에 주책없이 흐르는 눈물, 홍보용 답례품을 들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랑스런 조사원증은 목에 걸고, 전단지에 조사표는 팔짱 안쪽에 끼고, 참으로 요놈의 처지가 야속하기만 하였습니다.

가계부는커녕 면접조차 할 수 없어 명부작성도 못하고 있으니,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공치는 줄 알면서도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려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무척 화창 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어주시겠지! 하는 바람을 가슴에 품고 조사구로 향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이웃집 어르신들이 나를 알아보곤 또 왔냐며 젊은 사람이 인사성도 밝다며 아는 척을 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가까워지기 위해 낮에 못 만나면 늦은 시간에도 방문면접을 시

도했으며, 주말에도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 허사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조사를 해야 할 분은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 집 앞에만 서면 가슴부터 두근거렸습니다.

속으로 핫~팅!! 을 외치며 오늘은 꼭 면접을 하고 말겠다는 신념으로 불응씨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통계청 장순희~!”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간 열린 문도 그렇지만 푸석하게 뭉쳐져 하늘로 치솟은 머리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흘러내릴 듯 걸친 몸빼 바지에 쾅한 얼굴 너무 놀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뭐데 우리 집에 자꾸만 오는 저! 당신이 깡패여! 깡패나 이런 행동 하지! 당신이 우리 집에만 오면 내가 혈압이 올라 그러니 빨리 나가! 난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심지어 남편과 자식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얼른 가라며 날 밀쳐내더니 현관 문을 탁 닫았습니다.

전 문밖에서 앵무새처럼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더니 다리에 힘이 쪽 빠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기에서 사무실까지 그 험하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어떻게 운전을 하고 왔는지, 신호는 지켰었는지, 혼이 쪽 빠져 나간 듯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난 며칠 뒤 조사구에서 그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집밖에 있는 응답자를 만난 것이 너무 반가워 큰소리로 “언니!” 하고 불렀습니다. 갑자기 그 분이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전 얼떨떨해 하면서 얼른 따라 들어갔습니다.

“뭘 협조해 달라는 거요?” 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조사목적과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초고속으로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비밀 보장여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일단 말문을 트기가 어렵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될 거란 예상이었습니다. 드디어, 가구명부를 작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임무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언니! 실은 한 가지 더 있는 데요 가계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어 버렸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로 화를 내며 “뭐? 가계부를 쓰라고? 당신이 뭘데 가계부를 써달라고 하는데, 내 개인적 사생활을 왜 써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활이 어려우면 당신이 돈을 보태 줄 거여? 아니면 다달이 생활비를 대 줄겨? 할 일 없으면 집안일이나 잘하고, 시댁어른 공양 잘 하고 시어머니 용돈이나 드리고 시댁어른들 모시고 효도나 할 것이지 줘는 것이 싸가지가 없어!” 하는 게 아닌 가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언니!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전혀 피해 입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 다니는 자녀 분들이나 저희 사무실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건 아니니까 협조 부탁드려요~!”

꿈무늬가 빠져라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덧 계절이 바뀌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날도 변함없이 조사구로 향하는 마음은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글 쓰는 것이 불편한 노인 가구는 대필을 해야 하기에 자주 방문 합니다. 한 노인 가구에서 대필하고 있는데 불응하던 그 언니가 방문하였습니다. 얼른 일어나 “언니! 안녕하세요!” 하자 가기 전에 자기 집에 들르라는 거였습니다.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했다.

대필을 마치는 대로 서둘러 그 집에 도착하니 불응언니가 말씀하시길 “그동안 내가 당신을 지켜봤는데, 동네사람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이 참 불임성 있게 잘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렸으니 가계부를 놓고 가보슈”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가계부 작성이 시작됐던 어느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도저히 가계부는 못 쓰겠더라. 가계부는 찢어서 불소시게로 했으니 다시는 오지 마”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떡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멧했습니다! 한 대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 이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걸까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할지? 뵈게 되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하는 건지, 일단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불응언니를 만나게 되면 가계부 얘기는 꺼내지 않고 나에 대한 얘기와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경제활동인구조사만 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진심이 전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로 했는데 의외로 그날이 빨리 찾아 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방문을 하기위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언니가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묻자 어제부터 머리가 무거웠는데 군청에서 일거리가 있다고 하여 나갔다가 너무 아파서 겨우 집에 왔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들어 두통이 자주 있다는 말을 듣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꼭 병원에 가시라고 당부한 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날 이후로 불응언니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불응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심으로 자기를 대해주고 인간 대접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침은 엉망이

지만 품목 누락 없는 가계부를 지금까지도 정성껏 작성하고 계신답니
다. 요즘은 뭐든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이젠 조사구 입구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 “어! 동상! 어서와”하고 문
을 열어놓고 기다리기까지 한답니다.

어느 날은 “동상 매일 왔으면 좋겠어!”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불신과 거부감, 불응으로 시작된 언니와
의 인연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분이 왜 그렇게 마음의 문은 꼭 닫고 살았는지 조금은 이해
가 되었습니다. 난청이 있어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을 쉽게 믿
고 의지 하다가 배신당한 마음에 상처도 크다 보니 피해의식과 자격지
심으로 누굴 만나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즘은 가끔 식탁에 앉아 차 한 잔 나누며 어린 시절 얘기로 이야기꽃
을 피운답니다.

삼고초려(三顧草廬)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여러 번 찾아가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 어려웠던 관계가 이제는 “언니!
동상!”하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그 언니의 “동상 언제와?”하는 목소
리가 정겹습니다.

위 응답자께서 4월 어느 날 통계청장님께 감사의 편지(붙임2)를 써주
셨습니다. 훌륭한 직원을 두셨다고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10여 년을
넘게 통계인으로 살았습니다. 연기군 34204720 표본은 장순희 인생 최
고의 조사구로 남기겠습니다.



저는 우도(牛島)면의 가교(架橋)입니다

김애정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오늘도 나는 전기밥솥을 킁킁거리며 차 트렁크에 실어 놓는다.
 얼마 전, 청취 농가에서 전기밥솥이 고장나서 새로 구입을 했다고 한다. 난, 혹시나 삼촌이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일단, 제주시내로 나가 수리를 맡겨 보겠다고 하고 받아 든다. 고마워하는 삼촌은 기간은 얼마 걸려도 상관 없으니 고쳐보라고 신신당부 하신다.

여든이 넘은 경영주와 여든을 바라보시는 배우자 두 분이 사는 농가이다.

“드르륵 드르륵~~” 핸드폰이 울린다.

“애정아 나 정훈인데 우도 언제 들어가냐? 아버지 약 받은거 갖다 드려야 할걸데, 연락주라.”

나는 답문을 한다.

“그래 월요일날 갈거니깐 청사 앞으로 9시까지 갖고 와라.”

출근을 하고 사무실 업무 처리하고 조사구인 우도로 차를 운전하고 달

린다.

시원한 동부산업도로를 바람을 맞고 달려 어느덧 성산포항, 도항선 선원들은 오늘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일주일에 두 번 업무용 가방을 메고 우도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 보험사원으로 보는 거 같기도 하니 물어온다.

“자주 보이십니다. 무슨 일로 오시는 겁니까?”

“예~~에, 저 서천진동 아무게 딸입니다. 통계조사 때문에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 합니다.”

“아~~아~ 그렇구나, 어쩐지... 수고 많이 해야겠네. 제주시에서 왔다 갈려면.”

우도 도착하자마자 나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영철아 잠깐 나와서 약 받고 가서 정훈이네 아버지 갖다 드리라.”

5분 내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와 약만 받고 휘...익 내 달린다.

“나~~ 간다. 수고!”

오늘도 민원 1건 처리.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도항선안, 아는 얼굴이 보인다.

기장을 다니면서 가끔 얼굴이 마주치면 눈인사를 건네는 동네 어른신이다.

“어디 가세요?”,

“으응 자네구면, 제주시 병원진료를 낼 예약하고 자식집에 가는 길이라네, 그런 자네는?”

“예에 저도 제주시 가는데, 제 차 타고 가세요, 같은 방향이니깐.”

뒷좌석에 앉은 어른신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삼춘 병원 자꾸 나오시면 제가 월, 금요일 날은 오거든요. 그때 맞춰

서 날짜를 잡으시면 태워다 드릴게요.”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고맙다고 하신다.

무거운 가방을 둘러메고 한손에 연필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리저리 두리번 거린다.

밭에 심어있는 작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5년간 농가경제 담당을 하다 보니 이젠 석공이 쌓은 듯한 현무암 담벼락 넘어 파릇하게 돌아나는 작물에 눈도장을 찍고, ‘이 조그만 경지에 작물을 많이 심어놨네, 이런 밭은 조사가 까다로운데. 저기 밭 한가운데 심어 있는 마늘은 면적이 얼마나 될까’ 어림으로 짐작을 해본다.

관광지로 지정된 우도면에 조사구가 있어서 그런지 왜그리 관광객은 많은지….

요즘은 제주도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올레길 1-1코스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올레꾼들 또한 많이 찾고 있다. 오늘도 자전거 여행객이 나를 불러 세운다.

“저기요!, 아줌마!, 선생님!, 실례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등 나를 불러세우는 호칭은 가지각색이다.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은 선생님 ㅋㅋ.

아줌마라고 불러세우는 손님한테 물어보는 길도 대충 답하고 싶지만, 내가 태어나 16년을 뛰어놀던 곳이라 엉뚱한 답도 나오지 않는다. 혹여나 안내를 해줘도 해매일 것 같으면 렌트카에 타고 아예 도착점까지 따라 나서기도 한다.

“에~~에 거기요, 이리로 가면 삼거리 나오는데 지나서 오른쪽으로 보면 ‘검물래’ 라는 표지판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회전해서 2분 정도 가면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보트를 꼭 타보세요. 설명해주는 분이 정말 재미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통계청 직원이 소개를 했다고 하면 식사도 잘해 드릴 거예요.”

다음날 전화가 온다. “애정아 고맙다!”

실은 보트 사장님이 동창생이라 이럴 때 가끔 도와주고 친구 또한 경지면적, 수확량, 가축동향 조사가 있을 때 경지위치나 소유주, 경영주를 물어보면 즉시 알아봐주는 통계 벗이다.

도서지역이라 사무실에서 일손돕기를 가고 싶어도 여비가 여의치 않아 몇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는 다행히 승낙을 받아 마늘 생산비 농가에 일손돕기를 하던 날, 내 전화기는 또 다시 울리기 시작한다.

“애정아, 아버지가 아침에 한국병원을 가셨는데 진료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 병원에 아는 분 있으면 부탁해서 시간을 당겨줬으면 한다. 요즘 농사철이라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병원 관계자를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나 하며 생각을 정리할 참에 팀장이 사무실 정훈 씨를 통하면 아마 연락이 될꺼란다.

이럴 때 하는 말, ‘제주도는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니 항상 말과 행동 조심…’.

다행이도 연락이 닿아 빨리 검사를 마치게 됐다고 고맙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도 내 핸드폰 문자함에는 친구의 부탁이 들어온다.

“애정아, 울 아들 반찬 좀 갖다 줘라. 돌도 소화시킬 나이에 외지에서 혼자 자취 하는 게 마음 아픈데 먹거리라도 잘 해줘야지. 부탁혀!!! 사랑한다~~~~.”

답문을 띄운다. “그러그러 니아들이 내아들이다. 낭중에 장가갈 때 애기 다해줘라.”

우도면에는 학원이 없다.

그래도 학구열이 높은 엄마들이 있는가보다. 매일 도항선을 이용해서 고성리까지 학원을 가는걸 보면….

나는 혹여나 동창생이나 지인의 자녀들이라도 될까봐 물어본다.

“니네 부모님 연세는 어떻게 되고 성함은 뭐니?”

묻는 질문에 예의 바르게 야무진 답을 하는 애들을 위해 뛰어가서 핫도그나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나눠주면서

“고생이 많구나!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니들은 매일 이렇게 들락날락해야 하니.”

애들은 이젠 도항선이 지들 놀이터인가보다. 이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뛰어 다닌다.

내가 어릴 때는 목선을 이용해서 물으로 나올려면 날씨가 궂은 날은 배 밑에 자리 잡은 방안에 들어가서 집채만한 파도에 이리로 저리로 나도 모르게 몸을 굴러다니면서 속을 다 뒤집어 놓곤 했었는데...

도서지역에 농·어가 경제조사와 비계통조사가 겹치게 되어 도항선을 이용해 하루에 적어도 6번 출항을 하게 되고 성수기 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조사하는데는 어려움이 그다지 없는 게 다행이다 싶다.

친구들은 알고 있을까? 내년이면 2008년부터 시작한 농·어가경제 조사가가 마지막이라는 걸...

미리 문자라도 넣어야 될까?

4년 동안 물에 사는 지인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동창생들이 몸담고 있는 농·수협을 통한 값싼 채소, 생선을 구매해서 부모님 장바구니 채워드리기를 연결해줬었는데, 혹여나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눈웃음



장선일 |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파란 들판을 지나고, 넘실대는 강을 지나, 나지막한 산허리를 돌아 의 좋은 형제마을이 있다.

이곳이 나의 농가경제조사구이다. 지난 6월 처음 인사를 드린 이곳은 ‘의좋은 형제마을’이라는 마을 이름만큼이나 포근한 곳이다.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예당저수지 옆에 있고, ‘산 너머 남촌에는’의 촬영지로 보건소와 면사무소, 초등학교가 있다.

용봉산자연휴양림 입구에 위치한 이 마을은 여러 가지 타이틀에 비해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가구가 많다. 하지만 웬일이지 마을 정비는 가장 잘 되어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6개 가량 있는데 화강암으로 신축해 놓았으니 언뜻 보기엔 꽤 부유한 시골 같아 보인다.

이곳에 5개 가구를 방문하여 농가경제조사를 한다. 조사구 담당자가 벌써 7번째 바뀌었다.

가구마다 이구동성 하는 말씀이 “둘이 같이 오니 바뀔 줄 알았어”였

다. 농가업무를 처음 하는 나로서는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갔다. 하나에서 열까지 어떻게 배워나가야 하나, 길도 없는 들판에 길을 직접 만들어 걸어가야 하는 심정이다.

파랑던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갈 때 쯤 가구와 나의 관계도 그렇게 익어갔다. 이 동네에서 가장 깊숙이 산언저리에 4호 농가가 있다.

이곳엔 깡마른 체구에 쏙 들어간 눈, 하지만 하회탈 같은 눈을 가진 어머니와 역시나 마른체구의 머리가 승승 벗겨지기 시작한 얼굴이 까만 아버님 두 분이 사신다.

어머니의 말투는 항상 장난기가 가득하다. 처음엔 그 속내를 모르고 살짝 긴장했지만 어느 새 녀석 좋게 맞장구치는 사이가 된 것이다. 어머니는 벌써 췌장암으로 수술을 3번이나 받은 후였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어머니 집을 3번째 방문한 날 장맛비가 내려 무척 추웠다.

어머니는 간밤에 한숨도 못 잤는지 쾅한 눈으로 아랫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계셨다. 모레면 천안에 큰 병원에 간다고 그제 시간이 가길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답답했다.

동네에 보건소가 있지만 어머니네 집은 너무 멀어 몸이 아프면 보건소가실 생각도 못하는 것이다. 어머니를 설득해 보건소에 가자하시니 ‘올 때는 어떡해?’ 하며 걱정을 하신다.

그땐 몰랐는데 어머니의 성격은 주고받고 계산이 확실한 분이였다.

보건소에 가서 접수를 하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누구냐며 나를 쳐다본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내 딸이야” 하였고, “네, 맞아요!”라며 흔쾌히 맞장구를 치니 주위에서 이구동성 “눈매가 닮았네” 하신다.

이렇게 딸만 다섯인 어머니는 딸을 하나 더 얻었고, 나는 선한 눈매의

어머니를 한 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일까? 이 날 이후 우린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어머니는 췌장암 수술 이후 갈비뼈 부분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여 담즙을 배출해야 하므로 봉지를 달고 생활해야 했다.

결핍하면 연결된 부위의 호수가 빠져 담즙이 퍼지고 그걸 다시 고정하려 병원과 보건소를 다니셔야만 했다. 일주일에 한번 보건소 간호사가 집에 회진 나와 상처부위 소독을 하시고 거즈를 새로 갈아드렸는데, 간호사는 그것이 귀찮은지 관절염 때문인지 앞으로 방문이 어렵겠다고 한다.

어머니를 집에 내려드리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또 빠지면 어떻게 하나. 누가 병원에 데려다줄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걱정을 뒤로 하고 돌아 나왔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화요일에 방문하지 않으면 전화가 왔고, 혹여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전화를 해서 집에 없다며 다음에 오라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린 채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어디 가시면 연락하셨을 텐데. 이상하다?’ 하는 생각에 밭에 가보았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집에 메모를 적어놓고 2호 농가에 갔다. 2호 농가 아저씨는 4호 집과 친인척관계였는데 어머니가 또 입원했다고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며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반복하면서 큰 병원에 또다시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조사구 방문하는 날인 화요일이면 어머니는 보건소에 함께 가자고 나를 기다리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그 아주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며 말을 흐렸고, 어머니의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질 무렵 난 큰 고민이 생겼다.

사무실 동료가 단독 농가를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

시면 농가 대체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내 모습에 실소가 났다.

때마침 가구방문일인 화요일 사무실 행사가 있어 출장을 못 가게 되었다.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나를 기다려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핸드폰을 받지 않으신다. 집으로 전화를 했다. 집전화도 받지 않으셨다.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나?’ 하는 생각에 2호 농가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다. 아저씨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다음날이 연휴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농가를 방문할 수 있었다. 어머니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는데 라디오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 옆구리에 혹처럼 달려있던 봉지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느 때 처럼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다.

“응 이제 때버렸어. 이제 없어도 되는데. 편해” 하시는데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게 병을 이겨내고 있는데 난 고작 그런 고민이나 하고 있었다니. 정말 죄송스러웠다. 입맛이 없으시다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모시고 “아플 때는 집에서 해 먹는 음식보다 사 먹는 것이 더 좋아요” 하며 어머니가 유독 좋아하는 어죽 집으로 향했다.

농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작게 느껴지는 두 분의 체구를 보니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요즘 광고에서 말 하듯 조사구에서 하는 것 집에서 반에 반만 하면 효녀, 효부소리 듣는다고.

어머니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행복을 보여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큰 사위도 먼저 떠나보내고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뒤로한 채 오늘도 어머니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

하회탈 같이 생글생글한 눈웃음도 여전하시다. 난 그 눈매가 참 좋다.

주는 것도 없는 나에게 “고마워”를 연발하시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이진 진심이에요. ^^

이제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는지 생강, 대추, 도라지 등을 다듬어 판
매하신다. 난 어머니네 농산물을 받아 소비하는 소비자도 되고, 가끔 판
매대행도 해주며 매주 농가경제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 어머니를 찾는
다.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 나를 맞이할 것이다. 물론
내년이면 끝나겠지만, 인연이 이어지는 그 때까지 진심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표본개편으로 이별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되겠지만,
웃으면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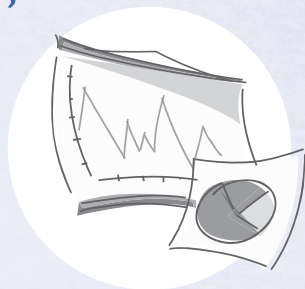
+++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진말라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감정은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고맙다고 느끼는 것이다
시간이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둘 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그 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는 여행이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present)를 선물(present)이라고 말한다



생명기반 농촌지킴이, 농업통계팀 지화자!

지연숙 | 경인지방통계청 화성사무소



인총이면 인총(인구주택총조사), 경총이면 경총(경제총조사), ‘안산시 통계’에 있어 ‘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자부심이 강했던 나. 많고 많은 경험에 통계조사에 있어서 만큼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안산시청의 추천을 받아 통계청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대기 중, 상냥하게 커피 한 잔 건네는 여직원이 ‘농업1팀’ 이라네요. 면접 중 희망하는 업무가 있느냐는 질문에, 옳다구나 ‘농업1팀이요~’ 했습니다.

‘짜과과광~~~’ 우리 팀장님 얼굴엔 화색이 돋고, 그때까지 전 고행을 자처한 줄 몰랐습니다.

밭품 팔고, 땀범벅에 흠뻑 젖어쓰는, 알고 보니 기피 업무더라고요. 용어에서부터 구수한 소동 냄새 풍기는 축산물생산비조사, 산지쌀 값조사, 작물재배면적조사, 가축동향조사, 농산물생산량조사 등. 조금은 생소하였지만 시골 출신의 농촌의 딸인지라 뭐 어렵겠냐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저주’

실 한 개 단위구를 인수 받습니다. 전임자가 단위구를 표시한, 대문짝만한 전도를 하나 건네주네요. 화성시 남양면과, 매송면, 비봉면 골짜기 골짜기입니다. 주행거리 하루 150km 이상, 인수 받는데 만도 며칠이 걸립니다. 팀장님과 계장님들은 걸음도 빨라 아줌마 관절이 축이 납니다.

내이게이션에 지면을 찍고 출발합니다. 도착했다는데 낭떠러지입니다, 도착했다는데 첩첩산중입니다. 분명히 목적지 부근이러는데 팀장님과 함께 왔던 곳이 아니네요. 길눈이 아주 어두운 편은 아닌데도, 단위구 찾는 것에서부터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길눈 밝으신 분~ 농업1팀 차출 0순위입니다.

“너 이름이 뭐니?”

5월 작물재배면적조사. 들판에 나가 뭐를 심었는지 조사합니다. 시골 우리네 할머니들은 참 부지런하십니다. 손바닥 만한 텃밭에 파, 부추, 열무, 오이, 가지, 토마토..., 작물이 열 개도 넘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푸근한데, 짹짹 새소리도 정겹고, 구수한 시골 냄새 나고, 파릇파릇 봄풀이 대견해 미소가 지어집니다.

“거 누구요?”

감상을 깨고 칼 같이 날아든 외침과 동시에, ‘왕왕왕왕~~~~’ 호랑이만한 검둥이가 돌진해 옵니다.

엉덩방아 찧고 주저앉았는데, 할아버지 왈, ‘통계는 무슨 통계? 이까짓 게 무슨 통계가 되냐’고, ‘쓸데없는 짓 한다’며 핀잔을 줍니다.

요새는 촌에도 불신이 많다며, 농작물 절도범 얘기도 하시고, ‘여자 혼자 벌판에 조심히 댕겨라’ 며 당부도 하시고, 이내 검둥이와 가십니다.

개나 닭은 예삽니다. 화성시 남양면엔 골짜기도 많아서 무심코 지나가는 트럭도, 아저씨도, 할아버지도(40대 중반 똥똥한 아줌마를 누가 어찌 할까 만은), 섬뜩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하고 작물조사에 매진하려는데, “너 이름이 뭐니?” 새싹만 보고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조사표에는 상추, 열무만 한 가득입니다. 제대로 맞게 조사하고 있는 건지 사진을 찍고, 한 뿌리 뽑아 오고, 어느 밭에서 뽑은 건지도 관건입니다. 첫 번째 작물조사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었습니다.

‘이름은 들어 봤나, 간척지!’

간척지로 작물재배면적조사를 나간 답니다.

말통으로 얼음물을 채깁니다. 간식으로 옥수수며 감자도 삶아 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품새가 간척지란 놈, 보도 듣도 못한 녀석이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화옹지구와 시화지구엔 1만 ha가 넘는 땅이 간척되었고, 700ha가 넘는 땅이 불법 경작되고 있습니다. 합법이나 불법이나를 떠나 우리의 소임은 작물이 식재된 사실 면적을 조사해야 하므로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임합니다.

덜컹 덜컹 덜컹덜, 봉고차 천장에 머리가 닿도록 덜컹덜. 한참을 달려 차에서 내린 곳은, 허거걱~ 지평선이 보이는, 지평선까지 지형지물이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개막은 땅’입니다.

그 한가운데 불에 타 뼈대만 남은 깎로퍼 한 대가 있습니다. 눈물이 납

니다. 이런 곳에 혼자 떨어지면... 남편 생각도 나고, 두 아들 생각도 나고.

감상에 젖을 틈도 없이 2인 1조로 걷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며 작물이 심어진 칸 수를 셉니다. 논 한 곳이 2만 m²가 넘습니다. 가늠이 안 되시죠? 웬만한 아파트 1개 단지 규모입니다. 그런 논이 첩첩이.

아직 염분이 있는 땅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심었어도 까맣게 타 죽은 논도 있고, 두렁은 질퍽질퍽하여 새 운동화가 다 젖습니다. 길이 끊겨 코앞도 빙 둘러가기 일쑤고, 가장 큰 애로점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커녕 비스무리 한 것도 없는 터라 목이 타도 쉬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땀별 더위에 그렇게 간척지를 헤집으며, 올해 하계휴가는 이열치열 하였네요.

‘황금 들녘이 넘실대는’

7월 작물을 지나 9월 작물을 조사하며 맘이 흐뭇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아니지만 누렇게 익어가는 것이 대견합니다. 이제는 갑자기 텃비는 개에게도 의연해 지고, ‘또 왔느냐’는 어르신께 물 한 잔 얻어 마시며 너스레도 떨니다.

9월 초엔 논벼 생산량조사를 위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로 경작자를 수소문하였습니다. ‘어떻게 찾아? 말도 안 돼’ 했는데. 마을회관을 들렀다 근처 인가에 들러 여쭙보니 희한하게도, ‘아, 거기 두 번째 전봇대 밑에 논?’ 하시며 다들 아시더라고요.

경작자를 찾아 조사 당위를 설명드리고 어렵게 협조를 얻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자식 같은 1년 농사를 남이 들어가 헤집는다는데 기꺼워할 일은 아니지요.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없습니다. 중국엔

허락하시고 열이면 열 벼 베는 날짜를 통보하여 주십니다.

예상량 조사 때는 곱게 화장을 하고, 칠부 소매 티를 입고 우아하게 납시었습니다. 흐르는 땀을 스윽 훔쳐 화장이 번지고, 진흙이 묻고, 팔뚝은 벼에 긁혀 쓰라리고, 단단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본격 수확량 조사에 임할 때는 노란 장화와 팔 토시는 물론 완전무장을 하고, 뒷주머니엔 끝점을 표시할 나무젓가락을 꽂고, 낫도 챙기고.

영락없는 베테랑의 포스로, 팀원들에게 ‘체질’이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먹는 점심 밥맛은 어찌나 꿀맛이던지 두 그릇 푹딱. 힘은 들어도 팀워크 덕에 재밌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벼를 베다는 급전을 받고, 아침 일찍 부랴부랴 현장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9월은 논벼 생산량조사에, 작물재배면적조사에, 가축동향조사에 정말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내 생애 이렇게 바쁜 날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10월 말인 요즈음은 벼를 말리고, 탈곡하고, 도정하고, 무계를 측량하였습니다. 그야말로 1년 농사를 마무리 하였지요.

팀장님과 계장님들 말씀이 작년보다 소출이 못하다네요. 농업인으로서 맘이 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TV에서 쌀 예상량 관련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깨가 들썩하고 누구라도 잡고 ‘내가 조사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배추 사세요~’

오늘은 김장채소 생산량조사에 앞서 경작자를 파악하고 왔습니다. 작년엔 비해 풍작인데 농민들 근심이 한 가득입니다. 풍년이면 풍년인 대

로 제값 받지 못하고 처분할 생각에 한숨이 깊습니다.

“배추 사세요~”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업통계는 농촌을 지키는 기반 통계입니다.
나는 농업통계인입니다. 농업 지킴이로서 당부 드릴게요.

올해는 배추 많이 사시어 김장 넉넉히들 담가 주세요. 그래야 농촌이
살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더욱 간절하네요.

농업팀 기피 마세요~ 인정 넘치는 농업팀으로 오세요~~~

+++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아함을 깨트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경망스러움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없이 깨끗하게 사는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가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연주 | 충청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2011년 4월! 꽃핀다는 춘 4월이라지만 봄 꽃은커녕 아직도 간혹 눈발이 날리고 쌀쌀한 날씨에 가구명부를 든 손은 시려 곱을 정도로 찬 기운이 만연한 흑석리~

산으로 둘러싸여 호남선 기차가 같이 달리는 행정구역은 대전이지만 전혀 대전권 같지 않은 눈, 발이 많은 시골이다.

간혹 여름에 피서하러 다녔던 눈에 익은 동네. 경제활동인구조사구역이라 심적 부담이 덜 한 시골 동네.

흑석리는 시골이다 보니 주로 60대 이상 노인 분들이 많았다.

80세 넘어서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며 다음에 또 찾아온다고 하니 좋아라 하시는 어머님, 이혼한 아들 자식들 키우시며 내 청춘 다 바치고 나니 80이 넘어 지금은 할 일도 없고 나이만 먹어 속상하다며 너무 아쉬워 하시는 어머님.

통계청은 뭐 하러 이런 조사를 하고 다니냐며 다음엔 오지 말라고 문도 안 열어 줄 거라며 경찰 20가구 중 유독 난리를 피시던 어머님이...

“다음 달에 또 뵈게요”하는 말에

“전화하고 와~ 없으면 어찌??”

뒤돌아서면서 내내 흐뭇한 마음으로 “바로 이게 시골의 모습이야”라며 혼자 좋아라 했었다.

이렇게 경제활동연동조사구 내 한 가구, 한 가구 찾아다니며 기초명부 작성을 하던 차에 행복도 잠시라고 했던가? 공무원 퇴직을 하신 60대 어르신을 만나 뵈었다.

깔끔하게 쓸어 올린 머리에 정갈하게 차려 입으신 모습만 봐도 요직에 계셨다는 것을 어림짐작 할 수 있었다.

통계청이 어떤 일을 하며 이 조사는 왜 하는지 또 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꼬치꼬치 캐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알 만한 것은 다 압니다. 지금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집에서 쉬는 정도니 굳이 날 조사하지 않아도 통계치는 나오니까 우리 집은 빼고 해도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아버님은 480가구를 대표하는 가구라서 응답을 안 하시면 480가구의 수치가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하는 큰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조사해서 어디다 써?”

“매달 발표되는 고용통계, 혹시 CMB나 TJB방송국에서 이달 실업률이 올랐다, 취업자가 늘었다는 방송 본 적 있으시죠? 그런 통계자료를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네. 그래도 나는 일하지도 않는데 빼고 해.”

물을 건 다 물어보고 왜 빼달라고 하는지 따질 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했다.

공무원은 무조건 통계조사에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것도 요직에 계셨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서운하였다.

더군다나 아주 예전에는 시·군·구에 통계하는 공무원들이 내려왔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더라는 말씀까지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너스레를 떠시기까지 하신다. 속이 부글부글~~화를 낼 수도 없는 처지.

그래도 나는 통계전문조사관이라고 다짐을 하고 다시 한 번 많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온 통계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많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님! 통계조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속상해요”하며 아주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다.

그 웃음이 아버님 눈에 들었나?

무작정 안 해!! 한길만 고집하시던 분이 낮은 어조로

“아니, 무슨 양반이 하지 말라고 하구 성질내는데 웃음이 나오나?”

속으로는 아버님이 내 속을 떠 보느라고 하신 말씀이신가? 목소리가 아까와는 틀리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제서야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요즘 통계조사하는 사람들은 참 속도 좋아, 성질내도 한 번도 티도 안 내구 더 잘 할라구 노력하는데 내가 졌다.”

‘와우!! 설득에 성공한 것이 맞지? 조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지?’

혼자 맘속으로 티 나지 않게 쾌재를 부르며 기초명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부터 아버님의 전직까지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다. 역시 웃는 얼굴에 침을 어찌 뱉으랴 하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몇 달을 이번 달에는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꼭 방문해서 여쭙고 경찰 입력을 마감했다.

때마침 연동표본가구 응답자 간담회가 있다고 하여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 이번에 저희가 응답자 간담회를 하는데 오실 수 있나요?”

못 오신다고 할까봐 조금만 선물도 드린다고 하였더니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뭐 갈 데가 있나? 구경이나 가볼까?”

오셔서 우리 청에서 하는 일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시고 시간도 보내실 겸 오시라고 했더니 흔쾌히 오신다고 하셨다.

날짜에 맞춰서 아침에 모시러 간다고 하였더니 더 좋아 하셨다.

며칠 후 간담회 시작.

연동표본 조사구에서 수 십명의 응답자 분들이 모였다.

팀장님이 경찰, 가계조사의 설명을 아주 찬찬히 해 주는데 우리 아버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 끄덕 하신다. 정말 조사를 하는 곳이 맞는지 조사해서 어디다 쓰는지 등등 그 동안의 의심이 다 풀리는 모양새다.

“응답자는 480가구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선생님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아버님은 팀장님의 말에 대뜸 “나! 이런 사람이야. 통계청 응답대표야!”

순간 간담회장은 웃음으로 가득찼다.

처음 뵈는 때 까다롭게 나는 하는 일이 없다면서 우리 집은 빼 달라고 하시던 분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외치시니까 나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또 사업체 견학을 가는 버스 안에서도 간간히 나 이런 사람이야를 외쳐 대시는 아버님이 아이처럼 귀여워 보이시기도 하였다.

버스 안에서 조사구의 아버님은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발 벗고 나서서 통계조사에 응답해 줄 것이고 안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고 점심 때 오면 어머님께 밥을 해 주라고 얘기하겠다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을 해 주셨다.

나는 그 말씀에 처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비협조적인 가구에서 완전 협조가구로 바뀔 경우가 조사현장에서의 묘미라고나 할까, 이보다 더한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간담회의 하이라이트는 우렁찬 목소리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외치시는 우리 조사구 아버님이셨다.

지금도 아버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듯 하다.

“나, 이런 사람이야!”



뜨거운 대지의 햇살 아래

김 소 은 | 충청지방통계청 옥천사무소



“인생은 B와 D사이의 C다”

문학소녀시절 한번쯤은 읽어봤을 샤르트르의 명언이다. 태어남(Birth)과 죽음(Death) 사이의 선택(Choice).

늘상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며, 내가 선택한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또 다른 세계를 조우해 보는 기대를 가져보게 된다.

지방청에서 가구대상 조사업무만 15여 년 정도 담당하다 올해 초 사무소로 전보 발령되어 업무 선택의 기로에 선 나로서는 언젠가는 한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던 농가경제업무를 자청했다.

고향이 멀리 제주도지만 도시에서 자란 나로서는 할 수 있다는 배짱만 있으면 농사의 농자를 모르더라도 나름 부딪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어줍잖은 객기가 있었다.

늘 ‘첫’이라는 수식어는 항상 새롭고 설레는 느낌으로 먼저 다가선다.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첫 조사’ 만큼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처음 가구면접을 맡았던 제주도 서귀포 어촌마을의 그물주낙작업을 하시던

아주머니의 강한 첫 인상은 아직도 내 기억의 한편에 자리 잡아 잊혀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내 기억의 또 다른 첫 경험으로 자리 잡을, 내가 맡은 농가경제 조사구는 포도로 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충북 영동의 마을이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는 농한기여서 농가를 방문할 때마다 주는 풍족한 인심과 훈훈한 담소를 나누다보면 잠시 일을 떠나 시골집에 다녀간 듯한 느낌이 새로웠다. 또한 가구의 간혀진 공간에서 늘상 익숙해져 있다가 탁트인 자연과의 접촉은 어쩌면 출장가는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곤 했다.

출장길에 오며 가며 나부껴대는 바람도 좋았고 바람결에 스며드는 시골내음, 들풀의 하늘거림 또한 좋았다.

밭의 작물조사를 가보면 우리가 늘상 식탁에 올리는 상추나 부추 등은 바로 알 수 있지만 땅속 깊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감자, 고구마, 아직 자라지 않은 가지, 복숭아 나무 등의 몰랐던 내용들을 하나씩 알게 될 때 마다 나름 초등학교 체험학습처럼 재미있었다.

하얗게 내려앉은 감자꽃을 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보기에는 이쁘지만 이 꽃이 피면 덩이줄기인 감자로 가는 영양소를 빼앗긴다 하여 보이는 대로 잘리게 된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왠지 축 처져 아스라하게 있는 모습이 감자꽃 이름처럼 슬프구나 생각했다.

그렇지만 늘 낭만적이고 감상적으로 다가섰던 자연의 모습이 언제부터인지 밭에 심어져 있는 작물이 하나 둘씩 바뀔 때마다 또 늘어날 때마다 허덕거리기 바빴다. 콩도 여러 종류이고, 들깨, 참깨도 햇갈리기 시작했다.

자취도 없다가 어느 날 보면 무언가가 심어져 있었고 모든 게 작물도 감만으로는 따라가기 턱없이 부족했고 공부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게 많

아졌다.

조사를 하며 끊임없이 실망스럽고 점점 없어지는 자신감도 때론 있었지만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다독거리보기도 하며, 성급히 몇 달만에 배울 수 있다는 논리로 덤벼던 나는 자연의 섭리처럼 차근 차근 넘어가야 할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도 얻었다.

봄별이 다글다글 내리쬐는 밭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시는 농가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뜨거운 햇살에 빨갱게 달아 올라 벗겨진 내 콧등 살갓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목이 타 잠시 갈증을 해소시키고 싶었던 바람은 더더욱 예의가 아니었다.

3~4년생, 10년생 서로 나이가 다른 포도나무들이 자기 몸무게의 몇 배가 되는 몇 십 개의 포도들을 짊어지고 버티는 모습을 보며 최소한 1년은 농가경제 업무를 경험해봐야 말할 수 있다는 선배들의 경험담처럼 아직 8개월의 경험이지만 늘 사계절 정직하고 겸허한 자연의 모습과 내가 배워야 할 과제를 떠올려 본다.

빗방울이 떨어진다.

경기가 좋아질거라는 신문지상의 칼럼이 무색하리만큼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경기가 어려워 이전소득마저 현저히 줄어들어, 부모가 따로 사는 자식에게도 도움을 줬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자신의 생활마저도 버거운 실정이 많아 살아가는 풍속도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이 느껴진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포도 사드리기 등 직거래를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조금이나마 나눠드리고자 하지만 사회적으로 농가 일손 부족,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고달픈 현실은 여전하다.

하지만 농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것이 비록 귀를 열어 들어주는 일에 한정되어 있지만 나는 결코 통계조사를 통해서만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분을 통해 그들과 접하고 있음을 기쁘게 여긴다.

때론 즐거운 일로, 때론 힘들고 아픈 이야기로...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적인 대면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더없이 소중한 여겨진다.

내가 매일 펜 끝으로 적어야 하는 숫자들은 통계만을 위한 단순한 숫자들이 아니라 삶의 여러 형태들이 숫자라는 이름으로 조합되어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향내가 묻어나는 의미 있는 숫자들인 것이다.

가계부에 적어 놓은 그 숫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보고 느끼며 통계를 배우고 동시에 삶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내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기도 하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지만 오늘도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힘껏 노력하고자 한다.

비온 뒤의 햇살이 유난히 따가운 오후이다.



“나의 좌충우돌 통계조사기”

신 정 선 | 경인지방통계청 이천사무소



그때도 이맘 때였다. 담쟁이 넝쿨이 붉게 타오르며 나무 등치를 휘감아 오르고 땅속의 무가 토실토실 살이 찌가고 있었다. 통계청으로 향하는 나의 첫 발걸음은 눈부신 가을 하늘만큼 가볍고 상쾌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잠깐, 통계청에 발령을 받고 처음 맡게 된 업무는 가축동향조사와 농작물재배면적조사였다.

목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나 TV에 나오는 동물을 본 것이 전부였던 나에게는 가축동향조사라는 말은 생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나이 불혹을 훌쩍 넘긴 대한민국 아줌마이고 의욕만은 충천한 신입이었다.

먼저 조사에 임하기 전 가축동향조사 지침서를 나름대로 꼼꼼히 읽어보고 선배 조사관님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 아래 생소한 가축용어를 익히기 시작하였다. 젃소, 육우, 한우 등의 총 마리 수 외에 구간별 마리 수를 알기 위해서는 착유우, 건유우 등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용어도 이해해야했다.

또한 나의 가축업무량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합쳐서 80가구 이상 농가를 넘나들어야 했고 농작물 재배면적조사 또한 12개 단위구였다. 이것은 꽤나 방대한 양이었고 나로서는 다소 벅찬 감이 있었다.

가축표본조사는 일단 조사구에 들어서서 시작가구를 기점으로 요도와 표본조사가구를 이리저리 맞춰보다 보니 요도를 보는 요령도 생기고 조사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조사에 응해주시는 소박한 인심은 자긍심마저 들게 했다.

문제는 가축전수조사와 농작물 재배면적조사였다. 일단 가지고 있는 조사표를 가지고 방대하게 분포되어 있는 목장들과 단위구를 찾아 다녔다.

어느 덧 2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다.

좁고 고르지 못한 시골길, 막다른 농로 길에 이르러 차를 돌리지도 못해서 애를 먹었던 일, 차바퀴가 빠져서 한나절을 오도 가도 못했던 일, 평소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햇빛이 조사시점에서는 왜 그리도 따갑고 힘들게만 느껴졌던지.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 맘이라더니 처한 환경에 따라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가 싶어 나 자신에게 놀라기도 했다. 그 뿐인가. 농작물 재배면적조사는 또 왜 이리 어려운지.

나름 작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하였는데 단위 구를 다녀보니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작물이 수도룩했다.

주택가에 위치한 단위구들은 수없이 많은 필지들과 수십 가지의 작물은 절로 한숨을 짓게 했다. 밭고랑과 둔덕 사이에는 웬 곡식들을 그리도 많이 심었는지 새삼 부지런한 농부들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

작물들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물어본 것, 주택가에 위치한 필지의 정확한 면적을 알기위해 조사표와 요도를 놓고 고민

했던 일, 인터넷의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를 열어놓고 비교하여 보고 하나 하나 알아갔던 시간들이 새삼 그리워지곤 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여주군 강천면에 위치한 목장을 방문하려다 낮은 눈 사이로 높이 나있는 농로에서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다 차 한쪽 바퀴가 도로 아래로 툭 떨어짐을 느꼈다.

차 아래로는 얼핏 3m 이상이나 떨어진 논바닥이었다. 순간 있는 힘을 다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다. 안간힘을 썼으나 떨어진 바퀴는 올라오지 못했다. 차바퀴 굽히는 쇠소리만 요란할 뿐이었다. 다행히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차는 논바닥에서 꿈쩍을 하지 않았으니 레커차를 불러 꺼내야만 했다. 힘 빠지고 떨리고 지친 마음으로 농가를 방문했다. 농가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자 바로 “그때 연락을 하지 왜 안했냐? 농가에는 장비(트랙터)가 다 있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시원한 물 한잔을 대접받았을 때의 느낌이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때문에 예민해져서 이런 조사를 왜 하나며 못마땅하게 대답해 주는 농가 분들에 대한 속상함이 한 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아! 이래서 힘든 조사여건 가운데도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통계청 직원들이 계시는 거구나!’ 새삼 선배님들에게 존경심이 들었다.

이전에서 한우 400마리 이상을 두 곳에서 키우는 있는 대단위 한우 농가의 사연도 있다. 한우 마리 수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자 “내가 어떻게 아냐! 직접 세어서 조사해 가라”는 식의 사장님의 반응은 참으로 난감했었다.

그러던 차에 내 눈을 피하는 외국인 목부에게 (불법 체류자였던 관계로) 나를 믿어도 좋으며 통계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

하였더니 미리 전화를 주면 구간별로 자세하게 적어 놓겠다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그분은 2년 가까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주셨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나의 선입견도 바뀌게 된 좋은 만남이었다. 이제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감사한 마음은 지금도 가득하다.

작년에 우리나라엔 전무후무할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휩쓸고 지나갔다. 이천도 예외는 아니었고 전국에서 최고로 가축을 도살한 곳이 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더욱 마음을 닫았으며 이런 시점에 조사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 송구스러울 뿐이다.

실제로 내가 담당했던 조사구는 거의 다 매몰을 해서 전수조사가 전멸하다시피 했다. 3개월마다 가축조사로 이제는 가족같이 느껴졌던 그 분들을 대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조사를 하기위해 여러 목장을 다니는 우리 통계청 직원을 바라보는 그 분들의 의심어린 눈빛도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구제역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귀찮게만 생각했던 통계청을 그 분들이 스스로 전화도 하고 찾아오신다는 것이다.

보상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공증된 자료가 필요하여 시, 군청에서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계기로 농가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통계가 나라의 정책을 위해서도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도 보는 법, 작물 이름, 경지의 증감, 가축전수 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통계청과의 인연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고 통계청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은 산재해 있다. 올 겨울에도 구제역이 또 생길 거라는 뉴스를 봤다. 축산농가 분들의 고충을 봐온 나에게는 통계조사에 앞서 걱정이 앞서기만 한다.

날이 추워지고 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길 기도해본다.



집세조사 설득 실패 사례

박진순 |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시사무소장



집세조사에 불응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 설득 실패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원이 발생할 당시(2010. 2. 17) 조사담당공무원은 28세 여성으로 통계조사 경력은 5년 6개월이었습니다. 연동표본 변경으로 2009년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초가구명부 확인 차 00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가구를 처음 방문하여, 민원인(여, 29세, 미혼, 무직)을 만나 조사협조를 요청한 바 있었고, 재방문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조사관은 1월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자 1월 20일 오후 4시 경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인터폰을 누르고 “통계청 직원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라고 목적을 밝히자, 민원인의 어머니께서 “통계 모른다,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면접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기간에 3차례 방문하였으나 설득에 실패, 1월분 조사를

끝내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세조사 대상가구로 집세만이라도 조사하고자 1월 28일 오후 3시경 방문하였으나 모친은 면접을 거부하였고, 2월 4일 오후 8시 30분경 다른 가구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자 방문하였으나 “안 하겠다는데 밤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하느냐, 다시 오지 말라”며 거부하였습니다.

조사관은 조사마감이 임박하고 아무 협조도 받지 못한 터라 재차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어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월 5일 오후 2시경 민원인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자꾸 찾아와 귀찮게 하느냐. 한번 안 하겠다면 오지 말아야지, 공무원이 시민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느냐”고 조사관을 질책하여, “통계공무원으로서 해당가구를 꼭 조사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기에 재차 방문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자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서 병이 나셨으니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요청하여, ‘그럼 방문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고 방문일자를 논의하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기를 바꿔 들고 “하기 싫다고 하면 오지 말아야지 필요 없다”고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통화 후 곧바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를 받았 습니다.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과입니다.

민원이침 통보를 받고 지청장님과 대책을 논의하였고,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원의 태도가 불손하였다면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며 사과를 하고 ‘방문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고 일정을 문의하였으나 방문을 거부하였습니다.

통화 결과 전세를 살고 있는 가족이 수치심을 느껴 답변을 꺼리는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 어머니는 조사를 위해 방문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동시에 인터폰을 여러 번 누르고 귀청한 것을 약을 올리고자 일부러 누르고 도

망간 행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원인은 통계조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거부하고자 말을 지어낸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날 담당직원과 동행, 대상가구를 방문하였고 민원인 포함 5인(부모, 3남매 차례로 나눔) 가족 면담을 대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원 조사태도에 대하여 기분이 상한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집세조사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통계청 직원과는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으며,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오지 마라”며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전화로 사과, 방문하여 사과까지 하였으나 화만 내고 전혀 협조할 기미가 없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사과드리면서 민원은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과 요지의 민원에 대한 답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과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두 번째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꼭 응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통계법에 의한 응답 의무’를 설명했더니 이번엔 협박한다고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다시 사과 답 글을 올렸으나, 또 세 번째 민원 올라와 이에 “향후 통계조사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는 답 글로 끝을 맺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민원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위해 정중하게 면접을 요청하였고 정당하게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니 담당직원은 풀이 죽어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가구를 설득하지 못한 것보다 민원을 야기하여 상사나 조직에 누를 끼치지나 않을까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다독거리고 결국 응답불응 처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많은 통계조사 중에 집세조사는 가장 항목이 적고 단순한 조사입니다. 조사현장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간단한 조사를 왜 설득하지 못하고 민원까지 야기하느냐?’ 고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이 없이 남의 집에서 세를 사는 응답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말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기 힘들고 그만큼 응답불응이 많은 조사가 또한 집세조사입니다.

늘 느끼는 바지만 이번 민원을 처리하면서 불응가구가 정말 야속하였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사관의 경험과 노하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협조하지 않는 대상처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 현장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일부 통계인은 현장조사는 시키면 한다.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하는 데 안 될 것이 뭐 있느냐? 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겠지만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가며 대문을 두드리는 조사관이 있기에 통계조사는 빛을 받고 통계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정윤희 |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우연히 통계청 조사원 채용을 지원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사관리자를 하면서 쉽지 않게 일을 했지만 나름 보람도 있었고, 또 색다른 경험이라 재미도 있어서 일을 마친 후에도 통계청 사이트를 즐겨 찾게 되었고 몇 가지 조사업무에 채용되어 현장조사를 하다가 가구조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통계청 일을 하게 되었다.

초기 조사원 입장에서 통계청 직원들은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실업률, 고용률을 산정하고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나누고 분석하는 곳으로만 알았다.

사회통계팀에 배치되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모든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현재는 한시계약직으로 본격적인 가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경험으로 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전에 가구조사 경험은 있지만,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조사해야 한다. 담당지역은 전임 출산휴가자가 담당하던 연동표본조사구로 교체초기 조사구다. 전임자와 현장을 동행 방문하여 인수인계를 마쳤다.

설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조사구라 팀장님이 동행하여 설득 지원도 받았다. 예전에 그랬듯이 무조건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며 우리가 하는 일과 앞으로 조사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호의적인 분들이 계신 반면 늘 어디나 불신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한 70대 할머니는 통계청에서 다녀간 이후로 나오던 연금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며 하소연을 하신다.

팀장님과 같이 방문하여 자초지정을 듣고 저희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씀드린 후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다.

일단 가계조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오던 수혜금이 끊기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에, 기관을 찾아 서류를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연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서류상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이후로 할머니는 나를 신임하시며 잘 도와주고 계신다.

물론 수시로 방문하여 가계부를 대필해야 하지만 응답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가구로 초인종을 누르니 아주 옛된 얼굴의 아기 엄마가 나왔다.

연동 설득용으로 나온 커피를 건네며 우리가 하는 일과 앞으로 조사하게 될 가계, 경찰 조사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아주 피곤해하며 관심이 없어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 보는 이모일 뿐이며 아이 엄마, 아빠는 맛벌이라 늦게 온다고 했다.

난 곧이곧대로 믿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다고 하고 나왔다. 차림새나 아이한테 하는걸 보면 아이 엄마 같은데, 그제 의아해 할 뿐 별다른 수가 없었다.

다음번에 아기 간식을 사가지고 방문하였는데 완전 짜증스런 얼굴로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정말 귀찮아하였다.

나도 몇 마디 반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정말 싫다.

수차례 방문 끝에 “아기 엄마를 만날 수가 없어 계속 방문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결국 아기 엄마라고 실토했고 대꾸하기가 귀찮아 그랬던 것이다.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을 이모라고 거짓말하며 대답을 회피할까 싶었다. 하지만 감정을 자제하고 갈 때마다 “아이가 엄마 닮아 예쁘다”며 칭찬하면서 아기 먹을 것과 물티슈 같은 작지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방문하였다.

점차 인상이 좋아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수입지출 사항을 물어 보고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였다. 방문시마다 통계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계부 직접 기입을 설득하였지만 아기 때문에 직접 작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주 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자주 방문을 하였다.

결국 잦은 방문이 귀찮아서인지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는 많이 나아져서 종이가계부를 직접 작성해 준다. 최근 전자가계부까지 작성해 주고 있다. 전자가계부 작성으로 가끔씩 전화하면 친절히 답변도 잘해주고 있다. 어찌나 보람되고 뿌듯한지.

물론 조사를 다니다 보면 터운데 고생한다며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힘이 나고 지치다가도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공무원이면 다 같은 족속(?)인 줄 알고 불신하는 정부 얘기를 하시는 분, 바쁘고 힘들다며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라고 갈 때마다 얘기하시는 분, 살기 힘든데 그런 것까지 조사한다며 욕설담은 냇두리 등을 하신다.

처음엔 가슴에 대못이 하나씩 박히는 듯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같이 너스레를 떠난다. 하지만 아직도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나도 큰소리로 말하고 싶다.

“안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공짜도 아니고 해주는 것도 얼마 없으시면서 너무 밝히기만 하시네요.”

“됐어요” 라며 당당히... 하지만 그저 맘속의 메아리일 뿐 그래도 머리를 숙여가며 그래도 그나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나올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 수치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나라 살림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릴 때 학교 수업에서도 한번쯤은 각인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솔직한 답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현대인의 삶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통계청이 되기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 할 필요도 있다.

“우리집이 표본이라 정말 다행이고 기뻐요.”

“저희집 표본가구로 좀 선정해주세요. 가계부 너무너무 쓰고 싶어요.”

“제가 나라살림 꾸미는데 도움이 되니 힘이나요.”

“어떻게 하면 가계부를 쓸 수 있나요? 꼭 쓰고 싶어요.”
“제가 월마감을 제 날짜에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사를 왔어요. 누락되지 않게 조사해 주세요.”
언제쯤 들을 수 있는 말일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기 때문 아닐까?

웃는 얼굴로 서로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녀 간이 아니더라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면서 정으로 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통계청과 응답자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우리에게겐 80% 이상의 소중한 응답자들이 있기에 사람을 믿고 오늘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겸손함 마음으로 부제 : 머리 이마의 흠

고 문 석 |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장



‘삼고초려(三顧草廬)’란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에 나오는 말이다.

삼국시절(三國時節)의 유현덕이 와룡강에 숨어 사는 제갈공명을 불러 내기 위해 세 번이나 그를 찾아가 있는 정성을 다해 보임으로써 마침내 공명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다.

스스로 세 번이나 몸을 굽히는 겸손함에 감격하여 유비를 위해 쫓아다닐 것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장조사의 참된 비결은 이와 같이 우리 조사관들의 겸손한 자세와 인내에서 비롯됨을 알기에 체험 사례를 같이 나누고자 한다.

군산사무소의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는 호남지방통계청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약 10%로 13개 부서(사회조사과, 12개 사무소) 중 세 번째로 많으며, 연동표본 조사구가 많아 그런지 가계응답 불응률도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무소는 표본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조사팀에서 별도의 비협조가구 및 불응가구 설득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그때 그때 대처하고 있다.

우선 1차적으로 담당자가 불응가구에 설득을 위한 협조 편지를 보내고 총괄자 및 업무 유경험자 등이 설득지원에 나서며 그 다음 팀장이 설득한다. 최후 사무소장이 담당자 등과 동행하여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최대한 조사협조를 당부드린다.

몇 개월 전 내가 불응가구 설득지원을 나서게 된 가계동향조사구는 군산시 도심지 ○○동에 위치한 아파트조사구로 2009년 9월부터 연동을 시작하여 전출입가구가 잦고 연동표본으로 인한 불응가구가 많아 전임 조사관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 회수율이 56%에 불과했으나, 그간 조사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회수율이 78%에 근접하고 있다. 다른 사무소에 비해 연동표본이 많아 불응가구가 많은 편이다.

이 가운데 금년 6월경 인사이동으로 군산사무소에 전입해 온 송향희 주무관이 힘겨운 조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성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불응가구 하나라도 더 설득하여 가계부 회수율을 높이고자 설득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어필하고자 한다.

햇빛 따가운 어느 날 오후, 담당자 송향희 주무관과 함께 불응 대상가구를 방문하였다.

초등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고 남편 없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 한 부모 가정으로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컸는지 도무지 방문조차 꺼려하는 가구였다.

그동안 조사관이 퇴근시간에 맞춰 조사하려고하면 저녁까지 와서 귀

참게 한다고 불응하고, 업무 총괄자 및 팀장의 설득지원 방문하면 끄떡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핀잔만 듣고 돌아왔다고 한다.

사실 담당자 송향희 주무관이 가계부 회수율로 고민하고 불응가구로 인한 마음에 상처가 심한 듯하여 함께 설득을 위한 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해당 불응가구에 도착하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알리는 순간, 안에서 어떤 일인지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가 싶더니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큰 멍치 하나가 갑자기 하필 나의 이마를 관통했다.

“아이고 내 이마야!”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나의 고통소리를 들었는지 아주머니 한 분이 방문을 뚫고 열어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보았다.

큰 멍치는 다름 아닌 그간 가구에 배부하였던 답례품(상품권)이었다.

담당자는 어쩔줄 몰라하며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사무소장님과 같이 조사협조를 구하고자 왔는데, 아주머니가 던진 물건에 소장님이 이마를 크게 다치셨어요!”라고 설명하자,

조금은 미안한듯하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이런 물건 필요 없으니 다 가져가요! 가계부 안 쓰는데 왜 집에 또 와요?” 오히려 여전히 꼳꼳한 자세로 소리부터 내뿜었다.

참으로 가관이다.

미안하다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되레 자기 집에 왔다고 큰 소리 치니 참으로 황당하였다.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내던진 것이 그간 설득하느라고 전해주었던 상품권 멍치라 다행이지, 쇧덩이라도 되었으면 어땠겠는가? 진짜 응급차에 실려 갈 뻔했다.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약간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장 고문석입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결례인 줄 알면서도 아주머님 뵙고 인사

드리려 일부러 예고 없이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송향희 주무관이 가계부 기입문제로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도 문전박대만 하신다기에 제가 도움이 될까하여 찾아 왔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기관장인 제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살짝 아픈 이마를 만지며 가계동향조사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자, 아주머니는 나의 이마를 힐끗 바라보면서

“아니, 조사고 뭐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가면되지, 왜 밤낮으로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통계청은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도 돼요? 이런 것 필요 없으니 다 가져가세요!”하며, 쏘아 붙였다.

아주머니는 높은 사람 만난 김에 다 말해보겠다는 듯이 걱정하고, 통계청조사에 대한 불만을 아파트 통로가 떠나가도록 다 털어 놓았다.

잠시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르면서 이야기를 마친 아주머니가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께서 통계청에서 통계조사차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으셨나 보군요. 그런 줄 모르고 우리 직원들이 수차례 방문하여 통계조사 협조를 부탁드린 것 같아요! 그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합니다”하며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렸다.

“저희 통계청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무엇인가 확실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나아가야 실수나 낭비 없이 나라가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넌지시 말을 이어갔다.

내가 상품권으로 얻어맞은 머리(이마) 부위를 만지작거리며 “아픈 이마부위는 아주머니의 영광스런 흔적으로 오랫동안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다. 시간을 두고 통계조사 부탁 드릴게요!”라며 말을 건네는 순간, 그때였다.

아주머니의 시선이 나의 영광의 상처에 머무는 동시, “통계조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시간에 소장님까지 와서 그런데요? 아무튼 이마는 미안하네요. 귀찮게 하지 마시고 이만 가주세요. 지금은 기분이 뭐하니, 다음에 얘기해요...” 하고 드디어 말문이 트였다.

처음 대면을 할 때와는 달리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듯하였다.

“기관장인 저로서는 직원 하나하나가 자식과도 같습니다. 우리 조사관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럴 줄 믿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고 재빨리 당부 드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 집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통계를 이용하는 수요자는 이렇게 힘든 불응가구 설득과정도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까? 현장에서 조사대상처 관리와 비표본오차 최소화 및 통계조사 정확성 확보를 위해 단 한 가구라도 불응가구를 줄이고자 설득하는 과정을 낱알이 아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내가 동행하여 그 집을 방문한 이후, 조사관의 방문에 문을 열어주고 말을 붙여주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가계부는 불응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담당자인 송향희 주무관이 지속적으로 간도 쓸개도 버리고 밤낮으로 애걸복걸 하고 수시 방문하여 설득하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불응했던 응답자가 조금씩 마음을 연다고 하였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조금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응답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인내와 기다림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가게부가 무엇이고,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무엇인지 슬로우 슬로우 한 걸음 한 걸음 담당자와 응답자 둘만의 미팅이 진행되고, 마음을 열어 조사에 조금씩 응해주는 모양이다.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나누기 행사로 해당 팀에서 직원 간의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금하여 담당자가 팀장과 함께 그 가구에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처음 대면과는 달리 멋쩍어 하면서도 차 한 잔 건네주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아름답더라. 담당자의 말을 전해 들으면, 아주머니 왈 “우리 집 가게부는 소장님 이마예요!”

나의 이마 혹이 헛되지 않은 듯 하여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하나의 불응가구를 설득하기 위해 담당자를 비롯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인내를 가지고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가갈 때 결과는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응답 또는 불응가구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지만 설득과정이나 현장조사 품질검증을 위한 전화모니터링에서 받는 우리 조사관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참으로 노고가 많다.

현장조사는 ‘삼고초려’ 하는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우리 조사관들의 행동을 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신뢰감으로 응답해 주고 있다.

통계청에서도 통계에 대한 공익성의 적극적인 대중매체 홍보를 통하여 국민 의식의 전환과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농작물 조사갔다 도둑까지 잡은 날



최유라 |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여름이 막 시작되려는 6월, 난 인사이동으로 인해 김해사무소로 왔다. 광역권으로 묶이다보니 예전보다 이동범위가 넓어져 여행으로나 가보았던 지역에서 이젠 자연스럽게 생활의 터전을 잡아야 하는 현실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낯선 곳에서의 시작을 통계청 입사 후 19년 동안은 가계업무만을 맡아 오던 틀을 깨고 농가경제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변신을 시도하게 되었다.

6월 10일 이후 저 푸른 들녘에서 바람에 흔들거리는 것들은, 평소 내가 느끼던 아름다운 광경이 아닌 악몽이었고 두려움 그 자체였지만, 또 다른 설렘도 주었다.

발령 첫날, 아무런 지식도 없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다른 날보다 더 신경을 써서 난 참 예쁘게 차려입고 구두까지 신고 출근을 했다.

그런 내 모습에 반갑다는 인사보다 다들 오늘 이후 그런 옷차림은 할 일이 없을 테니 잘 보관해두라며 한 마디씩 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이런 말들을 그저 농담으로만 받아넘겼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로 후회를 했다.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햇살 좋은 초여름 날, 전임자와 조사구를 방문했다.

농가조사구는 가계지역과는 다르게 가구와 가구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 우선 기가 막혀 겁을 먹었는데, 방문하는 가구마다 어찌나 투박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던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과 용어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그러기를 몇 가구거치다 보니 난 멍하니 바라만 볼뿐, 전임자와 경영주와의 대화에 감히 끼어들지를 못하고 있었다. 내가 받은 조사구 특성이 하우스 작물과 논벼를 같이 경작하는 지역이어서 작물재배현황이 보통 3~4장을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것들의 위치 파악에 정신을 쏟아야 했다.

옆에서 보기에 딱해 보일 정도로 차림새와는 맞지 않게 허둥대는 모습에 경영주들은 혀를 찼고, 한심해 보이는 나의 모습에 앞날이 캄캄한지 인사하러간 첫날 불행히도 불운을 하는 가구가 발생했다.

국화를 대단위로 키우는 이 가구는 사업 덩치가 크다보니 부채상황 또한 이제껏 들도 보도 못한 금액을 기록하고 있었다. 경영주보다는 배우자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의 느닷없는 불운은 전임자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순간 당황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네 번째 바뀌는 담당자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껏 참아왔던 감정표현을 가감 없이 나타내고 있었다.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가득 자리 잡은 주름사이에서 그동안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고, 조

금 전까지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나온 탓에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그녀와는 반대로 꼭 나들이 나온 듯한 차림의 젊은 여직원이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였을지 생각만 해도 부끄럽기만 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자신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땀을 뚝뚝 흘리며 흥분해 말하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던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려 나도 모르게 옆에서 있던 키 작은 그녀를 꼭 안아버렸다.

갑작스런 나의 행동에 깜짝 놀란 그녀는 나의 옷에 더러운 흙과 땀이 묻는다고 대경질색 하였다. 그렇지만 난 계속 그녀를 꼭 껴안고 귀에 살며시 속삭였다.

“어머니에게서 나는 냄새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라고,

그 말에 계속 나를 밀쳐 내던 팔을 풀고 반대로 나를 더 꼭 껴안아 주셨다.

60을 훌쩍 넘은 그녀라고 불린 어머니는 슬하에 두 아들만 두셨고, 그 자녀들은 모두 결혼을 하여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단다. 딸이 없는 어머니는 애교를 부리며 당신의 품으로 머리를 들이 미는 젊은 여자에 익숙지 않아 당황해 하셨지만, 나의 이런 행동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지 끝내 살포시 웃음 지으시며 마음을 푸셨다.

젊어 결혼과 동시에 온 이곳에서 평생을 농사만을 지으시며 살아왔던 관계로 몇 부리고 마음 편히 놀러 한번 가보지 못한 세월이 물 찬 제비처럼 꾸미고 온 나를 보자 설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하셨다.

이 말에 난 그저 미안한 마음에 인근 다방에 전화를 걸어 냉커피를 시켜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염없이 들어드렸다.

그리고, 이 날 이후 난 참 많이 달라졌다. 차에는 항상 운동화가 실려

있고, 한 달의 절반 이상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다.

이런 나의 모습에 조사구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와 주었다.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난 얼마 전 TV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그날도 변함없이 뜨거운 하우스 안에서 국화꽃 봉오리를 따며 이것저것 여쭙보며 조사를 하던 중 파란색깔의 트럭 한 대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하우스 앞에 섰다.

잠시 차에 있던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앞에 있던 기름통을 차에 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속력을 높여 왔던 길로 돌아갔다. 잠시 멍하니 그 모양을 구경하던 우리는 동시에 “기름통” 하고 외치고 뛰쳐나왔지만, 이미 그 차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너무 당황하여 엉겁결에 옆에 세워두었던 나의 차로 경영주 아저씨와 난 정신없이 그 차의 행적을 찾아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다행히 큰길에서 신호대기로 서 있던 차를 발견하고 우린 사정없이 다가가서 차안에 있던 도둑 아저씨를 잡아 내렸고, 이내 화가 난 경영주 아저씨의 물불을 가리지 않은 구타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린 다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까지의 경위를 말하고 조서를 꾸민 뒤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아저씨와 돌아온 나는 그날 이후 도둑 잡은 아가씨로 소문이 나서 그 마을에서 유명세를 탔고 항상 고마움을 표하시는 분들로 인해 출장 다녀오는 나의 차에는 싱싱한 농작물이 넘쳐 났다.

도둑을 잡는데 기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사실 그 도둑아저씨에게는 웬지 모를 미안함이 자리 잡았다. 폭등하는 기름값을 충당하지 못해 몇 년 치의 농사를 망쳐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행동이 남의

집 기름을 훔쳐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정 앞에서 체면도 양심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누가 이런 맘을 알아주랴... 마냥 나쁜 짓이라고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 이 후 계속되는 아픔이 가시질 않는다.

도시가계와는 다른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며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경영주에게 물어야만 답이 나오는 이 업무로 인해 이곳에 온지 다섯 달 만에 자연의 섭리도 조금은 배웠고, 더욱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으며, 하루하루 영글어 가는 작물들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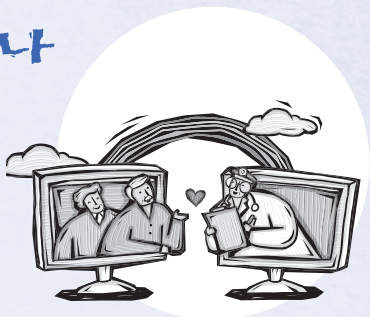
그리고 내가 직접 조사한 농산물을 사오느라 지출도 많이 늘었다.





그 사람 바보, 그러나 그건 사랑이었네

라영희 |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석원입니다.”

모두들 기차 화통같이 커다란 목소리에 놀라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우리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 되었다. 농어업서비스팀에 새로 오신, 우리팀 팀장님이시다. 그날부터 우리는 한술밥을 먹는 가족이 되었다. 미아리가 다택이신데 어찌나 일찍 출근을 하시는지 항상 우리들 표현으로 일빠(일등)였고 귀가 시간은 거의 막빠(마지막)이셨다.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을 어찌 잊을 수가 있는가! 그분이 하셨던 일을 어찌 글로 일일이 나열할 수 있는가! 작년(2010년)같이 더웠을까!

불응하는 사업체 설득 지원하러 가시어 사업체의 창고 짐을 다 날라주고 옷을 흠뻑 젖고 들어오시던 모습. 내가 서비스업만 하다가 농가경제 조사 업무를 맡게 되자 잘 하고 있는지 도움을 주시고자 나의 농가 31170조사구 농가의 경작지를 밧 35,458(약 10,700평), 논 21,781(약 6,600평)을 몇 번에 걸쳐서 다리가 아프도록 경작지 지번이 맞는지, 요도는 정확한지, 작물현황은 누락 없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다니며 설

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던 열정에 농가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

8월의 찌는 태양 아래 오전부터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개천으로, 들판으로, 산으로, 경작지가 있는 곳을 요도를 가지고, 메모지를 가지고 오르내리고 있으니 별경계 달아오른 얼굴이 무안하여 미친 것이 확실했다.

조사구가 남한산성 관광지로 직거래 장터에 물건을 매일 매일 내다 파는 농가의 어려움과 내가 농가경제조사의 업무를 어떻게 하여야 효과적인지 알게 되었다. 농가에 갈 때는 어김없이 빨간 고무장화를 신는다. 마치 장화를 신은 고양이처럼.

작물재배면적 조사를 할 때, (인력구조 개선으로 신규자들에게는 생소한 용어) 실습 외에 조를 짜서 신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일일이 지도하시던 일, 부족한 것을 메워 달라는 신규자들에게 1년(4회)의 시간을 도와주신 분, 눈물이 또 나오려한다.

그날(2011년 7월 21일) 아픈 몸을 이끌고 작물재배면적 조사 지원을 나가신거다. 7월 26일부터 휴가를 내시기 며칠 전 일이다. 휴가를 내신 기간에 나는 본청교육을 들어갔다.

마치 앞날을 알고 계신 듯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내 기억에 나는 악수한 기억이 없다. 분명 나와도 악수를 하셨다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분은 (김석원 팀장님)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으셨다. 나는 돌아왔는데...

발병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올랐던가!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매일(20일간) 용기내시라고 문자를 보내고, 편지도 보내드렸는데 편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분은 하늘로 가셨다. 나의 휴대폰 보낸 문자의 마지막 문자는 8월 24일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우리팀원들(임광중 계장님, 양만중 계장님, 양순옥, 조병춘, 송미연, 강자연, 나) 그분과의 추억을 돌이켜 보았다.

그분은 바보였다.

한번도 업무에 있어서 “NO”라고 하시는 것을 못 보았다. 항상 에스맨 이셨다. 행여 불만이 있어서 입이 삐죽 나와서 투덜거리면 “일꾼이 도와 주어야지 누가 하겠는가”하며 격려와 위로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분.

팀원이 남아서 연장근무를 할 때면 항상 남아서 팀원이 귀가 때까지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셨던 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도 하시고... 또 지침서평가에서는 2등을 하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프로.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그렇게 일찍 나오시고 항상 늦게까지 계셨던 분이 왜 초과를 안 달고 일을 하셨는지는 모두의 미스터리다.

겨울의 어느 날은 너무 일찍 출근을 하여서 오돌오돌 떨었다는 에피소드.

너무 일찍 오셔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어려워하실까봐 일부러 주차장에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셨던 배려가 깊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늘에 가시고 나니 우리들은 더욱 할 말이 많아진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고 화합과 단결을 배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울지 않는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그분이 떠난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싶다. 그분이 주신 정신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오늘도 우리들은 팀장님과 함께 작년 어느 들판에서 벼를 베며 깔깔거리며 활짝 웃고 있다.



친절한 통계청 아가씨

조미순 |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요즘 TV를 보면 이런 광고를 보게 된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직장동료 ○○○씨는 다정합니다. 그러나 딸 ○○○씨 ..., 꽃집주인 ○○○씨는 친절합니다. 그러나 주부 ○○○씨’

그 짧은 문구에 나도 모르게 공감하게 된다.

통계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농담 삼아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

“우리가 조사구에 하는 것 반 만해도 효녀소리 듣고 살 거야”

조사구에서의 나는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곤 흔히 말하는 싹싹한 아가씨이다. 그러나 우리 집에선 그저 무뚝뚝하고 말없는 딸 일뿐이다. 옛말에 ‘웃는 낮에 침 못 뺏는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을 실천이라도 하려는 듯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과 친해져 하나라도 더 자료를 얻어내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 갖은 없는 애교를 짜내가며 하나라도 더 도와드리겠다며 친절을 베풀다.

업무가 바뀌면서 새로 조사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이다.

전 담당자와 찾아간 날 뵙지 못하고, 다음 날 혼자 찾아가 기입지도를 하기 위해 가계부를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작성하고 계셔야할 가계부를 버리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날벼락!!

“버리셨다구요? 무슨 문제라도...”

“바쁘기도 하고, 귀찮아서 버렸어.”

“어머님, 바쁘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적을게요. 영수증만 잘 모아주세요” 갖은 애교를 짜내가며, 사정도 해가며 어머니를 설득했다.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쓰는 것도 싫고, 우리 아저씨가 보면 잔소리해서 싫어”

“그럼 아저씨가 보면 안 되는 건 저한테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비밀 지킬게요.”

귀찮은 듯이 “그럼 난 영수증만 모을거야. 그 다음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 그렇게 허락이 떨어졌다.

어머님은 간신히 넘겼는데 아버님이 문제였다.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셔서 “정부에서 나한테 뭘 해줬다고...”를 시작으로 주정 아닌 주정을 하시는 것이다. 어머니가 무시하라고도 하시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다음을 위해 일보후퇴!

그 다음주 쯤 되었을까... 가구를 방문했는데 어머님께서 통장을 보시며 고민하고 계셨다.

“왜 그러세요?”

“분명히 주택부금을 이만큼 자동이체 했는데 연체가 되었다고 해서 전화로 물어보니 뭐라고 하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가씨가 전화 좀 해줄래?”

“그러세요. 번호가 몇 번 이에요?” “어머님, 이게 국민은행으로 직접 입금한 게 아니라 아버님 통장으로 이체됐는데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그랬대요. 바로 계좌이체 하시면 된대요.”

전화상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머니는 이 통화를 시작으로 전화를 통한 심부름을 부탁하기 시작하였다.

“아가씨, 우리 전화명세서에 착신번호 돼 있는 거 취소 좀 시켜줘.”
“병원 예약된 거 날짜 변경 좀 시켜줄 수 있나 전화 좀 해줘봐?”

“아들 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 혹시 알아?” 등등 갖은 심부름을 하며 작지만 도움을 드리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셨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부에 하나 둘 내용이 적히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병문안을 가게 되었을 때, 조사 못해주겠다고 불응하시던 아버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니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 대출이 어떻고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봐줘 봐요.”

“아드님이 대출받으셨나본데요?”

“뭐? 내가 물어보면 속이니까 아가씨가 아들이랑 통화해서 왜 대출받았는지 좀 물어봐줘.”

아들을 믿지 못해 나한테 부탁을?? 기분은 좀 이상했지만 그렇게 또 하나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심부름을 하면서 아버님께 신뢰를 얻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아버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지금은 아버님의 지출내역부터 소소한 얘기들까지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다.

“강릉에서 교통카드를 샀는데 원주에서 안 된다네, 아가씨 시내 나가 거든 이거 반쯤 좀 해줘.” “시장에서 뭘 좀 사려니까 시간이 없네. 아가씨 올 때 그것 좀 사다줄래?” “미용실 좀 알아봐줘.”

“그러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야 되는데 버스시간이 안 맞아서 기다리고 있어.”

“제가 모셔드릴게요” 이렇게 오늘도 나는 두 분의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 함께하고 있다.

전자가계부를 처음 작성하게 되는 가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이다.

연동표본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심스럽고 어색하던 시기였다. 가족사진 달려 제작을 위해 사진도 찍어드리며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전자가계부 작성을 위해 PC에 프로그램도 깔아드리고, 작성법도 알려드리고, PC를 켜 김에 바이러스 백신과 필요 없는 프로그램 삭제도 해드렸다.

“딸 같이 자상하니 잘해주네. 딸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엄마는 참 좋겠네. 우리는 아들뿐이라서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말도 안 해. 이런 딸 있는 집은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뜨끔! 엄마에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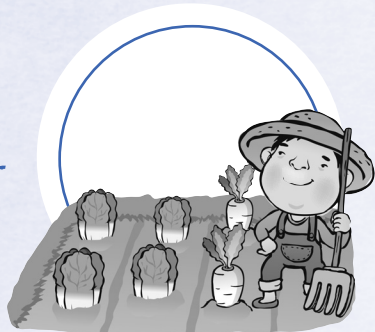
이런 게 일의 힘일까?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킬 땐 귀찮다고 잘 하지 않고, 투명스럽게 대했던 나 자신의 이중성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된다. 조사구에 하는 것 반만이라도 엄마 아빠에게 하자!!

오늘도 나는 얼굴 한가득 미소를 머금은 친절한 통계청 아가씨로 불리고 있다.



도시층각의 작물재배면적조사

박 상 욱 | 동남지방통계청 합천사무소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다 2011년 8월 8일자로 동남지방통계청 합천사무소로 발령 받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 줄곧 도시에서만 생활한 내가 시골에 오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도 들고 매일 매일 새로움을 느낀다. 또한 깨끗한 환경과 여유로운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왜 굳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팍팍하게 사는 것만을 고집하는지 의문도 든다.

이곳에 오기 전 주위에서 듣기로 통계청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공무원이 주민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수차례 들었기에 내심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아직 시골 인심이 남아 있는지 대체로 공무원에 대해 호의적인 듯하다.

반면 도시에서의 민원은 대부분 급하고 공격적이라 부산에서 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온 나로서는 민원에 대하여 다소 경직된 태도가 몸에 베어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 주민을 상대하였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어 약간 당황스러웠고, 나 역시도 앞으로는 딱딱한 태도보다는 부드럽게 응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온 이후 3개월간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축동향조사’, ‘작물재배면적조사’, ‘논벼·밭벼 생산량조사’ 등에 참여하였는데 나를 가장 당황시킨 업무가 ‘작물재배면적 조사’ 이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로 시골길에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주로 땅 모양만을 보고 조사구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곳의 지리에 생소하고 관련 경험이 일천한 초보자로서는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다. 또한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조사표를 찾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도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조사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땅 모양만 보고 지번의 경계를 알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셋째, 지번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 심겨진 작물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도 쉽지 않다.

넷째, 지형이 험하거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을 측정하기도 난감하다.

그 와중에서 들판에서 벌이나 뱀, 멧돼지 등의 동물이 나타나지나 않을까 하는 등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과거에 내가 구청에서 수행했던 업무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였고, 농업에 대해 무지한 도시총각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에도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주어진 기간 내에 내가 과연 업무를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었지만, 우선적으로 출장 사전 또는 사후에 ‘다음 지도’ 나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 등으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서서히 지리를 익혀나갔다.

생소한 작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와 작물도감을 참조하였다. 개인

적인 생각으로 작물명은 일상생활에서 항시 작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재배면적 측정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초보자인 나에게 는 보폭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잘 맞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선배님들이 3~4회에 걸쳐 동행하여 자신의 오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아울러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각종 전자기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비게이션도 I사, M사에서 나온 맵을 사용해 봤는데 나 스스로 M사에서 나온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시골길 찾기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다음 지도’, ‘나침판’ 애플리케이션도 초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스마트폰 사진을 활용한 작물 확인, 위치확인서비스 등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내심 기대가 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QR코드와 같이 작물을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작물을 인식하여 작물명이 나오는 서비스를 희망한다. 또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 등도 현장업무 대상자에게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작물재배면적 조사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의 모든 통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한 국가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때 비로소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국내 농업 환경이 더욱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담당 조사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나의 서비스 점수는 몇 점?

김 소 영 | 동남지방통계청 김해사무소



지난 겨울, 유럽에는 100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고 중국에도 30년 만에 폭설이, 미 북동부에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한반도도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한파와 폭설로 뒤덮였는데, 특히나 따뜻한 남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까지도 한파가 습격했다.

이 겨울 한파 속 새해 첫 날, 나의 새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건 바로 서비스업동향조사 추가표본사업체 조사!

배정받은 신규 사업체는 총 92개체, 기한은 2월 말까지인데 교육일정과 명절연휴를 제외하면 한 달 반도 채 안되는 기한에 모두 방문하여 자료를 받아야했다.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매서울 얼굴들을 떠올리며 예정된 2011년 나의 한해를 시작하였다.

올해 경기는 최저점을 찍는다고 했다. 서비스업동향조사의 주 조사항목은 사업체의 매출문의이다. 불경기에 점점 나빠져만 가는 상황에 매출문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분들의 가슴을 후려 파는 것 같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 더욱 조심스러웠다. 그렇기에 딱딱한 그들의 반응도 이

해가 되었다.

신규 사업체이고 업체 수가 많다보니 이런저런 다양한 반응들을 많이 겪었다.

사무실을 나설 때 한 분이 “소영이 2번은 울고 들어 오겠네”했다. 그 말에 오히려 더 힘이 났다.

‘아, 힘든 일인걸 모두 알아주는구나! 이럴 때 일수록 더 잘해야지 씩씩해야지’ 마음을 다잡았다.

한 사업체 사장님은 밤 10시 반에야 가게에 들어오신다 했다. 직원을 통해 핸드폰 연결을 했는데 사장님은 가게 3개를 운영하시면서 통계청에서 여러 번 왔어도 여지껏 통계조사를 해줘 본적이 없다시며 낮은 목소리로 전혀 설득이 안 될 것처럼 거절하셨다.

‘어쩌나... 찾아가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귀찮게 하면 민원이라도 넣겠다는 반응이시던데...’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에 애들을 재워놓고 사장님이 오신다는 그 시간을 맞춰 우리 집과 반대방향에 위치한 사업체를 찾아갔다. 가게 밖에는 신랑을 대기시켜놓고 사업체에 들어섰다.

목소리만큼이나 매서워 보이는 사장님을 본 순간 야단만 맞고 내쫓길 것 같아 주눅이 들었지만, 티 안내려 애쓰며 밝게 인사를 드렸다. 밤에 찾아올 줄은 생각지 못하셨는지 묵묵히 내 말을 들어주셨다. 어쩌면 하는 희망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조사내용을 설명 드렸는데, 난감한 사장님의 말씀이 뒤따랐다.

“그럼 각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각서에는 절대 비밀보장이 되고, 조사 이후에 세금추징이나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사태가 발생 시 무조건 내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단다.

“사장님, 비밀보장은 통계법상에 명시되어 법으로 보장되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다른 이유로도 인상될 수 있는데 제가 각서를 쓰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절대 자료제공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셨다.

마감일은 얼마 남지 않았고, 본청에서 대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각서라는 건 함부로 쓸건 아닌 거 같고... 난감했다.

그 때 사장님께서 “우선 이달에는 자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내가 각서를 만들어 놓을 테니 다음 달 방문 때 와서 사인을 해 주세요”라고 하셨다.

그 말씀에 어찌할 방도가 없던 나는 이번 달은 마감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우선 그러겠노라며 답하고는 자료를 받고 나왔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음 달 써야 할 각서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 부부싸움에도 써본 적 없는 각서인데...

다음 달, 걱정되는 마음에 가기 싫어 미루고 미루다가 절대 각서는 쓸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설득 외엔 다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사업체를 방문했다.

두 번째 만남에 괜히 친근한 척 안부도 묻고,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찾아온 나의 상황도 얘기하며 어떻게든 각서를 피해보려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밤늦게 시간 맞춰 찾아오는 정성이 통한건지 별 말씀 없이 전산자료를 찾아서 매출을 불러 주시는 게 아닌가.

혹 ‘각’ 자라도 나올까봐 얼른 마무리를 하고 가게를 나서며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행여 다시 각서 이야기나 세금 추징 이야기를 꺼내실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혹 자료가 늦어지면 미안해하시면서 조사에 응해주고 계신다.

처음엔 막무가내로 거부하셨던 분들, 별세우는 것처럼 1시간 이상씩 나를 세워두고 싫은 소리를 하신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나의 의지와 성실한 면을 보여주고 이 일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알려주니, 첫 방문에서 거부하셨던 분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에서는 한결 부드러워지셨다.

찬바람이 뽀뽀 불던 딱딱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커피 한 잔하고 가시라며 1시간씩 나를 붙잡고 개인 가정사며 살아온 얘기들을 늘어놓으시며 내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환하게 미소지어 주신다.

나 또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불경기로 힘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고 노력한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담당자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복지관 등에서 챙겨온 팜플렛을 전해드리고, 주부 담당자들께는 사회팀에서 지원받은 주부생활 상식책, 대표자님들에게는 통계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업종에 관련된 사항이나 온라인 간행물 등을 인쇄하여 전해드리면서 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했다.

신규사업체 조사를 시작한지도 이제 10개월째.

서비스업이라 지금도 폐업, 사업주 변경, 담당자 변경, 이전 등이 잦아 다시 시작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비스업을 조사하는 나 또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면 그분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 믿는다.



+++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고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놀이는 변함 없는 젊음의 비결입니다.

책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독서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생활에 향기를 더해 줍니다.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는 일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2011년 통계조사 체험사례

응 **답** **자**
부 **문**



고마운 가계부



이 정 미 | 경남 양산시 평산동

“저~ 실례 합니다. 통계청에서 나왔는데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또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싶어 잠시 망설이다가 통계청이라는 소리에 귀가 솔깃하여, 그래도 이 사회가 통계청 조사로 많은 이득을 얻는데, 싫어서 좀처럼 열지 않는 문이었건만 그날은 빠끔히 열었다.

활짝 웃는 여자 분이 찬찬히 말하였다. 우리 집이 조사가구로 정해져서 방문했노라고. 이렇게 그녀와 마주앉아 대화하던 중 몇 자 적어주면 끝 날줄 알았던 조사가 몇 년을 해야 한다니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전자가계부를 쓰면 매월 사례금을 준다는 말에 생각이 금 새 바뀌었다.

‘그래! 내 사는 모양이 사회에 보탬도 되는 일이니 보람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여 나는 가계부를 쓰는 주부가 되었다.

사실 난 서른다섯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신혼 초에 딱 6개월간

가계부를 썼다. 그것도 금전출납부라는 커다란 장부에다가 마트와 시장, 그리고 작은 구멍가게에서까지 영수증을 달라고 하여서 영수증을 붙이는 형태로 그 자체가 가계부가 되었다.

그리고 한 달 한 번 남편의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남편에게 당신이 번 돈이 이렇게 쓰였노라고 보여 주기위한 증거물 일뿐 주부로서의 사명감으로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IMF가 왔고 남편은 오래도록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나왔고 갑자기 다가온 경제적 위기에 몰려서 나는 임신한 채 맞벌이를 해야 했고, 먹고사는 일에 급급해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 나에게겐 비참한 생활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잔인함이었고 또 한가한 주부들이나 쓰는 사치스러움으로 여겨져서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 가계부를, 그것도 결혼 12년차가 된 지금 쓰려니..., 그것도 장부가 아닌 컴퓨터에다가.... 조금은 낫 설고 어색하였다.

하지만 나는 한 번 잘 써보자 생각했다. 내가 쓴 가계부를 출력하여 모아서 진짜 가계부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과, 보이기 위한 가계부가 아닌 알뜰주부로서의 가계부를 써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전자가계부 쓰기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그냥 지갑에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아껴 쓰던 자유로운 주부로 살다가 일일이 쓴 돈의 출처를 밝혀가며 또 정확히 써야한다는 사실이 꼭 족쇄를 찬 기분이 들었고 ‘에이~내가 괜히 한다고 했나? 귀찮다... 귀찮아...’ 라고 중얼거리기를 여러 번.

그러나 예전에 영수증 모으던 경험을 살려 열심히 영수증을 모아 가계부를 썼지만 그래도 기억나지 않는 지출이 많아 작은 수첩에다가 째째이 사야 할 것들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였고 가계부를 쓰다가 생각나

지 않으면 그 수첩을 보며 쓰게 되다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것은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었는데… 또 이게 뭐야? 가스비가 왜 이리 많이 나간거야? 장난 아니네~ 뭐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입란에 적히는 돈은 벌써 6년째 제주도에서 기러기 아파로 일하며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과 또 내가 하는 펠트수공예품 쇼핑몰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부업수준의 작은 돈이 전부였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는 쇼핑몰이 잘 되질 않아서 문을 닫을 지경까지 되었고 그러기에 손실도 많은데다 당장 기본생활까지 힘들게 돼 버렸다.

그렇게 그달의 가계부를 찌든 삶의 흔적으로 힘겹게 월 마감 하니 조사원 현주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가계부를 열심히 써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요 아저씨는 제주도에 계시니깐 지금 맥에서 아이 둘과 엄마 이렇게 세 사람이 살고 계시는 데요, 지출 면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지출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 하시더라구요. 혹시 빠지신 것 없으신가 해서요. 20번 정도가 모자라요.”

그래서 나는 얼른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머… 그래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 볼게요.”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달에는 친정엄마가 다치셔서 외의 지출이 있었고 씬씬이를 줄여서 살았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지어서 쓸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처음 가계부를 쓸때 내 나름대로 결심한 일도 생각나고해서 다시 가계부로 들어가 채소라고 묶어서 쓴 것을 찾아 배추, 당근, 파, 무라고 나누기를 하였고

또 그렇게 나눌 것이 없나 찾고 찾아서 보통사람들의 기준에 겨우 도달하여 가계부를 마감할 수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심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였고 그것을 가계부에서 찾기로 하였다.

먼저 지출이 많은 것부터 살펴보았더니 많이 먹고 쑥쑥 자라는 두 아이들의 간식비는 물론 학원비 등 아이들 앞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을 어떻게 줄여볼까 하여 고민하다가 주위사람들의 충분한 의견과 서적을 통한 깨달음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권장하기로 결정, 교재비만 내면 컴퓨터를 통해 영상강의를 듣는 교육방송을 선생님이 만들어주고 나는 다만 아이의 스케줄을 옆에서 지켜보고 이끌어 주는 역할만을 하였다.

그랬더니 의외로 비싼 돈 주고 학원 다닐 때보다 성적이 올랐고 지난 중간고사에는 진보상까지 받아왔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던 미술학원을 끊고 자칭 예능감각이 있는 내가 그동안 바쁘다며 기피한 아이들의 눈을 마주보며 미술선생님이 되어 일주일에 두 번은 만들기 수업을 하고 나머지 두 번은 그리기 지도를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쉽게 사서 먹이던 간식은 줄이고 직접 만들어 아이들의 영양까지 따져가며 간식을 부지런히 먹였다. 그러다 보니 돈도 굳고 아이들이 길에다가 버리는 시간들도 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남은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니다보니 아이들은 물론 나 자신도 자연이 주는 넉넉함을 닮아 갈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품을 팔아서 얻어낸 정보를 통해 아이들을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여주며 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도와주었더니 예전보다 더욱 폭넓은 양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았다.

앞으로는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교실에 아이들을 보낼 생각까지 하고서 그렇게 이룬 주부의 노고를 고스란히 가계부로 옮겨 쓰다보니 쇼핑몰이 잘되어 수입이 짹짹할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을 맛보았고 차츰 가계부를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는다는 것이 ‘참 잘 했어요’ 라는 칭찬 도장을 받는 아이처럼 즐겁기만 했다.

그리고 요즘 신선살림으로 장만한 살림살이가 12년이 되어가자 다 망가져서 새로 사야 할 지경이 되고 보니 또 다른 방법으로 지출을 막을 길을 찾다가 그것들을 돈 안들이고 순전히 노력만으로 장만하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그것은 라디오에 사연쓰기는 물론 직접 전화참여를 통해 상품으로 받는 것이었다. 그 일도 참으로 매력적이었다. 주부의 노곤한 일상 속에서 흘러버리기 쉬운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내어 글로 표현 하다 보니 약바리 40대 중반의 아줌마는 낭만적인 생각과 삶으로 바뀌어갔고 또 집안에서만 생활하다보면 의기소침해 질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퀴즈대회와 노래자랑 및 자작시낭송, 편지글 읽기 등으로 전파를 통해 나를 나타낼 수 있어서 참으로 삶에 큰 활력소가 되는 것을 느꼈다.

그 결과물로 벌써 많은 살림살이를 바꾸었다. 양문형 냉장고, 정수기, 식탁, 프라이팬과 냄비는 물론 심지어는 간식까지 상품으로 받다보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집은 택배가 많이 오는 집으로 택배기사와 경비아저씨들께 유명하다.

그리하여 마이너스이던 가계부가 흑자로 바뀌어가는 지금 나는 통계청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통계청을 통해 가계부를 쓰지 않았더라면 나는 찌든 삶에 잔뜩 독이 오른 짜증스

러움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풀어냈을 것이다.

이제 8개월째 쓴 가계부로 인해 이렇듯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며 지난날 생각 없이 살던 때가 몹시 후회스러운 반면 앞으로 계획된 일들이 너무나도 기대되어 즐겁다.

나는 다짐해 본다. 통계청과의 인연이 기한이 되어 끝이 난다 하여도 나는 계속 가계부를 쓰겠노라고….

그래서 멀리서 고생하는 남편에게는 지혜롭고 알뜰한 아내가 되고 꿈을 향해 자라가는 아이들에게는 사랑 많은 이상적인 엄마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나는 요즘 주부로서 가계부를 쓰는 것이 참 행복하다.



나라경제 지키는 나는야, 가계부 쓰는 남자

류택희 |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탁탁탁~~~톡톡톡~~~드르륵~~

춘곤증으로 가득 찬 4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초콜렛보다도 더 달콤한 낮잠을 자고 있다가 무심코 들려오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
니다.

“뭐 해~~?”

달콤한 낮잠을 깨운 것에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죠.

“응, 뭐 좀해~~!!”

신경 쓰지 말라는 말투로, 제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내는 대답했습
니다.

평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본론에 부록 1, 2, 3으로 말하던 아내가 이
렇게 짧게 대답하는 것이 수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무거운 몸
을 이끌고 슬금슬금 아내 곁으로 가서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왔습니다.

“두부 2,350원, 오이 2,500원, 삼겹살 21,800원…”

오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물건하고 가격을 적고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가계부야?”

매달 25일 월급 받고 2~3일후엔 통장잔고 10여만원이 남을 때만 “이번 달에 뭘 이렇게 많이 썼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오늘부터 가계부 써봐야겠다!!”라고 하면서 3~4일 쓰다가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놀라운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아내 왈 “나 지금 무지무지 중요한 일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뽑혀서 범국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실타레에서 실을 풀듯이 좀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봐!!”라고 말했죠.

“음~~~~”

“어디부터 이야기하면 좋을까?”

“작년 10월에 통계청에서 연락이 왔었어. 대한민국 00만 가정을 대표하는 일이라면서, 매달 지출한 목록과 금액을 인터넷으로 적는 전자가계부를 써줄 의향이 있는지 말이야~~!!”

“더욱 중요한 것은 소정의 사례도 있다고 해서 한다고 했어!! 히히히~~”

“암튼, 나 무지무지 중요한 일 하니까 옆에서 말시키지 마!!” 하고는 획 돌아서 전자가계부를 계속 쓰고 있더군요.

“전자가계부라!!” 저에겐 생소한 용어라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전자가계부는 “가계부 관리가 한 달을 못 넘기는 분들”, “영수증을 자꾸 분실하시는 분들”, “통계가 맞지 않는 분들”, “가

계부를 써봐도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가계부관리를 시작으로 자산관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하여 운영하는 전자가계부라고 하더군요. 딱 우리 집에 해당되는 항목이라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출은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얼마나 썼는지, 월급대비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큰 보드판을 사서 하루하루 얼마나 썼는지도 적어봤고, 종이돈을 만들어서 그날그날 쓴 돈을 휴지통에 버리고 남은 돈이 얼마일까 수십 번 계산도 해봤는데 계산이 맞지 않아서 인지매번 통장잔고와는 차이가 많이 나던 참에 전자가계부를 처음 접한 나에게는 신기하기도하고 과연 잘 맞을까 하는 궁금증도 나더군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잘 맞아?”, “우리 가정의 경제 상태가 잘 맞아?” 물어봤습니다.

“대충 잘 맞는 것 같아... 현재 우리가 얼마를 썼고, 남은 금액은 얼마야~~!”하고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다음 월급날까지 10일 정도 남았는데, 월급의 3분의 2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음, 이번 달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네?”라고 하니 아내가 말하길 “전자가계부 쓴 이후로 우리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라고 말하더군요.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쓰는 건데...?” “내가 써도 되는 거야?”

저희 통장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는 말에 저도 일조를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나하나 알려주더군요. 먼저 통계청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지정받아 통계청 전자가계부에 접속을 한 후 카드로 쓴 건 카드 란에 체크하고, 현금으로 쓴 것은 현금 란에 체크해서 가게

부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컴퓨터를 보다가 와이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전자가계부에 들어갔습니다. 점심 먹은 것과 교통비를 적으려고 들어갔는데 정말 쉽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날 그날 쓴 지출의 내역과 합계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요즘에는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계부를 쓰는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매일 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켜면 관심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검색하다 눈이 아파 끄고 다시 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습관이 무섭더라구요. 나도 모르게 전자가계부에 클릭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내가 지출하는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정확하게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무슨 커피인지 아이스커피 인지 카페모카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커피 값이 이렇게 비싸?’, 커피는 어디에 구입하는 거지? 분류해 보게 되고, 밥 먹은 것보다 커피 값이 더 많이 든다는 것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뉴스에 커피 값이 예전에 비해 많이 올랐다는 통계청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가계부를 쓰다보니 경제가 보였습니다.’

아, 이래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삶에 작은 부분까지 분석하게 하는 큰 힘이 있다는 것도 가계부를 쓰면서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통계 천이요?’ ‘어디요?’ ‘아~ 통계청이요?’ 하며 생소하게 느꼈던 통계청이 아주 가깝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보도되는 기사의 내용 중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이라는 단어가 귀에 쫄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몇 번씩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계청 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가계부를 잘 썼는지 생각해 보고 며칠인지, 뭘 해야 하는지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청의 ‘베스트 다이어리’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통계청이 아니었더라면 남자인 제가 언제 가계부를 써 보고, 또, 베스트 다이어리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또 한 번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회사 동료들도 “매일 뭐하는 거냐”고 물어서 전자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한번 써 보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전자가계부의 시스템을 보면서 정말 가계부 쓰기 좋게 되어 있다”고 하며 관심을 보입니다. 이렇게 가계부를 쓰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쓰는 모습에 호기심으로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루 하루 가계부를 쓰는 것이 저의 중요한 일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화로 빌려 줬던 돈을 잊고 있다가,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알아내어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가계부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가계부의 전도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텐데, 등록된 가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분들께도 통계청의 가계부를 쓰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주저 마시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바로 하세요.

작은 가계부 쓰기 실천이 연초마다 가계부만 사고, 방치한 후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가 늘어만 가던 저희 집도 통계청 가계부 덕분에 쓰임새 있는 지출을 하게 되었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 부부의 신뢰도 커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작은 실천이 나라의 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전자가계부 쓰기로 우리 모든 가정의 경제도 살리고 나라의 경제도 살립니다.

통계청 가계부 고맙습니다. ^^



내 삶의 플러스 전자가계부



진명희 |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전자가계부를 쓰기 시작한지 어언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맨 처음 통계청과의 인연을 생각해 본다. 푸웃~하고 웃음이 나온다. 사실 통계청과 나의 만남은 그다지 기분좋은 만남은 아니었다. 집에 손님이 와서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벨을 눌렀다.

통계청이라고 하면서 우리집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 가구에 해당된다면서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는데 귀찮기도 했지만 내 소중한 정보가 어디로 새어 나갈 것 만 같은 느낌에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매 주마다 방문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받은 게 있어(답례품) 차마 귀찮은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저걸 조사해서 도대체 어떻게 통계에 적용을 한다는 건지 의문이 가기도 했다.

직원으로부터 전자가계부 설명을 듣고 매뉴얼대로 해보기로 했다. 매달 사례금까지 준다는 말에 '이거 사기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너무 순진하게 생긴 아가씨여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혹시나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저마다 “아마도 사기인거 같다” 면서 다시 한 번 잘 알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 했었다.

하지만 통계청 직원은 친절하게 프로그램까지 다 깔아주고 계좌등록이며 이것저것 설명까지 해주고 시범까지 보여주고 갔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기도 했지만 자동으로 가계부 수입 지출 내역이 계산되고 매달 비교까지 되면서 보여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다.

전자가계부를 쓰기 전에는 한 달에 우리 가정이 얼마를 쓰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쓰고 살았는데 전자가계부를 쓰면서 조금 아껴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달 전월자료랑 비교가 되니 우리집 가계지출의 주된 항목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아껴야 하는지 데이터가 나오니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가계살림을 할 수 있었다.

전자가계부를 쓰면서 받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매달 나오는 사례금이다. 거금 5만원^^ 그 사례금으로 벌써 2년 동안 펀드를 들어서 저축도 많이 늘었다.

통계청 가계조사를 하기 전에는 통계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TV나 매스컴에서 우리나라의 실업률, 고용률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 ‘아하 저거 우리 집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웬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겠다는 사명감이 들기도 한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통계청과의 인연은 끝나지만 난 아직도 톡톡히 전자가계부를 쓰고 있다.

통계청이 통계만 내는 곳이 아니라 나의 습관을 바꾸어 주고, 내 가정의 씬씀이를 바꾸어 주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 국민을 운택하게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는 걸 이제 와서야 느낄 수 있었다니...

그동안 우리집 가계조사를 위해 고생하신 통계청 직원님, 그리고 내 삶을 플러스 시켜준 통계청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앞으로도 나의 전자가계부는 계속 쓰여질 것이다. 쪽쪽~~



파이팅, 통계순!



홍태남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인터넷으로 통계청 가계부를 쓰신다면요?”

“그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건데요. 저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청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걸요.”

금융기관에서 시장분석을 담당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전자가계부를 쓴다는 이야기를 제 어미에게 처음 듣고 기뻐했던 것을 기억한다.

작년에 은퇴한 아버지가 무료하지 않도록 아들은 노후된 PC를 최신형으로 바꿔주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컴퓨터를 꽤 활용했었지만 퇴직 후 10여 년 동안 사용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모든 게 낯설었다.

너무나도 달라진 인터넷 환경에서 일흔을 바로 앞에 둔 노인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지런히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옮겨 보는 것이나, 기차표 예약 아니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가끔 활용 빈도를 점검하며 대답을 기대하는 아들에게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 미안하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그동안 써오던 가계동향조사 종이가계부를 온라인으로 기입하는 전자가계부로 바꾸어 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우리 동네를 담당하는 통계순(나는 통계청 공무원을 ‘통계순’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의 부탁에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인터넷 활용 능력도 기르고자 승낙하였다.

친절하고 자상한 통계순의 도움으로 전자가계부 작성이 염려했던 만큼 어렵지는 않았다. 지금은 전자가계부가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될 정도다.

이제는 가계의 수입 지출이 생기면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한다. 이 일은 이제 하루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

이 때가 되면 아내도 하루 중 지출한 내역을 ‘콩나물 2,000원, 두부 1,500원...’ 하면서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보고한다.

영감의 소일거리를 도와준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매달 입금되는 사례비를 몽땅 본인의 용돈으로 착복(?) 하는 잣밥에 재미가 더 크지 않을까? 고개 숙인 영감은 마누라 몰래 웃어본다. 즐거운 마음으로 쓰다보니 자연스럽게 컴퓨터 사용 수준도 높아지고, 인터넷 환경도 이제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전자가계부를 매일 작성하는 것은 내 일상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거리가 없는 나 같은 은퇴생활자에게 작은 일이나마 관심을 가질 대상이 생겼다.

또한 가계부 사용으로 소비와 지출이 투명해져 가계를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아내와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이전에는 가끔 있었으나, 이제는 그럴 염려 없다.

가계부를 월 마감할 때는 언제나 아내와 함께 앉아 한 달 동안의 수입 지출 내역을 소상하게 이야기한다. 간혹 기록이 안 된 내용이 있으면 서로 기억을 더듬어 기록한다. 과지출이 발견되면 반성하여 다음 달 계획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간 개인적인 관점에서 주로 생각했지만, 전자가계부를 통해 우리 경제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과 이야기 하면서 알게 되었다.

금융기관은 물론, 모든 회사는 항상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제품의 수요도 예측해야 하고, 계절에 따라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켜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자료를 모아 만드는 통계치가 없다면 기업은 물론, 정부도 눈 뜬 장님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통계청 외에 국내 어떤 기관도 이런 방대한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다.

결과를 쌓아두기만 할 뿐 아니라, ‘국가종합통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의 용이성 면에서는 어떤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도 뿌듯하다.

전자가계부를 통해 나도 미력이지만 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소소한 지출, 우리 가족의 살림이 이런 자료를 통해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놀랍다. 선거 때 한 표 한 표가 모여 민의가 반영되는 것처럼, 내가 작성하는 작은 단위의 숫자가 모여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통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통계청 가계부를 쓰기 전에는 매스컴에 나오는 국가 통계자료들에 대해 반신반의 하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차 없는 통계를 위해 내가 작성하는 내용에 오류가 없나 항상 확인한다.

전자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종이가계부보다 많은 점이 개선되었음을 느낀다.

기입란에 항목을 타이핑하면 시스템에 미리 저장된 내용으로 자동 입력되는 모습을 보며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시스템 이면에서 수고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이다. '통계순' 들의 노고를 빼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땀에 흠뻑 젖어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항상 밝고 친절할 모습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협조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끔 통계순이 교체될 때는 매우 섭섭한 마음까지 드는 것은 그만큼 정이 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체된 이후에도 가끔 이전 통계순과 안부를 전하기도 한다.

작성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그들을 이해하는 통계순 이야말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분들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전자가계부를 기입하면서도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그분들의 노고 때문이다. 잘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가끔 통계포탈에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 보기도 한다. 통계표의 수많은 숫자들 사이로 나와 이웃들, 그리고 통계순들의 얼굴을 본다.

파이팅, 통계순!

장려상

가계부의 힘!



최 성 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환경제형 사례 • 응답자

작년 3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짐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어수선하던 때였다.

“땡동” 벨이 울렸다.

평소 낯선 사람을 꺼리는 터라 아는 사람이거나 택배 배달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문을 열어 주지 않는데... 통계청에서 왔다고 한다. 인구조사 기간도 아닌데 통계청에서 웬일인가 하고 의아해 하며 문을 열었다. 담당자 분이 상냥한 얼굴로 반갑게 웃으시며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는 우리 집이 통계청에서 하는 가계조사 표본조사구이며 전자 가계부를 쓰시면 가계수지 파악과 소득 소비 등의 분석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된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처음의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닫혀 있던 마음이 어느 새 스르르 풀리며 마지못해 해보겠다고 했다.

사실, 결혼한 지 3년 동안 가계부를 써야겠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가계부를 써 보았지만 작심삼일 격으로 얼마 쓰지 못하고 그만 두곤 했었다. 워낙에 숫자와 친하지 않아서인지 매일 기억하고 쓰는 게

귀찮기도 했고, 매월 고정된 수입에다 지출 또한 거의 고정적이라 가계부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도 했었다.

게다가 표본조사라면 우리 가계의 사사로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어떡하지...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취소해버릴까?’ 후회가 밀려왔다. 며칠 동안은 할까 말까 고민에 또 고민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의무감에서라도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았다.

물론, 사례금의 유혹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시작한 전자가계부!

첫째 달은 수기로 가계부를 쓰고, 둘째 달부터 전자가계부를 쓰게 되었다. 처음에는 은행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등 등록해야 할 것들이 많고 우리 집 살림살이가 모두 유출되는 기분이 들어 다시 한 번 망설여졌다.

하지만 담당자 분이 워낙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 매뉴얼도 잘 되어 있어 혼자 하기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 혹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자 분에게 전화를 드리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뭔가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매일 매일 열심히 썼다. 그런데 두세 달 지나면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어려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나지 않았다. 자주 못 들어가니 영수증을 모아 놓고 시간이 날 때 한꺼번에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이 생겼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메모란에 지출내용을 적어 놓고 나중에 옮겨 적기도 했다.

현금보다 카드를 주로 쓰는 우리 집 특성상 전자가계부의 계좌조회 프

로그랩이 아주 유용했다.

통장계좌 조회는 물론, 카드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어 통장정리를 잘 하지 않고 인터넷 거래를 주로 하는 나에게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었다. 또 고정적인 지출은 날짜별로 등록해 놓고 매월 그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급여나 관리비 등을 기록하는 데에 아주 편리했다.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 집 지출의 가장 큰 구멍을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외식비였다.

음식을 잘 할 줄 모르기도 하고, 두 아이 모두 엄마 껌딱지라 엄마한테서 안 떨어져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핑계, 둘째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몸이 너무 힘들다는 핑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야금야금 외식을 한 것이 우리 집 가계의 엄청난 구멍이 되어 있었다.

가계부를 쓸 때마다 줄여야 하는데 하면서도 나쁜 습관일수록 더 무서운 지라 잘 되지 않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중이다. 가끔 뉴스에 통계청 가계조사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나도 뭔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할 것 같아 괜히 뿌듯하고 보람 있기도 했다.

전자가계부를 쓴 지 1년 하고 7개월쯤 된 것 같다.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좋아지거나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저 불필요한 지출을 발견하고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지출습관을 조금씩 바로 잡고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계부를 쓰는 의미는 충분한 것 같다.

요즘 모두들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에 몇 억이 든다고 하고, 노후 자금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돈 모으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나나 남편은 그런 재테크에는 재주도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럴

여유자금도 없다. 여전히 우리는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그런데 가계부를 열심히 잘 쓰다보면 돈이 새는 곳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게 되고, 그렇게 작고 사소한 부분들을 고쳐 나가다 보면 가계부를 통해서도 재테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비록 큰 돈은 아니더라도 90원을 100원으로 만드는 10원의 힘, 그것이 가계부의 힘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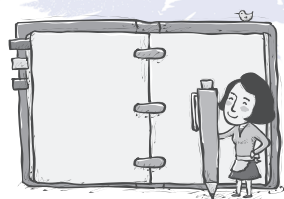
전자가계부를 쓰면서부터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도 생기고, 1년 넘게 꾸준히 가계부를 쓸 수 있게 되어서 괜히 뿌듯하기도 하다.

앞으로도 표본가구가 아니더라도 계속 전자가계부를 쓰며 현명하게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아줌마가 되고 싶다.



낮 설은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가계부

조금순 |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한국처럼 시골 • 응답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7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에서 거주하게 된 조금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아이 둘을 키우며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무렵, 통계청 직원과 연을 맺게 되었고 농가경제조사 가계부를 직접 기록하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농사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가계부 작성이 번거롭고 귀찮기만 했지만 통계청 직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승낙을 하게 되었고 가계지출뿐만 아니라 농사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적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청 직원이 찾아오면 쓰기 귀찮다며 가계부 다시 가져가라고 다그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통계청 직원의 배려에 처음 가계부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힘들다며 쓰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도움으로 가계부를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서툰 한글을 적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직원의 고마워하는 모습에 포기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틀린 글자는 빠르게 고쳐주기도 하고 가계부 관련내용이 아닌 다른 질문에도 성의껏 대답해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글을 배워가는 재미에 푹 빠져 가계부를 쓰다 보니 불편한 것에 비해 내가 얻는 것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계지출 부분을 정리하니 생활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어떤 작물에 어떤 종자를 얼마나 썼는지, 농약은 뭘 주었는지 등등 시시때때로 묻는 일이 많아지고 언제나 농사일에 시큰둥했던 내가 농사 일에 관심을 보이자 나를 대하는 남편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제 남편은 내가 모르는 집안 일까지도 미리 챙겨 알려주고 내 생각을 듣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재배하는 작물이 많고 면적도 넓어 일하느라 늘 피곤해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가 점점 줄어 낮선 나라, 한없이 낯설기만 하고 친구하나 없어 늘 외로웠는데 4년 전부터 가계부 작성으로 시작한 남편과의 소소한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농사 일을 의논하고 집안 일을 상의하는 편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비료·농약·인건비·기타 자재비는 상승하여 손실만 늘어가는 것을 가계부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20년 동안 농사만 지어온 남편에게 다른 일을 권유해 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만 하지 말고 통계조사를 토대로 다음해 농사계획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작물경작에 대한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면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조세·기타경비·토지지번·토

지면적 등)는 직접 확인하여 재조사·재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대농으로 농사 일이 바쁜 응답자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바쁜 농사 일에 지쳐 만사가 귀찮을 때 통계청 직원이 찾아와 내가 적어놓은 가계부를 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또 묻고 또 물어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늘 좋은 건만은 아니지만, 글을 쓰고 배워 나만의 농사일기를 적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농사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준 통계청 직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하게 남는 기억은 통계청 직원의 정보를 얻어 ‘201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직접 조사원으로 일을 해봄으로써 통계청 직원들은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적극적인 태도와 인내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 응답자의 정확한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사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더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통계조사 이왕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김철호 | 전북 군산시 신흥동

2년 전 봄쯤 통계청에서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와 “경제활동이 어찌구, 가계부가 어찌구” 하면서 가계부를 써보라고 귀찮게 하였습니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몇 번 찾아오더니 가계부까지 쓰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대뜸 내가 왜 가계부를 쓰냐고 오는 족족이 거절 하였습니다. 내 아내는 일을 나가고 나 또한 일거리를 찾아서 근근히 일일노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통계청 직원이 낮이고 밤이고 한사코 찾아와서 가계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며 선물도 줄곤 주고 가는 것입니다. 올 때마다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도 나쁠 텐데 올 때마다 어찌나 밝고 씩씩한지 “참, 사람 참하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손을 들고 가계부란 것을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바쁘니 나이 70이 다된 남자인 내가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채신머리없게 가계부나 쓰고 앉아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통계청 담당자의 권유로 그런 멧쩍은 마음도 뒤로 하고 써보기로 했습니다.

다.

하루하루 발생하는 수입 지출에 대해서 써달라는 부탁에 처음엔 귀찮아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써주었습니다. 담당자가 우리집 씬씀이를 보여준다며 종이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그걸 받아들면서 ‘통계는 엉터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엉터리로 작성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차 싶더군요.

내가 엉터리로 작성한 통계조사표가 결국은 나에게 엉터리 정보를 가져다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말이지요. 내 가계부가 미흡했던지 이것저것 물어 하나라도 더 캐물어 적어가는 담당자 모습을 보니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매달 2만 원 상품권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쓰는 거면 잘 써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며칠에 한번 씩 생각나는 대로 쓰던 가계부를 하루 하루 꼬박 꼬박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가도 영수증 모으기를 생활화해서 가계부에 기록하고 지출 하나하나 그램(g) 표기부터 개수까지 정확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도 구간까지 기록하여 꼼꼼히 적습니다.

올해 8월엔 담당자가 가계부 쓰느라 애쓴다고 응답자간담회에 참석해서 점심을 먹자고 초청을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소장님이 우리 같은 응답자를 통하여 조사된 자료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재밌는 설명을 듣다보니 통계가 참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고령자가 느는 시대에 나도 70인 나이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나이 먹었다고 일할 기회도 주지 않는데, 이 나이에도 가계부를 쓰고 나라에 작게나마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3년만 쓰면 된다고 하니 내가 통계청 가계부를 쓸 날도 얼마 남지 않은듯 합니다.

요즘은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며 남을 돕는 일이 많아지는 세상인데 통계청과의 인연으로 상품도 얻고 가계부를 쓰는 작은 일이나마 나라정 책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를 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보람된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

바다는 나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바람은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태양은 나의 영혼을 불사르고
꽃은 내게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통계응답자의 편지

이 미 환 | 충남 연기군



환경제형 사례 • 응답자

청장님께

고르지 못한 날씨에 청장님 안녕하세요.

배우지 못한 탓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 망설이다 펜을 들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못 배우고 해서 틀린 글자도 있을테고 이해 못할 글도 있을테고 해서 많이 배우시고 훌륭한 청장님이 이해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과 생각으로 읽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저는 동생을 업고 학교에 다녀서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아니 저희 어렸을 때는 호미로 파서 모를 심었습니다. 또 들에다 참외, 수박 같은 것을 심어 놓고 원두막을 짓고 그 원두막에서 수박, 참외를 누가 따갈까봐 하루종일 지켰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원두막에 살았지요. 아침 8시에 나갔다가 저녁 8시에

집에 왔지요.

학교 가는 날은 동생을 업고 학교에 갔습니다. 동생을 업고 학교에 가서 공부시간에 동생이 울면 동생을 업고 복도에 나가 서 있다가 동생이 등허리에서 자면 교실로 들어와서 동생을 업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존경하고 훌륭하신 청장님

저희 어렸을 때는 남자는 많이 배워야 출세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남자만 가르치고, 여자는 그저 집안 일만 잘하면 된다면 여자는 제대로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시절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못 배웠지만 못 배운 것이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배운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남을 사기치고 헐박하고 못된 짓하고 거짓말 잘하고 거만하고 해서 지금은 배운사람이 밉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못배운 사람이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순희 씨를 미워했습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 장순희 씨도 많이 배운 사람으로 판단해 믿지 않고 의심하고 미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순희 씨가 저희 집에 오는 것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해서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장순희 씨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 통명스럽게 말을 하고 저희집 현관문을 탁 닫고 제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저희 집에 오더군요. 당신이 무엇인데 우리집에 자꾸만

오는겨, 당신이 깡패냐. 깡패나 이런 행동하지 하면서 “얼른 가라” 당신이 우리집에 오면 내가 혈압이 오르거든. 그러니 얼른 가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집으로 들어오면서 “언니 화내지 말고 내 말좀 들어보고 협조 좀 해줘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말을 거니까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 속담이 있듯이 웃는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조금은 열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협조인데” 했더니 가계부를 쓰라고 하대요.

그래서 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가계부를 써달라고 하느냐. 우리 개인적 생활인데 왜 가계부를 써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생활이 어려우면 돈을 보태줄 것이냐. 아니면 다달이 생활비를 줄 것이냐. 할 일 없으면 집안 일이나 잘하고 시댁 어른들 한테나 잘하고 시댁 어머니 용돈이나 드리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효도나 하지, 젊은 것이 싸가지가 없다”고도 했지요.

아무리 욕을 하고 통명스럽게 하고 냉정하게 해도 웃으면서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언니 화내지 말고 내말 좀 들어줘. 모든 비밀은 보장돼요. 언니에게 꼭 부탁 좀 하니 협조 좀 해줘. 언니 응” 하더라구요. 해서 제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렸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말을 안 믿고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배운 사람이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해서 배운 사람이 믿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장순희 씨 한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기에 쓸개나 간도 어디다 놓고 다니길래 그리 냉정하게 해도 우리집에 오는겨” 하면서 물어 보았더니 그저 웃으면

서 “언니 미안해 이 동네는 내 구역이야.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은 내 가족 처럼 지내야 돼”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언니 꼭 부탁해”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순희 씨를 다는 안 믿어도 반은 믿기로 하고 가게 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직원들 교육을 시켰길래 그리도 상냥하고 너그러운지 모르겠군요. 장순희 씨를 여태껏 지켜보았을 때 청장님이 대단한 분이요 인자하시고 남을 많이 배려하고 인정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청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장순희 씨 교육을 잘 시켜 주셔서 저 같은 사람한테 진정으로 대하고 진정으로 인간 대접을 잘해 주어서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동생처럼 저와 대화를 잘해주어서요. 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워낙에 모든 사람에게 의심받고 믿지를 않아서 제 주위에는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옆방 강복순 아주머니도 장순희 씨가 상냥하고 사람 좋다고 늘 칭찬을 한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통계청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서 그런지 텔레비전에서 자막 글씨가 나오면 조그만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제 눈이 얼마나 작은지 조카 손자가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할머니 눈 뜬거야? 감은 거야?” 하는 때도 있고 누워 있으면 “자는 거야” 한답니다.

저는 여자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순희 씨가 언니하면 즐겁습니

다. 처음에는 장순희 씨가 얄밟고 원수같더니 지금은 기다려지고 안오면 궁금하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한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진정으로 대 해줘 제 속마음을 청장님께 전하고 싶어 글 올리는 겁니다.

이 글을 청장님께 올린걸 알면 장순희 씨가 기분 나쁘겠지 그런 걱정도 되고 청장님도 기분 나쁘실까 걱정은 되지만, 그리고 청장님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실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은 들지만 저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순희 씨는 이글을 보내는 것도 모릅니다.

청장님이 기분 나쁘시고 화가 나시면 장순희 씨한테 혼내지 마시고 화가 나시고 짜증이 나시면 서슴지 마시고 저를 혼내켜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할 말을 안하면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요.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미안하면 미안한 짓을 안하면 되지 하시겠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고르지 못한 날씨에 몸관리 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2011년 4월 5일 수요일

주행엄마가



나의 삶과 추억의 가계부

도미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햇살 따뜻한 어느 봄날 낮선이의 방문을 받았다. 통계청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방문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 동안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금은 당황스럽고 내키지 않았다.

가계부를 쓰다보면 우리집의 수입이며 지출 등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남에게 보여진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수 없지 않는가?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으니...

정확한 가계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자 가계부 작성은 쉽지가 않았다. 컴퓨터와 친하지 않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키보드를 치는 것도, 여러 가지 품목을 찾는 것도, 내가 찾고자하는 품목이 없을 때는 정말 난감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쓰다보니 어느새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분석하게 되고 왜 적자가 났는지 돌이켜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다.

또 나의 소비패턴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봄으로써 가게살림을 보다 규모 있고 알뜰하게 꾸릴 수 있었다. 지금의 쓰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전월과 비교해서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집 가게동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가게부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고 추억이 남아 있는 그런 일기장 같은 가게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통계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휴식이란 단어 앞에 만남 통계청

김영순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53세라는 나이가 되도록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런저런 장사도 해보고 직장생활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보람찬 일도 있고 울고 웃다보니 그야말로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냥 그렇게 흘러 흘러, 이젠 55세라는 중년의 고개에 들어섰네요.

두 아들 중에 한 녀석은 장가보내고 한 녀석은 호주로 유학 보내고 이젠 쉬어 볼까하며 전업주부라는 타이틀에 도전했습니다.

작년 초 겨울날...

참으로 오래간만에 따뜻한 방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음악에 취해보려는데...

핑둥... 핑둥...

“누구세요?”

“통계청입니다”

아~~ 통계청에서 무슨 조사 나왔나보구나 하곤...

“네”

가계부란 말에

“에구, 여태껏 살면서 연초에 보름 남짓 쓰다말고 다음해 되면 또 쓰다말고 이러기를 부지기수인데 새삼스럽게 가계부는 무슨… 더군다나 두 식구만 사니까 쓸 것도 없다”며 극구 사양했지만 요밑조밑 설명해주며 가계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드럽고도 선한 모습에 그만… 통계청 가계부란 곳에 다시 취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컴퓨터는 조금 익숙한지라 바로 전자가계부로 시작했습니다.

첫 달 마감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은행에 자동이체해 놓은 공과금, 보험료, 적금, 할부금, 통신료 등등 그저 다달이 통장잔고에서 일상처럼 빠져나간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활비 또한 만만치 않더군요.

남편과 함께 가계부를 보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살았던 그간의 흔적을 보면서 반성하며 생활방식을 개선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러 곳에 중복되어 있는 보험은 과감히 없애고 쓸데없이 전화해서 낭비한 통신비 줄이고… 무엇보다도 외식비를 줄이며 카드 사용을 줄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절제 되진 않지만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하여!

이젠 남편이 더 극성쟁이입니다.

오늘도 컴퓨터 앞에 명세서 몇 장 있네요….

“통계청 가계부에 취직이 되었으니 오늘도 임무에 충실하며 키보드판을 두드립니다. ㅎㅎ 그래야 월급을 주니까요”

‘생활의 지혜’를 주시고 절제의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신 통계청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의 우리 김성숙 씨 진짜 진짜 고맙고…,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행복을 배달하는 조사원



김관식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2리

나는 통계청에서 하는 농가경제조사에 협조하고자 집에서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조사를 하러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이 되어 찾아오는 조사원을 믿지 못해 마음의 문을 여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계부를 써주며 조사원 정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국가통계를 내기 위해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걸 알게 되었지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정숙 씨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명랑하고, 활짝 웃는 웃음으로 찾아와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내내 기록해 둔 가계부를 살펴보고 잘못 기록된 것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픈 아내를 돌보는 나를 딱히 여겨서인지 찾아올 때 물컵, 주전자 등을 선물로 사다주어 부엌 살림도구가 한층 젊어졌습니다.

물론 잊지 않고 매달 응답자 사례금이라며 농협상품권도 2만 원씩 가

저다주어 농협에 장보러 갈 때 유용하게 쓰고 있지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는 당뇨와 합병증으로 사람의 부축 없이는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매일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집안 일도 하고 아내를 돌보아 주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조사원 정숙 씨의 권유로 제가 직접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격증을 취득키 위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원 정숙 씨는 나의 만학 학구열에 항상 격려를 해주었고, 시험 전날 찾아와 찹쌀떡을 선물로 주어 정말 용기백배하여 시험친 결과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원 정숙 씨는 나의 요양보호사 합격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평택시내 오리고기 집으로 초대해 축하한다며 점심접대도 해주었습니다. 통계청에 대해 공무원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2010년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신이 없어 해매는데 조사원 정숙 씨가 찾아와 해결을 하고, 자기 차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호자 란에 서명하였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건 휴지, 슬리퍼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사다주어 불편하지 않은 병원생활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수시 방문하여 위로를 아끼지 않고, 집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며, 집에 있는 부인에게도 자주 찾아가 안부를 물어주니, 나의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치료를 받아 2주 만에 완쾌되어 건강한 몸으로 금년에도 농사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지요.

2011년 유난히도 길던 금년 장마철에는 평택통계청 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님들이 우비까지 챙겨 입고, 장대같은 비를 맞으며 마늘 수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늘 부패를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통계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소장님과 여러 직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하심을 쌍수모아 축원합니다.

+++

세상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그려지는 사랑하는 이의
웃음은 삶의 샘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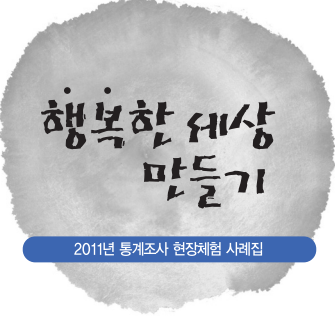
나를 바라보며,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웃음으로 안아주는 이들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나 또한 그들에게
함박웃음으로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속삭여 보려합니다.

"당신의 웃음을 살며시 안았더니
당신의 심장이 나의 가슴에서 땁니다"라고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11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발 행 : 2011년 12월
발행인 : 통 계 청 장 우기중
편집인 : 조사관리국장 오병태
발행처 : 통계청

기 획 : 조사 기획과장 김남훈
사무관 신명철, 유상중, 정명자, 이민경
주무관 장선희, 안상건, 김유선, 안다영, 김정은
김옥경, 차경희, 정연희, 이상엽, 순수현
기획 진행 및 디자인 : 예원인쇄기획(042)623-6200)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 302-701
전 화 : 042)481-3712~3
홈페이지 : <http://www.kostat.kr>



마지막 면입니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